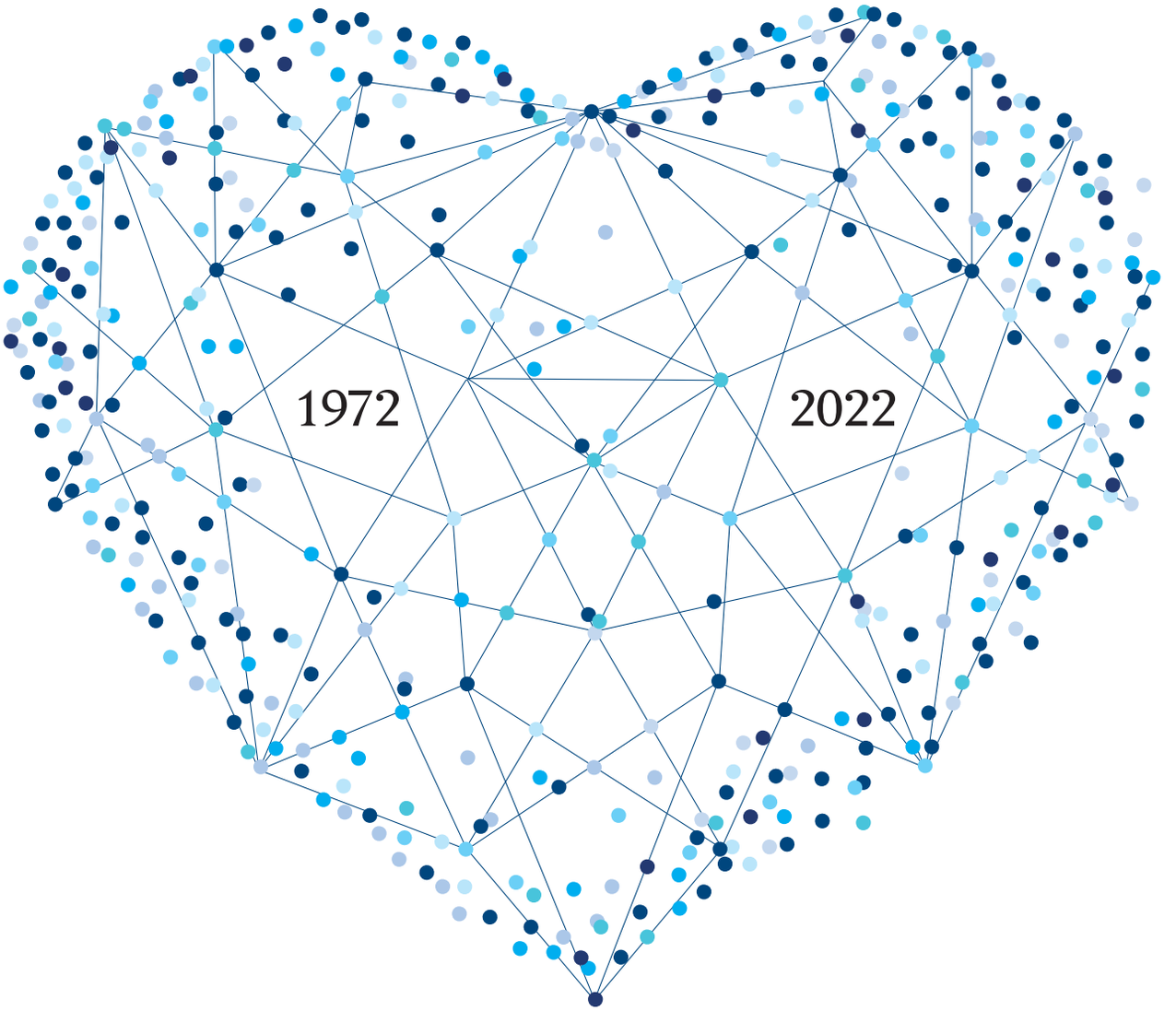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50 YEARS HISTORY


한양대학교병원





사람,



사랑, 실천.

사람이 있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 실천이 있습니다.

함께 한 50년.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이 만들어온 길.





함께 할 50년.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이 만들어갈 길.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대학병원




한양대학교국제병원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국제진료센터·종합검진센터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ҚОШ КЕЛДІҢІЗДЕР
Тавтай морилно уу
XUSH KELIBSIZ
欢迎光临
WELCOME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Carl Zeiss
OPMI VARIO


HANYANG

고객과 가족애로 하나되는 환자중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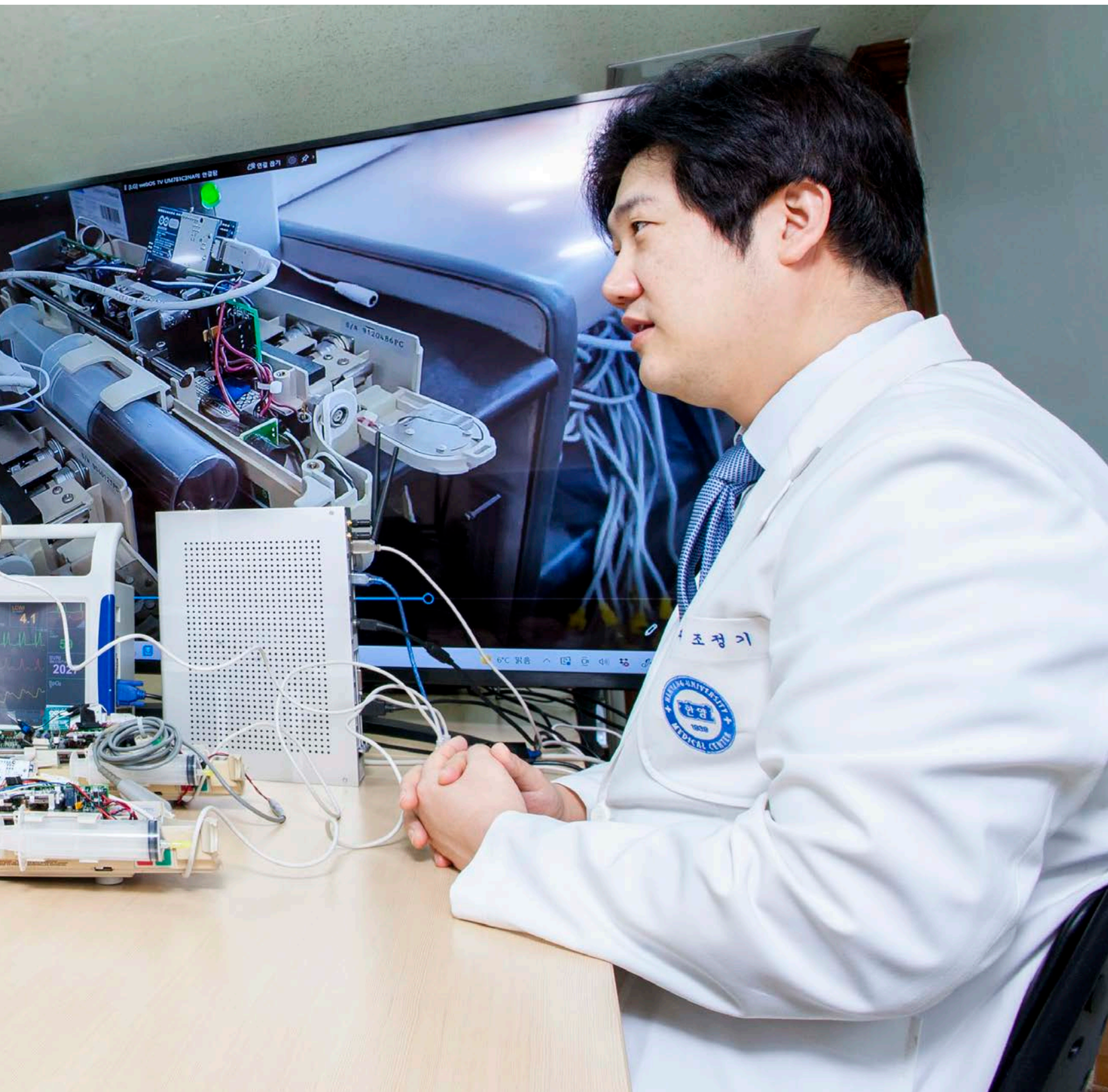
의술이 품어야할 가장 뜨거운 가치,



애지실천(愛之實踐)의 정신을 담아


2021
제3회 연구자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주도 세부 : 5세부 운영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R&D
2021 제4회
연구자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2021
제5회 연구자주도
혁신형 심포지엄
2021.10.22
120/80

모두가 행복한 내일의 의술을 열어갑니다.




sdasdasda disksf; k ;lakda;skda;lkd;ka;woeeo{rfj fslkj sdfshjm
dcdfsdaadjl : skjdlaks
asjdalklslweioqgmg ;dk;asks;lkd :asowrogks;mxz,a dfvfsfs huej
sqowpoqwemdsala;ldfsd
a;sdlka;as;ldkwpoeqwqkasdfsdfsa'f a;'s;lsa;l aka;seoovjasrug
akjslddowkfgkasldksdflks [asd jq ss asdk k a kakspqowekad m
alsdlkakseogvo a;slkd k;q;asocxzssdsfsdsfdfspa;sld k a;sl a;ls s




한양
1939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목 | 차

발간사 31

축사 32

통사 愛之實踐,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한 100년의 여정

Chapter 1 사랑의 실천으로 길을 만들다 40
Chapter 2 새로운 역사의 움을 틔우다 66
Chapter 3 더 큰 세상을 품다 86
Chapter 4 더 높이 비상하다 118
Chapter 5 더 빛나는 미래를 꿈꾸다 168
Chapter 6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들 184



부문사 사랑의 실천, 한마음으로 가는 길

진료과 210
류마티스병원·국제병원 244
특성화 센터 및 연구원 252
간호국 및 진료지원부서 266
행정지원부서 등 282

부록 자료로 보는 한양대학교병원 298

편찬후기 340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

이제 한양대학교병원은 도약의 100년을 위해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발 | 간 | 사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1972년 개원한 한양대학교병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는 지난 헌신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 의료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해나갈 우리 병원의 앞날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양학원 설립자이신 故 김연준 박사께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본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한양대학교병원을 건립하면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우리 병원은 1979년 신관 증축, 1980년 T관 증축, 1982년 동관 증축, 1998년 류마티스병원 개원, 2003년 국제병원 개원,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며 성장을 거듭해나갔습니다. 시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국내 최초 외국인 특화 국제병원과 세계적 수준의 류마티스병원을 개원하고, 난치성 신경계질환 치료에 특화된 세포치료센터, 다학제 진료로 중증질환 치료에 전문화된 암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더불어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되는 의학연구원, 선도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환자 만족도 평가 등의 관문을 넘어왔기에 오늘날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병원은 도약의 100년을 위해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본원 및 의과대학 신축 등을 통해 융복합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 의료시스템, 환자중심 진료공간, 자연친화적 외래공간으로 환자 치료와 편의에 특화된 병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의 한양대학교병원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설립자 故 김연준 박사님, 김종량 이사장님, 김우승 총장님,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0주년 준비위원회 및 역사편찬 소위원회와 한양대학교병원 모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양대학교병원장 윤호주

사랑의 실천을 향한 끝없는 여정



'사랑의 실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품고 출범한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병원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새 삶을 얻고, 누군가는 소중한 이의 부재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숱한 희로애락을 겪어가며 힘겹게 지나온 우리의 50년은 결국 사랑의 실천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했던 1970년대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첨단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으며,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병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전국적인 의료 네트워크를 확충해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연구기능 확대와 광범위한 연구논문 간행 등을 바탕으로 우수 의료인 양성과 의학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 병원문화 창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권리장전'을 제정했으며,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한 쾌적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진 사기 향상과 직원 만족을 위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는 등 조직문화 창출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업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수과정을 개설해 수준 높은 의학지식을 널리 전파했으며 무의촌 · 영세민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의료봉사를 실천했습니다. 해외 의료봉사활동 확대를 통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아 펴낸 사사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에는 사랑의 실천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병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원 50주년과 사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언제까지나 환자 곁에서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 종 량**

글로벌 100대 의료기관을 향해



한양대학교병원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낙후한 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의학용 레이저 도입, 뇌사자 신장이식, 소아외과 진료 등 숱한 최초의 기록들을 스스로 경신해나갔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로 개원해 국내외 의료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세웠던 한양대학교병원이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보다는 민간요법이 성행하던 시절,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내외 의료진을 다수 영입 및 교육하여 미래 국민건강을 책임질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계단 강의실을 비롯한 교육 시설의 첨단화, 의학교육진흥원과 의학혁신융합연구소 개원, 차세대 맞춤의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오늘날, 세계적인 의료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열악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으로 행당동산에서 시작한 그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의술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의료인의 배출을 위해 기초와 임상의학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중계 및 연계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구에 정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 여러분 2030년, 세계 글로벌 100대 의과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금처럼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 발간하는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이 글로벌 100대 의료기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좋은 방향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총장 김우승

최초와 최고의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1972년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한양대학교병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50년간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대학병원,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고객과 가족애로 하나 되는 환자중심병원이란 비전을 실현해 오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며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22년,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그간 병원의 성장을 기록하는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병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명문 의과대학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동북부의 핵심의료기관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개원하였고, 국내 최초의 국제병원, 류마티스병원을 설립하는 등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암센터, 첨단의료시스템을 보여주는 세포치료센터와 첨단재생의료센터까지 그 영역과 규모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왔으며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의과대학은 생명과학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양생명과학기술원(HY-IBB)을 개원, 바이오 융합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슬로건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을 이루기 위해서 한양대학교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의 설립과 성장,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전현직 교직원, 의과대학 재학생 및 동문, 부속병원 관계자, 재단 관계자,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한양대학교병원 50주년 기념사업에 힘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대한 50년 역사를 수집하고 정리한 50년사를 편찬해 주신 편집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헌신의 50년 역사를 기반으로 지금 도약의 100년 역사를 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가 더 높은 성장의 한 줄기 깊은 뿌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 병원에 최초와 최고의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호순**

도전과 응전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역사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넘게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윤호주 병원장님 및 의료진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토인비가 언급한 것처럼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환자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해왔으며, 양질의 교육으로 후학 양성에 정진하며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설립된 류마티스병원은 류마티스질환 치료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고, 난치성 신경계질환 치료에 특화된 세포치료센터에서는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임상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문 여러분께서 쌓아 오신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난 50년 동안 한양대학교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 환경에 노련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의과대학의 모든 동문이 계속되는 병원의 도전과 응전을 위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장 **하헌영**


한양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천천히
20

통사

愛之實踐,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한 100년의 여정

“우리 학교 건학이념이요, 나의 철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근면, 정직, 겸손, 봉사 네 가지 덕목 중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대학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의 장소는 병원이라는 심정에서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故 백남 김연준 박사



Chapter 1.

1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 탄생

2



치료 영역의 확장

사랑의 실천으로 길을 만들다

1972~1992

3



환자를 향하는
병원의 철학

4



소통과 화합의
병원 문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병원을 짓다

1972년. 동양 최대 규모의
한양대학교병원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의술이 품어야 할
가장 따스한 가치, 사랑.
그 숭고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이 개척한 길이었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100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의 뜨거웠던 처음,
그 오래된 시간 속으로 걸어가본다.

소명 열정

Holly Mission & Passion

1.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 탄생



1972년 개원 당시 한양대학교병원

__ 1960년대, 태동이 시작되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으나 1960년대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단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 연평균 9%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을 보였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덜게 되자, 한국인들은 그동안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건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식 변화의 속도를 국내 의료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1966년 보건사회부에서 펴낸 〈보건사회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국내에는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이 18곳, 병원(Hospital)이 203곳, 의원(Clinic)이 5,000여 곳 있었다(사립, 공립 포함). 그중에서 종합병원은 경기, 인천, 경남, 충북, 제주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의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1만 1,456명이었는데 2,900만 명에 이르는 남한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국민 1만 명당 의사의 수는 3.9명으로 미국 16.5명, 오스트리아 20.1명, 이스라엘 28.7명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장비도 아예 없거나, 있는 것마저도 낙후한 실정이었다. 위생 관념도 부족해 후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핵, 수두, 볼거리와 같은 질환이 유행했다.

하지만 인구 증가세가 뚜렷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 의료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 의료서비스가 서서히 도약의 발판을 형성하던 그 시기, 그 시대적 흐름 속에 한양대학교병원의 태동도 시작되고 있었다.

역사의 서막, 의과대학 출범

한양대학교병원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모체인 한양대학교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 거대한 서사는 1960년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학교의 전신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7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대로 출발한 동아공과학원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명을 건국기술학교로 변경했고 1948년 7월, 국내 최초의 4년제 사립 공과대학인 한양공과대학을 거쳐 195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명문 사학으로서 입지를 다져가던 한양대학교는 1960년대에 접어들며 의과대학 설립을 계획했다.

한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사랑의 실천(근면 · 정직 · 겸손 · 봉사)'이다. '사랑의 실천자'는 '근면하여 많은 과실을 따되 정직하고 겸손하며,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자'를 의미한다. 한양대학교는 이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다. 더욱 넓고 깊게,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를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1965년 12월,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1968년, 드디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출범했다. 첫해 신입생은 총 80명이었다. 다음 해인 1969년 12월에는 간호학과를 신설했고 1970년에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11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동문 수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해 5,000명 이상이며, 270여 명의 교수가 병원 진료와 함께 임상 · 연구 ·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창의적인 연구로 의학전문 지식을 실용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며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과대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연준 설립자



1972년 5월 3일
한양대학교병원 개원식

학. 그 소명과 열정의 나무들이 성실히 가지를 뻗고 향기롭게 과실을 맺어가면서 '한양대학교병원'이라는 커다란 숲이 되었다.

국내외 관심 속에 최신식 병원 준공

의과대학이 개설되자 부속병원 건립도 시급해졌다. 의과대학 개설 이듬해인 1969년 3월,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2만 3,500여 평의 대지에 1만 1,000여 평의 건물 규모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병원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병원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1970년대 초부터는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설립자인 김연준 이사장이 직접 각 과의 의료진을 선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내과 김종설, 소아과(현 소아청소년과) 박종무, 신경정신과(현 정신건강의학과) 진성기 과장 등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영입했고 양막지 간호과장 외 17명의 간호사를 선발했다. 또한 총무과와 진료지원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형병원 운영에 필요한 체계와 내실을 다졌고 기구 편제도 재정비에 들어갔다. 각종 드레싱 세트, 위생 재료, 소모품 등을 포장, 멸균, 소독해 공급하기 위한 중앙공급실도 개설했다.

병원 시설부터 의료진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1972년 4월 24일, 마침내 한양대학병원이 준공되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204병상 규모에 17개 진료과(내과 · 마취과 · 방사선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성형외과 · 소아과 · 신경외과 · 신경정신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일반외과 · 임상병리과 · 정형외과 · 치과 · 피부과 · 흉부외과)를 갖춘 최신식 병원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972년 5월 3일, 한양대학교병원 개원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동양 최대 규모로 개원한
한양대학교병원

소명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다

한양대학교병원은 300여 명의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바로 진료에 들어갔다. 초대 의료원장에는 이병희 교수, 초대 병원장에는 박석련 교수가 선출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모교 설립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 배출에도 힘을 써 일례로 1972년 11월에는 군전공의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군의관 교육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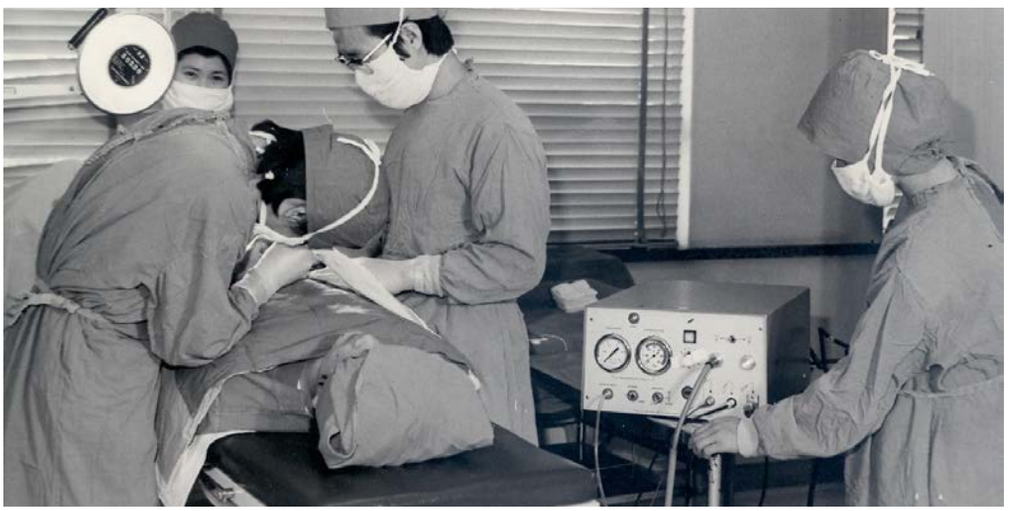
피부과는 진료과 개설을 인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다가 1973년 6월, 김중완 전임강사가 초대 피부과학 주임교수 및 진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진료를 시작했다. 흉부외과 역시 개원 후 약 1년 동안 일반외과(현 외과)와 같이 진료를 보았으나 1973년 3월, 초대 주임교수에 김근호 교수가 부임하면서 독립, 박영관 전임강사와 함께 정식적인 흉부외과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개원 당시 성형외과 역시 일반외과의 분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귀국한 정찬건 교수가 첫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성형외과학이 초기 정착단계였음을 고려할 때 개원 초부터 성형외과가 개설되어 진료를 시작하였음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다만 이때는 성형외과 전공의가 없었으므로 일반외과에서 전공의가 1명씩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1973년 류재만 교수가 임용되면서 화상, 반흔 구축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성형외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1983년 3월 1일, 류재만 교수가 초대 과장 및 주임교수로 발령이 나며 일반외과에서 독립되었다.

개원 초기 진료과 현황 및 초대과장

진료과	과장	출신대학	재임기간
내과	김종설	서울대학교	1972. 5. ~ 1975. 12.
마취과(현 마취통증의학과)	김완식	연세대학교	1972. 2. ~ 1985. 2.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	강석린	일본 교토대	1972. 5. ~ 1982. 12.
비뇨기과(현 비뇨의학과)	김동한	연세대학교	1972. 5. ~ 1988. 8.
산부인과	송상환	연세대학교	1972. 5. ~ 1977. 10.
성형외과	류재만	고려대학교	1983. 3. ~ 1988. 12.
소아과(현 소아청소년과)	박종무	연세대학교	1972. 3. ~ 1983. 2.
신경외과	정환영	전남대학교	1972. 3. ~ 1989. 2.
신경정신과(현 정신건강의학과)	진성기	일본 소화대	1970. 3. ~ 1975. 2.
안과	고충제	서울대학교	1972. 4. ~ 1983. 6.
이비인후과	김선곤	연세대학교	1972. 5. ~ 1988. 12.
일반외과(현 외과)	이용우	연세대학교	1972. 2. ~ 1980. 2.
임상병리과(현 병리과)	김기홍	서울대학교	1972. 5. ~ 1980. 2.
정형외과	김광회	연세대학교	1972. 3. ~ 1988. 12.
치과	유광희	서울대학교	1972. 5. ~ 1989. 2.
피부과	김중완	부산대학교	1973. 6. ~ 1973. 12.
흉부외과	김근호	전남대학교	1973. 3. ~ 1984. 12.

2.
치료 영역의 확장



개원 초기 수술실

진료과 확대 및 국내 최초 내과 분과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후 점점 더 진료과를 확대해 나갔다.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더 많은 환자를 돕기 위함이었다.

1976년 4월에는, 뉴욕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부산 메리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재임 중인 이강목 교수를 임용, 재활의학과를 개설했다. 개설 초기에는 본관 3층에 외래, 근전도실, 작업치료실 및 의지보장구 제작실을 두고 진료를 했다. 이후 1984년, 별관 4층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물리치료실과 협력해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초기에는 방사선 치료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내원했으나 방사선 치료는 타 병원에 의뢰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1978년 방사선치료기를 도입했고, 신관 건물 2층에 치료실을 마련해 이듬해부터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 7월, 치료방사선과를 정식 개설하고 김정진 교수를 과장으로 임명했다.

1981년 2월,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내 최초로 내과를 분과 형태로 나누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내과는 소화기내과, 일반내과(현 내분비대사내과), 호흡기 및 결핵과(현 호흡기알레르

기내과), 순환기내과(현 심장내과), 신장내과로 나누어졌다.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은 내시경 전담 간호사가 임명되면서 '소화기내과 검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소화기내과에서는 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최신 치료법인 내시경적 경화 요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 10월, 소화기내과 검사실에 전자내시경을 도입되면서 내시경은 진단 위주에서 치료 위주로 발전했다.

상급병원으로 성장 본격화

1972년 개원 당시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신경과가 독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 역시 내과 혹은 신경정신과에서 신경과 환자를 진료했다. 그러던 중 1982년 3월, 대한신경과학회 창립에 발맞추어 주요 병원들이 신경과 개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미국에서 신경과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명호 교수가 한양대학교병원에 부임했다. 이를 계기로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신경과 개설을 추진해 1985년 3월, 내과에 소속되어 있었던 신경내과를 신경과로 독립시켰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1982년을 넘어서면서, 상급병원으로서 성장세는 더욱 본격화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1986년 4월, 점점 더 증가 추세인 암과 혈액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혈액종양내과를 개설했다. 과장으로는 최일영 교수가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결핵과가 개설되었고 이정희 교수가 과장으로 부임했다. 1986년 9월에는 임상병리과에서 담당하던 조직 및 세포 진단 업무를 분리하여 조직병리과를 신설했고, 이중달 교수를 과장으로 임명했다.

1987년 순환기내과는 김정현 교수 부임과 더불어 관상동맥 촬영술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부터 관상동맥 풍선확장술(PTCA)도 실시했다. 1988년 2월에는 가정의학과를 개설하고 이정권 교수를 과장으로 임용했다. 이정권 교수는 가정의학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을 겸임하면서, 건강관리과 업무 및 외래환자 진료를 시작하며 가정의학과의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1989년 7월 1일에는 동관 1층에 가정의학



1976년
재활의학과 개설



개원 초기
위 내시경 하는 장면

과 외래진료실을 개설했다.

1989년 3월에는, 5개로 분과되었던 내과에 류마티스내과가 추가로 신설됐다. 류마티스내과는 이후 류마티스센터로 개편되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에 가까웠던 류마티스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개원 20주년으로 넘어가는 1992년 1월에는 내분비내과에 당뇨센터를 신설해 당뇨 환자를 상담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산업보건센터(현 직업환경의학과)를 개설해 산업보건 업무를 수행했다.

전문성 갖춘 특수클리닉 개설

한양대학교병원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클리닉도 개설해 나갔다. 1974년 4월 1일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심광섭 교수를 임용해 구강악안면외과클리닉을 개설하고 턱교정 수술 및 악안면 부위 외상을 재건 및 회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1975년 10월에는 신장내과 내에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여 급성 및 만성 신부전, 사구체질환, 신장의 혈관질환, 신장결석, 신장종양과 같은 신장질환자들을 진료했고, 3대의 혈액투석기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했다.

1979년 9월에는 정풍만 교수가 영국 Sheffield 아동병원, Alder Hey 아동병원, Great Ormond Street 아동병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이전까지 일반외과(현 외과)에서 함께 진료하던 소아외과 환자를 독립적으로 진료하며 전문적인 수술과 치료를 시작했다.

1982년 9월에는 장기은행을 설립했으며, 신경외과에서는 본격적인 미세 수술을 시작해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경추 추간공 경유 골증식체 제거술을 시행했다.

1985년 4월에는 백남심장센터를 개설, 초대 심장센터 소장으로 흉부외과 김창호 교수가 임명되



1970년대 연구실

었다. 이 센터는 흉부외과순환기내과(현 심장내과) · 소아심장 · 심장방사선과 · 심장마취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장센터가 정식으로 명명된 이래 심장내과 임헌길 교수가 처음으로 심도자술을 시행했다.

진료과 확대 및 특수클리닉 개설 현황(1976~1992)

진료과 확대 현황

진료과	개설일시	초대 과장	비고
재활의학과	1976년 4월	이강목 교수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	1979년 7월	김정진 교수	
일반내과(현 내분비대사내과)	1981년 1월	김목현 교수	국내 최초 내과 분과
소화기내과		박경남 교수	
순환기내과(현 심장내과)		이정균 교수	
신장내과		박한철 교수	
호흡기 및 결핵학과(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정희 교수	
신경과	1984년 4월	김명호 교수	내과 소속 신경내과가 독립
조직병리과(현 병리과)	1984년 8월	이중달 교수	
혈액종양내과	1986년 4월	최일영 교수	
결핵과	1986년 6월	이정희 교수	
가정의학과	1988년 2월	이정권 교수	
류마티스내과	1989년 3월	김성윤 교수	국내 최초 분과
산업보건센터(현 직업환경의학과)	1992년 5월	김윤신 교수	

특수클리닉 개설 현황

특수클리닉	개설일시	담당 교수	비고
구강악안면외과	1974년 4월	심광섭 교수	
인공신장실	1975년 10월	박한철 교수	
소아외과	1979년 9월	정풍만 교수	독립적 진료
장기은행	1982년 9월	박한철 교수	
백남심장센터	1985년 4월	김창호 교수	

최고의 의료장비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국내 최고의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명성이 높았다. 진료과를 확대하고 특수클리닉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수준 높은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수리할 필요하였기 때문에 1976년 11월, 고가의 의료장비 예방 점검과 수리 등을 위해 관리과 산하에 의료장비계를 신설했다. 이후 의료장비계는 1984년 의공과로 승격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A-mode, M-mode 촬영이 가능한 심초음파 기기(Smith-Kline사)를 도입, 허봉렬 교수가 안수암 기사와 함께 검사를 시작했다. 1979년에는 복부초음파 및 심장 초음파의 2D Image가 가능한 장비(Hitach사)를 도입했다.

이후 1980년에 이방헌 교수가 새로 부임하여 초음파 검사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1982년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 심장혈관센터에서 심초음파를 연수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1984년에는 심장전용 심초음파(Aloka사)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심장만 전문적으로 검사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흑백 도플러 검사가 가능한 심초음파기기(Hewlett-Packard사)를 도입했다.

그 밖에도 1979년에 코발트-60 방사선치료기,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TAO Applicator를 도입해 Cs-137 밀봉소선원의 강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84년에는 방사선 촬영실에 처음으로 이면(biplane) 촬영이 가능한 Cine 촬영기(OPTIMUS M200, PHILIPS)를 도입했다. 이어 1987년에는 Liner Accelerator, Computer Planning System, Desimatry System 등 당시 최첨단에 속하는 장비들을 도입해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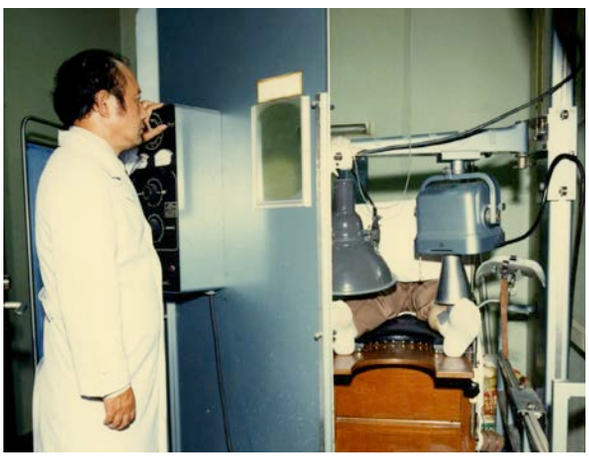
동위원소 촬영기



고압 산소치료기









(위) 복강경 수술

(위) 종합 심장기능 측정기

(아래) 방사선 피부 치료기

(아래) 전산화 단층촬영기(CT)





(위) 중환자실 집중 감시기

(아래) 위 및 장 X-ray

‘처음’을 열어 의학발전의 기틀을 다지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첫 자취’들을 다채롭게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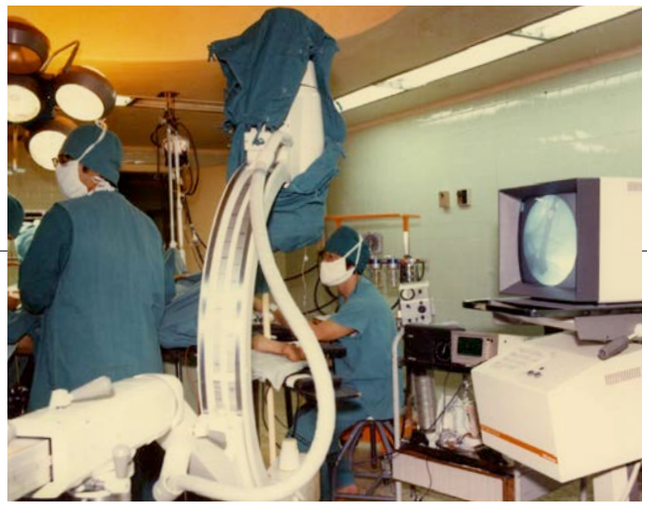
우선 개원했던 1972년, 국내 최초로 육아상담실을 개설했으며 의학용 레이저를 최초로 도입해 안과 진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비알레르기클리닉, 치과학 교실을 개설했다. 1973년 5월에는 통증클리닉을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침전기(Electric Acupuncture)를 도입했다.

1976년에는 신경정신과(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임상심리 수련과정(3년)을 시작했다. 당시 김재환 교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심리 수련과정을 수료했는데, 그는 최근에도 사용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SCL-90-R)를 번안하고 표준화하며 국내에 임상심리학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 및 단기 수련과정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흉흉부외과는 개설 3년이 지난 1976년, 처음으로 개심수술을 시도해 성공했다. 이후 인공판막 대치수술 및 활로씨증후군 등 전문적인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978년에는 신장내과에 강종명 교수가 부임하면서 신장이식을 통한 말기 신부전 치료의 장을 열었다.

또한 1978년에 일반외과(현 외과) 곽진영 교수가, 당시에는 미개척 분야였던 신장이식학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연수하고 귀국해 국내 신장이식 수술을 활성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은 1979년 1월 13일 일반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과(현 마취통증의학과) 합동으로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이후 연속적으로 뇌사자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오늘날 장기이식 등 이식에 관한 법(뇌사자 장기이식법)이 제정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8년 피부과에서는 김중한 교수 주도하에 성인성질환, 특히 임질을 비롯한 요도염의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뤄낸 독보적인 성과였다.



정형외과 C-arm 수술

1984년, 소화기내과는 난치성 복수의 획기적인 치료법인 '대량 복수천자법'을 처음 시행하였으며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 서흥석 교수와 함께 간세포암의 최신 치료법인 '간동맥화학색전술(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또한 1987년 2월, 소화기내과 이동후 교수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암 유전자 발현의 조직 표본 내 유전자 재결합 반응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여 광혜의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은 1991년 1월, 신장내과, 일반외과(현 외과) 주도 하에 '신장 교환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성 신부전 환자가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맞지 않아 가족간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결하였고, 세계 최초로 교환이식에 성공했다. 이후 2011년 10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2례의 성공 실적을 올리는 등 신장이식의 역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최초
뇌사자 공여
신장이식



국내 신장이식 수술
활성화에 기여

INTERVIEW

1

장기이식,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전과 기록

- 곽진영 11대 병원장 -

더 이상 치료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말기 질환자들은 뇌사자 또는 생체에서 기증된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장기이식은 환자에게 '제2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한 줄기 빛과도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장기이식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을 이뤄낸 곽진영 11대 병원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신장이식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의료 장비도,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죠. 1975년에 한양대학교병원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혈액투석을 시작했어요. 국내 최초로 신장투석기를 들여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신부전증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투석이 아닌 신장이식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신장이식술에 관심을 갖게 됐죠.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 몸 담으면서
미개척 분야였던 신장이식학을
국내에 들여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법과 사회적 인식까지
바꾸며 우리나라 장기이식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내 최초의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외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장이식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13일, 입원 환자와 뇌사 기증자가 연결되면서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장이식팀은 그해 6월, 9월에 걸쳐 총 4건의 뇌사자 신장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멈춰야만 사망으로 판단했던 사회에 뇌사자 장기이식은 법률상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각종 방송, 학술대회를 통해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셨지요.

오랜 시간 '심장사'만을 죽음으로 받아들여 왔던 대중들에게 뇌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언론과 미디어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죠.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방영된 〈소망〉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초의 메디컬 드라마로 장기이식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 및 진료 케이스를 스토리에 녹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해외에서 권투시합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나라 선수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장기이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식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졌습니다. 저는 장기이식에 관한 내용이라면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고 자문하고 출연하면서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세계 최초로 신장 교환이식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1980년대는 가족간 신장이식의 붐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면역검사 결과 불일치를 핑계로 신장매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간 이식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장기가 돈으로 거래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면역 부적합으로 가족간 이식이 불가능한 사람들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방법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신장 교환이식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해당 사례는 '몬트리올 세계이식학회'에 발표, 국제적으로 공여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큰 환영을 받게 되었지요.

이를 통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1993년 대한의사협회가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정의 기반을 닦았고,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이식학회 개회식에서 '뇌사에 관한 선언문'이 선포되면서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첫 신장 이식수술이 이뤄진 지 20년 만의 일이었지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의 굳은 신념이 이루어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11대 병원장으로서 병원 식구들에게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병원장을 맡았던 190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시기는 병원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내 경제적으로는 IMF 사태가 터졌었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진들의 파업도 잇따랐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발 양보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주었던 병원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병원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환자를 향하는 병원의 철학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__ 내원 환자의 증가로 신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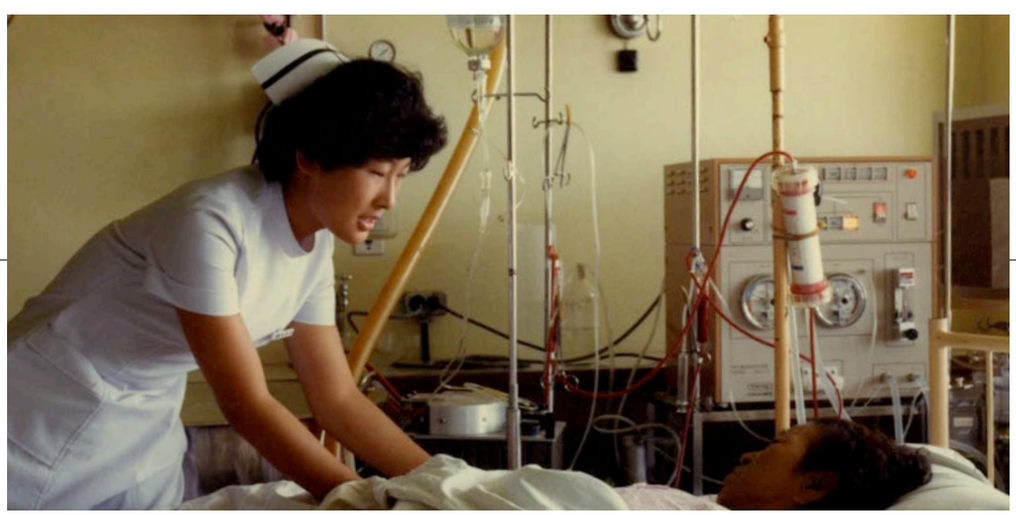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었던 1970년대의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 많은 환자들이 우수한 의료진에게 최신식 의료설비로 진료받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내원 환자는 1972년 개원 첫 해에 외래 9만 9,496명, 입원 5만 3,839명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내원 환자가 크게 늘어 외래 16만 293명, 입원 10만 3,957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내원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내원 환자 증가 현황(1972~1978)

구 분	외래			입원	
연도	초진	재진	연인원	실입원	연인원
1972	41,494	58,002	99,496	5,446	53,839
1973	53,814	106,479	160,293	8,344	103,957
1974	59,623	132,659	192,282	10,036	126,611
1975	64,046	149,311	213,357	11,180	136,742
1976	69,485	160,172	229,657	12,349	150,075
1977	79,702	176,739	256,441	15,494	187,663
1978	89,201	195,698	284,899	17,480	227,197

내원 환자, 그중에서도 특히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면서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당시 인가받았던 204병상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당국에 지속적으로 병상 확충 인가를 신청했고, 1973년 12월에 400병상 인가를 거쳐 1976년 7월 500병상, 1977년 9월 600병상, 이어 1979년 3월에는 700병상을 인가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1979년 5월, 1,345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관을 증축했다. 본관에 있던 치료 시설과 검사 시설, 교수 연구실을 신관으로 확장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병상을 추가 배치했다.



인공신장실
혈액투석하는 모습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건물 증축

이후에도 내원 환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979년 외래 환자 수가 연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981년에는 입원 환자도 연 30만 명대로 늘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내원 환자 증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은 병상 확충과 병원 신 · 증축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80년 7월 5,123평에 지상 10층 규모의 T관 증축공사를 준공했고 1981년 2월, 800병상을 인가받았다. 야간 응급환자 진료 구급병원(성동구 17호)으로 지정된 1984년 3월에는 4,112평 규모의 별관을 준공하고 900병상을 인가받았다. 1990년 3월에는 응급실, 수술실 증축공사를 완공했으며 1992년 9월에는 1,100병상을 인가받았다. 12월 10일에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제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내원 환자 증가 현황(1979~1992)

구 분	외래			입원	
연도	초진	재진	연인원	실입원	연인원
1979	91,563	213,517	305,080	20,333	247,122
1980	96,059	215,317	311,376	21,231	262,643
1981	111,329	253,692	365,021	24,383	301,369
1982	111,336	281,622	392,958	25,931	325,972
1983	106,303	314,412	420,715	26,384	334,734
1984	100,843	317,087	417,930	25,176	338,717
1985	85,287	328,206	413,493	24,555	341,524
1986	58,635	345,018	403,653	24,289	325,313
1987	53,954	341,756	395,710	23,436	331,050
1988	52,928	348,861	401,789	24,289	357,198
1989	44,948	318,680	363,628	23,296	347,671
1990	44,068	366,053	410,121	25,707	365,571
1991	42,789	383,831	426,620	26,265	379,791
1992	45,833	426,330	472,163	26,387	385,616









(위) 신생아실

(아래) 이비인후과 진료

(위) 인공 심폐기를 이용한 심장수술

(아래) 안과 진료

4.
소통과 화합의 병원 문화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의 병원을 지향하는 동시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8년 1월 1일 자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만 적용했던 건강진단 · 질병 · 부상 · 분만 ·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제도가 사무직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총무과를 통해 사립학교 연금업무를 수행하여 직원들이나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했다.

1984년에는 다시 총무과에서 교직원 재산 증식과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공제회 업무를 시작했다. 1971년 제정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교직원을 가입시켜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했다.

노동조합 설립

1987년 8월 17일에는 한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초대 백종목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노동조합은 출범 이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노조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영양과 조리원 근무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하루 8시간 근무교대가 시작되었고 정식 조리원의 휴가 대체자로 시간제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휴가도 본래 주휴, 공휴만 있었으나 생리휴가, 연가, 월차, 청원 휴가로 늘어나고 1992년에는 근무 시간이 주 44시간이 되었다.

1987년 8월에는 노동조합 업무지원을 위해 총무과에 노무과를 설치했다. 노무과는 이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기록하기 위해 노무일지를 작성했으며, 임금 · 단체협약 및 교섭 업무를 지원하고 노사협의회,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1998년 12월 1일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양대학교의료원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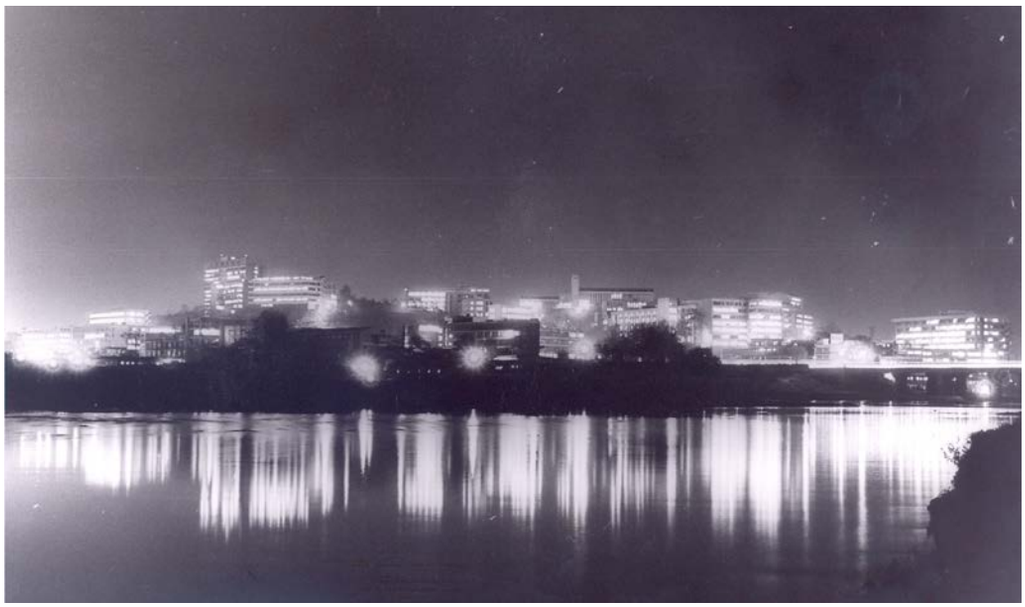
1987년 노동조합 결성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원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



의과대학 뒤편으로 보이는 한양대학교병원





(위) 한강 너머 보이는 한양대학교병원 야경

(아래) 개원 초기 병원 내부

Chapter 2.

1



의료원 체제 구축

2



차별화된
의료 인프라 축적

새로운 역사의 움을 틔우다

1993~2001

3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전자시스템

4



환자를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한양대학교병원만의 방향성을 찾아서

개원 이후 20년간은
한양대학교병원의
단단한 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양대학교병원만의 방향성을 향해
성장과 확장의 날개를 활짝 편 시기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명징하게 만들고
앞날의 의료역사에 한 획을 그을
새로운 시도들이 움트는
의미심장한 시간들이 이어진다.

성장 확장

Growth & Expansion

1.
의료원 체제 구축



국내 최초 의료원 체제 도입

국내 의료 인프라가 확대되던 시기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크게 개선되어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3~4단계에 해당하는 1977년부터 2000년 사이를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책의 '확대기'라고 규정하는데, 이 시기는 한양대학교병원이 걸어온 성장과 확장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 5단계

구분	내용	기간
1단계	보건의료 태동기	1945~1961
2단계	필수 보건의료기반 확충기	1962~1976
3단계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	1977~1994
4단계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	1995~2000
5단계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화기	2000년 이후

출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2012.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의료 수요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한양대학교병원은 당시 의료 취약지역이었던 경기 동북부 지역 구리시에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1987년 9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설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한양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1988년 2월, 허가를 취득하고 1990년 9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승인받았다. 1991년 4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축 허가를 받아 5월 27일에 기공을 시작했다.

드디어 1995년 10월 31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번지에 454병상, 8개 과 규모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개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초대 병원장에는 호흡기내과 이정희 교수가 취임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련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995년 개원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기념식

한양대학교의료원 체제 출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을 앞둔 1993년 1월, 의료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시행된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출범해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함께 관장하게 된 것이다. 1996년 11월 1일에는 이와 관련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로써 한양대학교의료원(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양대학교병원(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한양대학교구리병원(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이후 양대 병원을 아우르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및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지역 최고의 거점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두 병원을 관장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체제 출범

2.
차별화된 의료 인프라 축적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 등 클리닉 및 센터 신설

한양대학교의료원 체제 개편 직후인 1993년 1월, 한양대학교병원은 신경생리검사실을 개설해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를 통해 말초신경병이나 근-신경 접합부질환, 근육질환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경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을 치료했다.

1993년 9월에는 호흡기내과(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 천식 및 알레르기클리닉을 개설해 호흡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성형외과에는 엄기일 교수 담당으로 선천적 기형인 환자들에게 연령에 맞게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는 언청이클리닉을 개설했다. 그리고 최희윤 교수 담당 아래 두개골 조기융합증 환자를 치료하는 두개기형클리닉을 개설했다.

1994년 재활의학과에서는 족부변형클리닉 · 강직성척추염클리닉 · 통증클리닉을 개설했다. 특히 족부변형클리닉은 발 및 신발과 관련된 국내 최초 클리닉으로 박시복 교수가 담당했다.

1994년 7월, 한양대학교병원은 장기이식센터를 개설하고 장기이식수술 및 이와 관련된 특성화 연구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일반외과(현 외과) 곽진영 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장기이식센터는 심장, 간, 췌장, 폐 등 다장기 이식과 기타 조직 이식을 활성화시키고 이식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

구와 학술활동을 전개해 국내 이식수술을 선도하고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1995년 병원감염관리학회(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자 한양대학교병원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지정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했다. 이후 병원 내 감염 발생률, 병원 감염 유행 조사 및 처리, 직원 교육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2000년 7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면서 진료를 시작했고 2001년 1월, 정식 개소식을 가졌다. 혈액종양내과 이영열 교수와 세계간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박미라 간호사가 주축이 되었다.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개소 당시 100 Class의 1인실 2병상과 1,000 Class의 4인실 1병상, 2인실 2병상 등 총 10병상으로 구성되었다. 개설 이후 골수이식,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등 모든 분야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총망라하며 수백 건의 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수클리닉 및 센터 신설 현황(1993~2001)

개설일시	특수클리닉	담당 교수	비고
1993년 9월	천식 및 알레르기클리닉	윤호주 교수	호흡기내과 내에 개설
	언청이클리닉	엄기일 교수	성형외과 내에 개설
	두개기형클리닉	최희윤 교수	
1994년 1월	족부변형클리닉	박시복 교수	국내 최초 개설
	강직성척추염클리닉		
	통증클리닉		
1994년 6월	장기이식센터	곽진영 교수	
2001년 1월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이영열 교수	
2001년 9월	호흡기센터	박성수 교수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의료진들

센터 중심의 통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1년 9월에는 호흡기내과 · 흉부외과 · 진단방사선과 · 치료방사선과 · 조직병리과 · 핵의학과 · 재활의학과 · 통증의학과 등이 중심이 되어 호흡기센터를 개소했다. 초대 소장으로 박성수 교수가 임명되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진료 영역의 확장

한양대학교병원만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연구와 진료 영역의 확장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성과로, 1993년 4월에는 소화기내과 함준수 교수가 담석의 병인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의학상인 '유한의학상'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에는 산부인과 자체 예산으로 임신 중독증 환자실을 개 · 보수하여 산부인과 내에 체외수정연구실을 설치했다. 체외수정연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병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체외수정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에는 신경과 김명호 교수가 발표한 논문 〈Schirmer's Test in Parkinson's Disease〉가 파킨슨병과 관련된 임상 체계를 수립하고 파킨슨병에 동반하는 자율신경 장애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MSD제약이 후원하는 'MSD 학술상'을 수상했다.

1997년에는 3개 진료과가 추가로 신설됐다. 우선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3월, 응급의학과를 개설하고 일반외과(현 외과) 정파종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 핵의학과를 개설하고 조석신 교수를 초대 과장에 임명했다. 다음 달인 4월에는 산업의학과(현 직업환경의학과)를 개설하고, 송재철 교수를 과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한양대학교병원의 진료과는 총 26개가 되었다.

또한 1997년 5월, 가정간호사실을 개설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로 장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병원 중심의 가

진료과 신설 현황(1997)

개설일시	진료과	초대 과장
1997년 3월	응급의학과	정파종 교수
1997년 3월	핵의학과	조석신 교수
1997년 4월	산업의학과(현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교수

정간호사업이 실시된 데 따른 것이었다.

1997년 11월에는 진료의뢰센터(현 진료협력센터)를 개설하고 병원간 진료 의뢰, 회송을 활성화해,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확장의 과정들은 훗날 한양대학교병원만의 진료 영역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획기적인 시도, 국내 최초 류마티스병원 개원

1998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류마티스질환 전문 단일병원인 류마티스병원을 개원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서 1985년, 류마티스내과를 독립적으로 개설했다. 그리고 1989년, 류마티스내과를 중심으로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그리고 정형외과가 힘을 합쳐서 류마티스질환 환자의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치료 시스템으로 인한 전문성과 명성이 축적되고, 이는 류마티스병원으로 이어졌다. 당시 류마티스병원의 개원은 국내 주요 병원에서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후 대형병원에서 질환별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표본이 되었다.

이후 류마티스병원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에 만족하지 않고,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치료의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류마티스내과에서도 최초로 세부 질환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루푸스, 근염, 경피증, 강직성척추염, 쇼그렌병, 혈관염 등 질환별로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갖춰 나가게 되었다.

앞서 1993년 11월에 설립되었던 류마티즘연구소는 임상중심의 류마티스병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다. 김성윤 교수가 설립 당시 연구소장을 맡았다.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새로운 의료기술을 향해, 멈추지 않는 도전

1995년 안과에서는 현재까지도 백내장 수술의 표준이 되고 있는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과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백내장 치료를 수행하였다.

1996년에는 신경외과 고용 교수가 세계 최초로 '내시경을 이용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 방법'에 관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뇌종양 수술방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로도 내시경을 이용한 여러 수술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두개저 뇌종양 수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1998년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내 최초로 제대혈이식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혈액암 환자는 물론 재생불량성 빈혈, 선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혈액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에 기증제대혈은행 설립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제대혈 이식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1999년 9월에는 산부인과 박문일 교수 주도 아래 국내 최초로 수중분만을 시도해 성공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수중분만은 유럽 각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처음이었다.

수중분만은 산모가 양수와 같은 온도의 생리식염수를 담은 수조에서 절개나 주사 등 의료적 처치 없이 산모의 진통을 크게 줄인 채 자연분만하는 것이다. 분만 시 엄마의 편안한 정서가 신생아에게로 전달돼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수중분만은 TV를 통해 방영돼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나아가 분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료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도전하면서 한양대학교병원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나라 의료기술 선진화에 기여했다.



국내 최초
류마티스병원 개원



류마티스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최신 의료장비 대거 도입

한양대학교병원은 의료원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를 대거 도입해 진료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1993년에는 컬러 도플러가 가능한 Vigmed사의 초음파기기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도플러 스펙트럼 및 컬러 도플러 등의 프로브(Probe)와 소프트웨어가 보강된 초음파기기(SONOS 2500, Hewlett-Packard)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에는 다시 디지털 저장, 조직 도플러 및 운동 및 약물 부하검사가 가능한 심초음파기(Se Quoiac 256, Acu- son)를 도입하여, 연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했다. 2010년엔 3D 검사가 가능한 심장초음파기를 도입했다.

1994년 1월에는 비뇨기과에 요역동학 검사기를 도입했다. 요역동학 검사기는 배뇨 기능의 이상이 소변의 저장기에서 발생하는지 배출기에서 발생하는지 검사해 장애의 원인을 판별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진료를 크게 개선했다. 1995년 1월에는 소화기 검사실에 초음파 내시경을 도입해 특수내시경을 통한 감별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핵의학과에 피사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촬영할 수 있는, Vertical Angle 기능을 갖춘 이중 헤드 SPECT 첨단 감마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로써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의 기능적 영상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 지멘스에서 심장 전문 CINE 촬영기(HICOR INTEGRATED SYSTEM 2)를 도입했다. 이후 본관 3층에 독립된 심혈관 촬영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좌심실 조영술, 대동맥 조영술 및 기타 심장 조영술과 선천성 심장질환의 심도자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코일 등을 이용한 폐동맥관개존 폐쇄술, 승모판 협착증의 풍선성형술, 말초혈관 조영 및 성형술도 시행했다. 2001년 5월에는 서관 4층으로 이전하면서 CINE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도록 했다. 1995년 9월에는 비뇨기과에서 독일 제네메드사의 Genenstone1 90 기종의 체외충격파쇄석기를 도입해 외부 충격파로 체내 결석을 분쇄하는 요로결석 치료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뇌파실에 23 channel의 뇌파기를 도입해, 신경과 · 신경외과 · 신경정신과 · 내과 영역에서 뇌질환, 경련성질환, 대사성질환의 진단 및 예후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원 초기 류마티스병원

INTERVIEW

2

의술을 완성하는 인술, 그리고 사랑

- 정파종 前 한양대학교병원 교수·정파종외과 원장 -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50여 년 간 숱한 명의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내분비 분야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던 시절, 일찍이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양대학교병원에 내분비외과를 설립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준 이가 있다. 대한민국 유방·내분비외과의 대가 정파종 원장을 만나보았다.

한양대학교병원의 50주년을 바라보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예과에 입학했을 즈음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벌써 50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한양대학교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동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T와 MRI 기계를 들여온 병원이었죠. 전국의 내로라하는 인재들은 모두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교수님들 아래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외과의 입지를 다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예과 2기로 입학하여 수련 과정까지 마치고 1985년 한양대학교병원 조교수로 본격적인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과를 선택한 저는 호르몬 분비기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발견,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망을 품고 1987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Texas 대학교 의대 교환교수와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구강사로 2년간 활동하며 유방 · 내분비외과에 대한 최신 지견을 익혔지요. 1989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유방 · 내분비외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넘쳐나는 수요에 각 병원마다 별도의 치료 센터가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두 곳의 대학병원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진료과였습니다. 외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환자를 볼 수도 있었지만, 꾸준히 저에게 환자를 맡겨주신 덕분에 내분비외과의 입지를 빠르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재직 중 한국형 유방보존술을 도입하셨습니다.

의사로서 진정한 보람은 제가 수술한 환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집니다. 물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유방암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가슴에는 짙은 흉터가 남습니다. 남들은 볼 일이 없지만, 어그러져버린 자신의 몸을 보는 환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살아남은 사람'에서 만족하지 않고 '행복한 여자'의 삶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의 안희창 교수와 협진, 한국인에게 맞는 유방보존술식 및 재건술을 개발 · 도입했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환자가 요청하기 전에 어떤 마음일지, 어떤 것이 필요할지 먼저 헤아리고 제안해주는 거죠.

"한국인에게 맞는 유방보존술식 및 재건술 등 실험적인 술기를 도입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한양대학교병원의 신뢰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이 개발 · 도입한 술기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존에는 유방암수술을 먼저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지연재건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유방암수술과 재건수술을 한 번에 하는 '즉시재건술'을 시도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 신체를 최소한으로 침습해 악성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감시림프절절제술', 투석 환자에게 잘 발생하는 '부갑상선 증식증에 의한 기능항진증의 수술' 또한 국내 도입 초창기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시도하며 보편화시킨 술기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셨습니다.

1998년, 한양대학교병원에도 응급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과대학에 응급의학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시 외과 교수였던 제가 초대 주임교수를 맡게 되어 초창기 체계를 세우고 의료진들을 섭외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로 지역민과 인근 협력병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응급의학과교실이 눈부시게 발전해 한양대학교병원의 자랑이 된 것을 보면 후배들에 대한 감사와 보람이 밀려옵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한양대학교병원에 한 말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장비, 평판 등 좋은 병원을 이루는 요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람'이 중심 되어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교내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뿐 아니라 전국의 2만여 명의 한양 의료인들이 합심하여 병원의 명성을 드높일 때입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다면 앞으로 병원의 미래 또한 밝을 것입니다.

3.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전자시스템



최신 디지털 장비 도입

__ 전자처방전달시스템, OCS 도입

한양대학교병원은 일찍부터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병원 환경에 맞게 구축해왔다. 전자시스템은 1984년, 의료정보과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의사의 처방을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9년 11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자,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고 간호사가 이를 직접 환자에게 알려주는 아날로그형 의료 전달체계는 폐지됐다. 진료 예약 등도 자동화돼 환자 편의는 더욱 증대되었고, 병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경영혁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

2001년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5월부터 가동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사가 컴퓨터에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환자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게 되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찾아 진료실에 전달하고 다시 처방전을 받는 과정을 없애 환자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별도로 진료기록실을 둘 필요도 없어졌다.

광파일시스템, OFS 도입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시스템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광파일시스템(Optical File System, OFS)도 도입했다. OFS는 광디스크에 문서를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작은 원반 한 장에 A4 크기의 문서를 10만 매 이상 저장할 수 있다. 2001년 9월, 의무기록과에 OFS를 도입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던 의무기록을 광파일로 전환했다. 또한 이들 파일을 컴퓨터에 연결해 이미지로만 구성된 초기 단계의 영상 EMR을 구축했다.



일찍부터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며
병원 환경 구축

4.
환자를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환자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진료

__ 친절 3S 운동 실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자,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 3월, 친절 3S(Smile, Stand-up, Say+1) 운동을 실시했다. 친절 3S 운동은 환자가 내원했을 때 상냥하고 공손하게 응대하며(Smile), 항상 일어서서 맞이하고(Stand-up), 긍정적이며 친절한 말을 한 마디라도 더(Say+1)함으로써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자는 운동이다. 또한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3S 운동을 체득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해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친절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제2의학관

Chapter 3.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2



국제화된
의료서비스 구축

더 큰
세상을 품다

2002~2010

3



최첨단
의료시스템 도입

4



특성화 병원 체제
가속화

5



지속적인 정비 및
업그레이드

한양다움으로 국제화에 앞장서다

바야흐로 한양대학교병원의 청춘기.
한양다움으로 무장한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된다.
성실한 시간이 축적한 성장동력으로
특성화 병원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로봇수술을 선도해
첨단 의료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긴다.
그리고 국제병원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
이것이 시대와 세계를 연결하고
경계 없이 소통하고 시도하며
누구보다 먼저 더 큰 세상을 품에 안는
한양대학교병원만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다.

도약 소통

Jump & Communication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2007년 한양대학교병원 야경

도약 21C 프로젝트

2000년 1월, 새천년을 맞이하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기존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화되고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0년 12월, '고객 만족과 경영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실현하여 21세기 초일류 대학병원으로 거듭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약 21C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관련해 2003년 1월, 백남호텔(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추진설명회를 개최했고 2003년 2월, 세계 최고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베어링 포인트에 의뢰했던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한양대학교의료원 기획위원회는 2003년 3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해 환자 서비스 개선, 시설 투자, 의료진의 사기 진작, 직원 만족, I-hospital 기반 구축, 수익 증대, 행정 업무 개선 등 〈도약 21C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구체적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는 이후 한양대학교병원의 운영 방향에 전반적인 토대가 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 책임경영제 시행

2008년 1월 7일에는 한양대학교 및 한양대학교병원의 설립자 김연준 이사장이 타계했다. 교육 · 예술 · 의료 · 종교 각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연준 이사장의 영결식은 1천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엄수되었다.

이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설립자의 철학과 정신을 기리며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체재 개편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 3월,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한양대학교병원 ·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독립적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원활한 책임경영제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도입했다. 2008~2009년을 도입 초기 시행기로 설정하고 1차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후 경영과 진료실적을 모두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한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초기 시행기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보완한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급제를 운영한다.

2009년 9월에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부서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물류지원과(의료원 검수과 · 한양대학교병원 관리과 · 보급과를 통합)가 개설되고 사무부에서 관리부 편제로 전환되었다. 이어 12월에는 의료원 경영 CEO 역할을 담당했던 '의료원장'이 의과대학 인사권과 본교 경영에도 참여해 '의무부총장'을 겸하는 체제가 시행됐다. 초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는 최일용 교수가 취임했다.


한양대학병원

JUMP! HY 3020

2010년 5월 3일, 한양대학교의료원은 2010년 의료원 독립경영 실현의 첫 해로 'JUMP! HY 3020'을 개원기념일에 맞춰 선포했다. JUMP는 J(재도약의 첫해), U(우리), M(모두), P(파워2010)의 의미를 담고 있다. HY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의미한다. 3020은 한양대학교병원의 목표인 외래 환자 일평균 3,000명과 신규 환자 200명, 그리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목표인 외래 환자 일평균 2,000명과 신규 환자 200명에서 따온 명칭이었다.

2010년 8월에는 의무부총장 공모제를 통해 제2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박성수 교수가 취임했다. 이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경영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진료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활동을 전개했다.



JUMP! HY 3020 선언 및
개원 38주년 기념행사

2.
국제화된 의료서비스 구축



개원 당시 국제협력병원

또 한 번 시대를 앞선 시도! 국제병원 개원

한양대학교병원은 2002년 12월, 미8군 121 의무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정 진료 협력병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의무사령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이어 2003년 7월, 진료실과 대기실 등 전용 시설과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09년 7월,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제병원 개원은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상당히 앞선 결정이었다. 다른 국내 병원들도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진료센터 규모에 불과했다. 최근까지도 상급종합병원 중 센터가 아닌 단일병원 형태로 외국인 진료를 수행하는 곳은 국제병원이 유일하다.

초창기 국제병원은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을 주로 진료했다. 이후 국제병원의 환자 맞춤형 진료시스템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국제병원을 찾았다. 덕분에 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9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일본, 대만 등과 유비쿼터스 원격진료 및 화상회의

한양대학교병원은 2002년 8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래 네트워크 선도시험망(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KOREN)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검토했다. 이후 2003년 2월, 일본 규슈대학과 IT 주간 이벤트로 내시경 관련 원격화상회의(Endoscopy Conference in IT Week Event)를 진행했다. 2004년 9월에는 한 · 일 소장 내시경 원격회의(Korea-Japan Teleconference on small bowel endoscopy) 및 국내 대학병원과의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시경 컨퍼런스 활동을 전개했다.

학술 교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2004년 11월, 일본 규슈대학과 한양대 의과대학 간에 고화질 화상 구축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대학, 일본 규슈대학과 30회 APAN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2월에는 차세대지능형수술시스템개발센터와 일본 규슈대학과의 공동 원격 로봇수술을 아시아 최초로 성공해 화제가 되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 수술은 돼지의 담낭을 절제하는 것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의 네트워크 기술과 일본 규슈대학의 로봇 기술이 결합해 거둔 쾌거였다. 그 기세를 몰아 2008년 4월에는 원격진료용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8월에는 수술 영상방송장비,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원격진료 시대를 열었다. 이후 이 시스템 운영은 본궤도에 올라 2009년, 8회에 걸쳐 원격진료와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2010년에는 일본 규슈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7월과 9월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의 의료진이 참가한 화상 진료를 진행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의 유비쿼터스 원격진료가 국제 수준에 진입했음을 입증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일본(규슈대병원 · 교토 레드크로스병원), 대만(타이완국립대), 베트남(하노이대)과 중국은 물론 태국(마히돌국립병원), 말레이시아(NOC), 독일(함부르크 에펜도르프대학)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교류하고 있다.



2009년 러시아 의료관광 방문





(위, 아래) 2007년 7개국이 참여한 원격진료

3.
최첨단 의료시스템 도입



로봇수술센터 이춘용 초대 센터장과 의료진

__ 로봇수술 시도 과정

1990년대 들어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봇수술이 본격화되었다. 로봇의 손은 굵기가 5~10mm에 불과해 의사의 손이 닿기 힘들고 해부학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수술하기에 적합하다. 인체에 5~6개의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비추는 영상을 보며 의사가 조종간을 조작하면 로봇 손이 수술하는 방식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은 2008년 5월 열린 제3차 의료원 운영위원회에서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을 정식으로 논의했고 같은 해 7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도입 초기에는 로봇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로봇수술에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 등이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연수와 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미래지향적 전략사업이라는 점에서 로봇수술 도입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도입한 로봇수술 장비는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사가 개발한 다빈치 S(da Vinci S System)였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이후 세계 각국의 선진 의료원들이 도입한 기종으로 당시 국내에서 도입한 로봇수술 장비 100%가 다빈치 S였다.

다빈치 S는 의사가 로봇을 제어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콘솔(Surgeon Console)과 환자가 수술을 받

는 환자 카트(patient cart), 고화질 3D 영상과 10배 확대된 시야, 그리고 정교한 수술을 제공하는 비전 카트로 구성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다빈치 S에 이어 보조장비인 의료용 이산화탄소 주입기(CO_2 Insufflator)와 관개 펌프(Irrigation Pump)도 도입했다. 장비 도입을 앞두고 4명의 의사와 3명의 간호사를 미국에 보내 현지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로봇수술센터 개소, 국내 로봇수술 선도

2008년 10월에는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고 이춘용 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로봇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뉴저지주립대 비뇨기과 아이작 킴(Isacc Kim) 주임교수를 초청해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연했다. 당시만 해도 몇몇 병원에서 한두 대씩 다빈치 로봇을 들여오던 시기였기에, 로봇수술에 대한 국내 인식은 '낯설다'는 평이 컸다. 이후 한양대학교병원은 로봇수술을 정착시키면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으로 시행했던 많은 수술을 로봇수술로 대체했다. 초창기에는 전립선암 수술에 로봇수술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후 외과의 담낭암과 대장암, 산부인과의 난소암과 자궁암 등 복강의 다양한 질환 수술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양대학교병원 로봇수술의 특이점 중 하나는 이비인후과 수술 사례가 여타 병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로봇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태경 교수는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등 이비인후과 수술에 로봇을 활용했다. 로봇수술센터는 개소 이후 2011년까지 약 3년 동안 총 387건의 수술 실적을 보였는데, 이 실적은 같은 기간 로봇수술 시설을 설치한 국내 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16년에는 '다빈치 Si'를 도입하며 수술 로봇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개소 10년을 맞이한 2018년에는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지금도 해마다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선진적 로봇수술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세계 각국 의료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로봇수술센터 개소식



다빈치 Si 로봇수술 현장



STORY

1

수술은 예술,
최상의 걸작품을 향해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암센터장

한양대학교병원의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껏 걸어온 나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하고 7년 후인 1979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이비인후과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이후 공군 군의관 3년 복무와 제대 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2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약 40년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로서 성장해왔다.

지난 시간동안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갑상선암, 구강암, 후두암, 편도암, 인두암, 타액선암, 비부비동암 등을 포함하는 갑상선 · 두경부암 환자 진료에 헌신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5,000명 이상의 갑상선 · 두경부암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였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덧 한양대학교병원의 두경부외과 의사로서 성장하여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나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성장하고 최선을 다해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2008년 한양대학교병원에 다빈치 수술로봇이 도입되면서 갑상선 · 두경부암 분야에 새로운 로봇수술법을 도입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수술법의 효과에 대한 많은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갑상선암 수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로봇수술법으로 세계 석학들과 교류하다 보니 갑상선 로봇수술에 관해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또한 나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 두경부외과의 수준과 실력이 이만큼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

불과 15~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의료계는 세계 선진 의료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술 방법을 해외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인도,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의사들과 국내 병원의 의사들이 갑상선 · 두경부암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에 견학이나 연수를 오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일원으로서, 우리 병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동시에 두경부외과 의사로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한양대학교병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의사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진료와 수술에 임하고 있다.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술을 마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한밤중이라도 병원으로 달려오는 성실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 의학에 의한 표준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치료방법의 효과, 삶의 질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모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최선의 수술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리고 진료방침의 결정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설명과 토론 후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다.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까지도 고려한다.

그리고 수술은 단순한 업무나 노동이 아닌 혼을 불어넣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최상의 걸작품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수술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 임상을 통해 나온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표준 진료를 확립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학에 대한 도전이자 창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인연 맺은 환자들과 한양대학교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0년간 나를 포함한 수많은 선후배 의사들의 헌신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와 우리 병원을 위해 헌신하리라 다짐한다. 다가올 50년은 새로운 도약의 뜨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내딛는 그 발걸음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4.
특성화 병원 체제 가속화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__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개소

병원 특성화 사업은 병원이 보유한 비교우위의 역량을 집중 육성해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 유명 의료시설 대부분이 독자적인 특화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를 개설한 것 역시 병원 고유의 특성화 분야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3년, 한양대학교 산하 조직으로 개설됐고 2008년부터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세포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병원 특성화 사업 대상 지원 센터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5년간 약 5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세포치료센터는 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경계질환 중 현재까지 추가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자연 경과를 지연시키고, 신경의 자연적인 재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줄기세포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세포치료센터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특히 루게릭병 세포치료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임상 결과를 획득하며

특성화 병원으로서 한양대학교병원의 브랜드 가치에 방점을 찍게 된다.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개소

앞서 1998년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병원이 개원하면서, 류마티스 진료 분야는 한양대학교병원이 가장 비교우위의 강점을 지닌 분야로 입지를 다졌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9년 4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CRCRA,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Rheumatoid Arthritis)가 정식 개소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임상연구센터로, 6년 5개월간 약 4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유병 상태와 임상 양상을 파악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진료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류마티스병원 배상철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고 전국을 아우르는 34개 대학병원에서 주요 류마티스관절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개소 이후 연구센터의 교수진은 2010년 한해에만 국내 전문지에 20편, 세계적 학술지에 4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류마티스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또한 류마티스병원은 기존의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을 류마티스관절염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전 세계 관련 연구진 및 의료진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와 전국 대학병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는 류마티스분야 임상연구의 세계적 핵심 기관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9년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개소식

여성·아동 특화 진료 실시

2008년 6월에는 임신, 출산, 불임, 부인과 종양 등 각종 여성질환에 맞춤 상담, 검진, 그리고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종합진료센터를 개소했다.

2008년 7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육아지도실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2010년 9월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이른둥이 및 고위험 신생아들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를 시행했다.

더불어 소아청소년과는 소아혈액종양학,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 소아소화기학, 소아영양학, 소아심장학, 소아신경학, 소아내분비학 및 소아유전대사학, 신생아중환자의학 등 세부 전공 분야를 활성화해 어린 환자들이 안전하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갔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주변 소아청소년과 및 산과 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국내 최초 펜던트 시스템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은 2010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내에 있던 신생아실을 분리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펜던트 시스템'을 구축, 고위험 미숙아·신생아 치료 및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국내 최고 치료 성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영양사·약사와 함께 영양팀을 구성해 초극소미숙아들에게 알맞은 영양공급을 제공했다. 신생아 분야 전담 분과전문의를 충원하고 국내 최고 1등급 간호등급에 맞게 인력을 보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등급 체제를 유지하며 최상의 간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소아청소년과 진료 모습



2010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한 신생아중환자실

암센터 및 지역약물감시센터 개소

암센터는 2008년,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개소했다. 본래 1991년부터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이항 초대 센터장을 필두로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본관 이전을 기점으로 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 암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암 전문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암센터는 이후 2010년대를 넘어가며 암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한편 2011년 1월에는 지역약물감시센터(현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식약처의 지역약물감시 활성화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호흡기내과(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윤호주 교수가 부임했다. 센터 개소 후 한해 동안 원외에서 492건, 원내에서 2,972건 등 총 3,464건에 이르는 보고가 이어져 센터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센터는 병원 내뿐 아니라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과 구리 등 경기 동부 지역의 약물감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과 2020년, 약물감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암센터 개소식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한양대학교병원은 2010년,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응급 중환자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을 요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등에 대한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질환별로 전담 의료진을 상시 배치했다. 또한 구급차량과 응급의료센터간, 응급실과 원내 전문 의료진간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빠른 의료 처치를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검진 시설 이용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소방과 재난 관련 관공서, 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각종 재난 및 긴급 사고,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2010년 7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에 선정되었다.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법정 지정 기준 등 필수 항목과 구조, 과정, 공공영역 지표 같은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특히 응급기도관리, 관련된 장비와 시설 및 연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양대학교병원은 동북부 응급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갔다.



응급의료센터 전경

STORY

2

난치성 희귀질환을 연구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



김승현 신경과 교수·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장

의료진들의 삶은 매일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한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일하는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럴 것이다. 우리, 사랑의 실천자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알 수 없는 내일'을 '희망과 기쁨에 찬 오늘'로 만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리고 드디어 개원 50주년을 맞이했다.

의사의 길을 걸어오며 이제 환갑을 넘기고 나니, 가치 있는 삶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본다. 종종 실습 나온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꼭 하는 질문이 있다.

"왜 하필이면 희귀질환이고 치료제도 없는 질환인 루게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셨나요?"

"뇌졸중이나 뇌전증, 두통, 치매도 있는데 왜 루게릭에 관심을 갖고 굳이 힘든 연구를 해오셨나요?"

그러면 나는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묻는다. "현재 신경과에 입원 중인 환자 중 루게릭 환자가 몇 명 정도지요?"

이내 70~80명의 신경과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희귀질환이라고 해도 전문 클리닉이 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환자들도 찾아오기에 결코 희귀질환이 아닙니다. 더불어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임상시험을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할 수 있으니 희귀질환인 동시에 흔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내외를 통틀어 루게릭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갖춘 최고의 병원이다.

루게릭병을 포함한 난치성 희귀질환을 연구하는 나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감사하다. 하지만 종종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큰 에너지원이 있다. 바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다. 24시간 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고, 위루술을 통해서만 영양공급이 가능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의사로서의 한계와 무기력함에 직면할 때도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세심하게 진료하게 되는 힘을 얻는다.

타인들에게서,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가 동료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고유의 자료를 구축하고, 최초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누적되면, 어느새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행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고유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약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의료진과 연구진이 한 팀이 되어서 노력하다 보면 단기간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도약의 100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젊은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 말하고 싶다. 그리고 동일한 분야에 여러 명이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후배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에게 더 엄격할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 이는 스스로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광야에 홀로 우뚝 선 한 그루 나무가 되기 보다는, 땅속에서 촘촘히 얽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새로움을 연계하고 전달하고 함께 발전하는 리좀(rhizome)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초원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내가 몸 담고 있는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가, 앞으로도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에 나는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다.



5.
지속적인 정비 및 업그레이드



심혈관촬영실 · 하이드리드수술실

PACS, PET-CT 등 최신 장비 도입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 최신 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과 정비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선 2003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구축해 가동했다. PACS는 기존의 필름을 가지고 진단하고 판독하던 영상진단업무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상의학과 의료 영상 장비들인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 투시촬영장치 · 혈관조영장치 · 유방검진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당 진료과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핵의학과는 2004년, 당시 최신 기종의 PET-CT Scanner인 독일 지멘스(Siemens)사의 Biograph 6를 도입했다. PET-CT는 암의 영상 진단 방법 중 가장 초기에, 가장 정확하게 암을 찾아내는 최첨단 의료장비이다. CT, MRI, 초음파 촬영 등은 인체의 해부학적 이상을 찾아 질환을 진단하지만, PET-CT는 신진대사의 이상을 찾아내어 진단하며 전신을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ET-CT는 암을 조기에 진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 다른 암의 발견, 악성과 양성 종양의 감별, 암의 병기 결정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수술 방지, 재발암 발견, 암 치료 경과 관찰과 예후 예측에 도

움을 준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부작용도 없다. PET-CT 도입은 암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06년부터 보험수가 적용을 받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핵의학과는 2008년에 외래를 개설해 갑상선암 방사선 동위원소 옥소치료 전용병실을 가동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5년에 중단되었던 방사면역검사를 재가동해 핵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기틀을 갖추었다.

2007년 영상의학과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인 64채널 멀티슬라이스 CT(64-slice CT)를 도입했다. 네덜란드 필립스사 제품으로 초당 최대 160개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검사 도중 환자의 호흡이나 움직임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해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혈관을 비롯해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정밀진단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한양대학교병원은 심장혈관 검사의 경우, 입원이나 다른 준비 없이 4시간의 금식만으로 빠르고 정밀하게 관상동맥 이상 유무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장혈관 석회화와 혈관의 좁아진 정도, 심장근육의 이상 정도 등 심장질환의 진단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응급을 요하는 환자를 더욱 빠르게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안과용 디지털 레이저 검안경(Ophthalmoscope Digital Scanning Laser F-10)을 도입하여, 안과 영상 분야 연구의 최고 수준을 이루어 망막 및 녹내장 등의 진료에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PET-CT 도입

고객지원과 개설, 고객중심의 의료환경 조성

2006년 6월에는 고객지원과를 개설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고객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해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고객지원과에서는 진료협력센터, 고객상담센터, 서비스아카데미(HYSA), 전화예약센터, 검사통합예약센터 등 5개의 센터를 운영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협력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지원을 위해 협력병원제도를 운영했다.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고객에게 의료 전달 체계(회신 및 전원)를 충실히 수행하고, 동문 및 지역 병원들을 위한 외래교수 위촉 업무를 병행했다.

고객상담센터는 고객 불편사항을 방문, 전화, 고객의 소리함,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해 개선해 나갔다. 청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 센터를 구축했으며 병원 남측 비상계단 개선,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인터넷 부스 및 팩스 사용을 돕기 위한 오피스 센터 설치 등을 진행했다.

서비스아카데미(HYSA)는 친절한 병원 문화 정착을 위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교육, 부서별 맞춤 CS교육, 신입 직원 대상 CS교육, 협력업체 직원 CS교육, 의료기관평가 관련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및 코칭 등을 실시했다.

전화예약센터와 검사통합예약센터는 진료 및 검사 예약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IVR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콜백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입원 환자에게는 대기시간 동안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통합예약센터는 이후 2018년 7월 1일자로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지원팀에서 원무팀으로 조직개편하고 검사통합예약 인원 및 업무를 변경했다.

고객지원과 개설 후 한양대학교병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해나가며 고객중심 병원으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서비스아카데미(HYSA) 개소식 및 서비스 교육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협력지정병원
2007. 7. 16 한양대학교병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협력병원 개소
2007. 8. 1 한양대학교병원

INTERVIEW

3

한양의 전통과 가치, 그것이 미래다

- 이춘용 17대 병원장 -

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에게 왕왕 '뼛속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누구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또 누구는 뼛속까지 축구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춘용 17대 병원장이 그런 사람이다. 비뇨기암 복강경 수술의 국내 도입을 주도했으며, 이후에도 선도적인 치료법을 개발, 숱한 국내 최초 기록을 세우며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 한양대학교병원 퇴직 후에는 인천 나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영원한 현역, 뼛속까지 의료인이다.

병원장님은 뼛속까지 한양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물론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삶의 대부분을 의료인으로 종사했지만, 저 말고도 그런 동문이며 동료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다만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하며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눈부신 성장을 거둔 저력은 한양대학교병원을 설립한 김연준 박사님의 혜안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의술에 앞서 인술을 강조해온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도 '한양의 전통과 가치'였지요?

과거를 잊는 자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원 50주년 학술대회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 현재 · 미래를 주제로 한양대학교병원이 걸어온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발판 삼아 향후 도약의 100년을 조망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 발표했는데, 바로 온고지신(溫故知新)에서 착안한 주제였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과거 전통과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를 살펴본 것이었죠.

병원장님은 유독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의료인이십니다.

아마 1990년대 비뇨기암 복강경 수술의 국내 도입을 주도했고 2000년에는 복강경을 이용해 신장암 환자의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도입했으며 국내 최초로 최소 절개를 통한 전립선암 전적출술을 성공시켜서 붙은 수식어일 겁니다. 또한 2002년 이승욱 교수와 함께 국내 최초로 신장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 결과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2007년 박성열 교수와 팀을 이뤄 복강경 보조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게만 붙을 수식어는 아닙니다. 동료 의료진과 비뇨기암센터, 나아가 사랑의 실천을 모토로 인술을 펼쳐온 한양대학교병원에 붙어야 적합한 수식어입니다.

로봇수술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셨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후배 및 동료 의료진의 도움으로 2008년 10월 14일 문을 연 로봇수술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았죠. 센터는 당시 최고 수준의 차세대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를 도입했는데, 미국 Intutive사가 개발한 장비로 4개의 팔을 가졌고 육안보다 10~15배 확대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수술 시야를 관찰할 수 있는 첨단 로봇이었습니다.

병원장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류마티스나 줄기세포 등 관련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료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바이오산업이나 첨단 치료 분야와 접목시켜 옛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어 주요 특성화 분야인 미용 재건 수술, 척추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병원이 동남권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되었는데, 저의 병원장 임기에 이룬 성과는 아니지만 한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저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양대학교병원은 설립한 김연준 박사님의 혜안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의술에 앞서 인술을 강조해온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미션을 화두로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50년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100년을 향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모두가 뼛속까지 한양인이 되어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가 곧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양
국 제 협 력 병


대 학 병 원
종 합 검 진 센 터
종합검진센터

Chapter 4.

1



미션과
비전의 재정립

2



차세대
진료시스템 전개

3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역량집중

더 높이
비상하다

2011~2022

4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실현

5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행복으로

6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

최첨단 미래의학으로 가는 교차로에서

반세기를 거쳐 한양대학교병원은
완연한 원숙기에 접어든다.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시대를 앞서 불모지를 개척해온 길에
어느덧 풍성한 숲이 우거지고
세계가 주시하는 과실이 맺혀간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한다는 것.
지금 한양대학교병원이 있는 곳은
최첨단 미래의학으로 가는 교차로.
쉼표는 없다.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도전
변화

Challenge & Change

1.
미션과 비전의 재정립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미션과 비전 선포

2012년, 미션과 비전 정식 선포

한양대학교병원의 미션(Mission), 즉 사명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이다. 이 '사명'은 한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인 '사랑의 실천(근면 · 정직 · 겸손 · 봉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랑의 실천 정신은, 교육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는 '인재육성'으로, 의료기관인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고통 없는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구현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미션은 2008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2011년 1월 15일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1월 20일 그룹웨어와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2012년 5월 3일 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정식 선포되었다.

그 이전까지 한양대학교병원은, 김연준 이사장의 한양대학교 설립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이어받아 '생명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학교육, 연구, 진료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을 배출'하는 데 정신적 지향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보다 한양대학교병원에 적합한 미션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병원의 존재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미션을 설정하게 되었다.

미션과 함께 '비전' 역시 공표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비전은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대학병원'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고객과 가족애로 하나되는 환자중심병원'으로, 미션을 실현할 중장기적인 추진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__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은 병원이 보유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병원 경쟁력을 높여 1차로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우위의 차별화된 대학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 시스템, 유비쿼터스 및 화상회의 시스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류마티스병원 등의 활성화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병원과 연구기관 외에 세계 유수 의료기관, 대학병원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는 단계적 목표이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발전전략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__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은 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 사업화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말한다. 따라서 진료중심인 일반 병원과 달리 병원 인력의 상당수가 연구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비교우위의 차별적 제품과 연구 결과가 없는 기업은 경영이 어렵듯이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차별화된 진료와 연구 경쟁력이 없다면 환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나날이 뜨거워지는 대형 종합병원간의 경쟁, 해외 선진 의료시설의 국내 진입 등 의료 세계



사랑의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료활동


한양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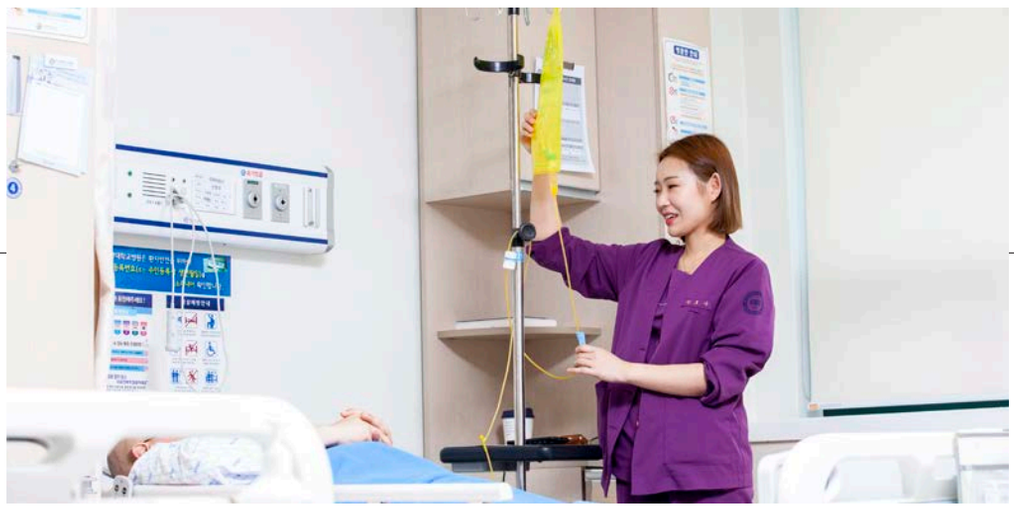
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차별적 의료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은 병원 발전의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전략 분야에 대한 인재 영입과 육성, 전문 연구소 운영의 확대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 병원과의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 협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의료 영역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과 가족애로 하나되는 환자중심병원

환자중심병원은 단순히 의료 소비 고객으로서 환자를 중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병원의 존립은 환자의 지지와 이해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공동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설비 면에서는 지금까지 임상 편의성을 우선하여 조성된 진료중심의 병원 공간과 환경을 환자 편의성을 우선하여 개편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료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빠른 검사와 관련 과목 간의 협진 치료가 짧은 시간 내에 가능케 하고 있다. 간단한 진료를 위해 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도입



시설과 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

2.
차세대 진료시스템 전개



암센터 다학제협진 진료

암센터 강화 및 다학제협진 진료 실시

한양대학교병원은 그간 암 진료에 있어 상급종합병원로서는 그 시설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5월, 병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첨단 진료장비 도입, 우수 의료진 영입 등을 통해 국내 정상급 암 전문 병원으로서 기반 확립을 천명했다. 또한 암센터는 2013년, 두경부 및 갑상선종양 로봇수술 분야의 권위자인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2014년부터 두경부암을 시작으로 다학제협진 진료를 실시했다. 다학제협진 진료란, 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의를 통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진료시스템이다. 진단된 암에 대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진료함으로써,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환자는 한자리에서 모든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암센터에서는 간암센터, 갑상선종양센터, 근골격계종양센터, 뇌/척추종양센터, 대장암센터, 두경부종양센터, 부인종양센터, 비뇨기암센터, 소아암센터, 식도암센터, 위암센터, 유방암센터, 췌장담도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암센터 등 15개의 각 센터별로 다학제협진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다학제협진 진료 1000례를 달성해 암종별 맞춤형 다학제협진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음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암센터는 일반인을 위한 암질환 특강 개최, 암환자 교육, 암환자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환우회 지원 및 각종 외부행사 참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 암센터 심포지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은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장암 7회 연속, 폐암 5회 연속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메디컬아시아 2022, 제13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에서도 암센터 부문을 수상했다.

혁신적 방사선 치료, 노발리스티엑스센터 개소

컴퓨터와 기계공학의 발달은 방사선 치료에도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현존하는 방사선 치료 장비 중 가장 정밀도 · 정확도 ·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발리스티엑스(Novalis Tx)다. 불규칙한 암의 모양에 맞게 방사선 체내 분포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조절해 정확하게 암 조직에만 방사선을 조준, 타격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다.

2014년 한양대학교병원은 노발리스티엑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노발리스티엑스센터를 개소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의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또한 실시간으로 암을 추적해 종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는 암센터 소속의 암 전문 의료진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노발리스티엑스는 암 이외에도 방사선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2000례를 돌파했다.



노발리스티엑스 센터



노발리스티엑스 방사선 치료

심혈관촬영실·하이브리드 수술실 리모델링

2013년 2월에는 본관 7층에 심뇌혈관집중치료실을 개소했다.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가 심뇌혈관집중치료실장을 맡았다. 초고령화 시대의 급성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응급실이나 외래에 내원한 심뇌혈관계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 진료시스템을 운영하며 최상의 의료를 실현해 나갔다.

2014년 12월에는 인공신장센터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인공신장센터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 투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순수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Double RO' 정수시설을 갖추었다. 당시 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물론 일본 의료기관조차 갖추지 못한 최첨단 시설이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위한 격리실과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사조절, 약물 사용 등 상담을 위한 교육 자료실도 마련했다.

2015년 5월에는 본관 5층에서 '심혈관촬영실 · 하이브리드수술실 리모델링 개소식'을 개최했다. 심혈관촬영실 ·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이전 확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수술 시간 단축, 합병증 및 통증 최소화, 회복 기간과 퇴원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응급 혈관질환의 내과적 중재 시술과 외과적 수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복합 진료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CT 촬영과 실시간으로 심장 박동을 감시하는 '텔레메트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진과 방사선 전문 기사도 늘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정맥 시술도 가능해져 혈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내 최상급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015년
심혈관촬영실·하이브리드수술실
리모델링 개소식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환자중심의 정밀의료

2016년 4월에는 영상의학과에 새로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장치를 도입했다. 2008년 도입했던 Tesla MRI ACHIEVA 3.(Philips) 기종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 MRI 장비였다. 뼈는 물론이고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의 해상도와 대조도가 좋으며, 조영제와 같은 특별한 약물 없이도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최첨단 MRI 장비 도입으로, 진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환자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2018년에는 심장내과 복합 부정맥 시술에 적용되는 최첨단 장비인 '3차원 맵핑 시스템(3D Mapping System)'을 도입했다.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이 도입한 3D 맵핑 시스템은 국내 다른 병원이 도입한 장비와 차별되는 마그네틱 시스템을 적용한 최신형 장비였다.

2019년에는 흉부외과 3D 영상지도를 적용한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 ENB)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의 정밀의료라는 가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2022년 1월, 영상의학과는 유방암 조기 검진에 최적화된 최첨단 의료장비인 자동유방초음파(invenia ABUS 2.0)와 3D 유방단층촬영장비(Digital Breast Tomosynthesis)를 도입했다. 특히 자동유방초음파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초음파 장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치밀유방 환자의 유방암 발견에 적합한 기기였다.

최첨단 의료장비로 재단장한 유방검진센터는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해 2022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고, 조기검진의 최적화와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인공신장센터 리모델링



심혈관촬영실·하이브리드수술실-관상동맥조영술


2022-02-03
12:29:22
FP:HFS
Card A
RAO 18.2
CAU 32.5
223
120
42



혈관조영실-뇌경색증 시술



혈관조영실-뇌동맥류 시술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축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에 선정된 이래 201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되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상 1~6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신축했다. 또한 2017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용 응급수술실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내에는 중증환자 관찰구역 8병상, 음압격리실 2병상, 일반격리실 4병상을 포함한 응급실 내 37병상, 응급중환자실 20병상 및 응급병동 30병상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권역 중심의 응급 중증질환 환자들은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신속 ·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상 증설뿐만 아니라 고압 산소 치료기, 인공 심폐기 등 최첨단 응급장비를 확충하였고, 병상마다 의료용 펜던트를 설치해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타 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졌으며 시설이나 시스템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병실 병상 간격 조정, 내외과 중환자실 리모델링, 음압격리병실 조성 공사 등을 완료하고 헤파필터를 적용한 공조시스템 설치, 주차타워 개보수, 본관 3층 복도 천정 교체 등 진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2017년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본격화

최근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간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면 치료와 간호는 의료진과 병원직원의 책임이지만 보호자 없이는 환자 간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양대학교병원은 2016년 12월 본관 20층을 리모델링하여 52병상의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소하였고 2018년 12월 본관 12층에 81병상을 추가하여 총 13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환자 감시 장치, 환자 이동 보조기구, 전동침대, 낙상 감지 센서, 침대용 목욕실 등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및 외과계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병동지원인력이 간호팀을 구성하여 간호사는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행위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병동지원인력은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보조, 환경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 당 환자수는 1:6,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는 1:30의 상급종합병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며 입원환자의 욕창 및 낙상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투약오류 사고도 감소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환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적 · 질적으로 우수한 입원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6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


LUCAS

의료 질 평가 최상위 등급 달성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의 노력은 최우수 의료기관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는 1등급 내에서도 가 · 나로 등급을 세분했으며 환자 경험을 토대로 한 적정성 평가도 처음으로 적용됐다. 전국 322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질 평가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받았다.

또한 교육 · 수련,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6년 의료 질 평가에서 1-가 등급에 해당하는 98% 이상의 성적을 받은 병원은 소위 BIG 5 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등 전부 7곳에 불과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8회 연속 1등급을 받아 급성기뇌졸중 치료의 최고 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0년 7월 심평원에서 발표한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6위를 기록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2019년에 실시한 것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어 총 154개 병원의 만 19세 이상 입원 환자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간호사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영역의 총 24개 문항을 전화 설문한 결과이다. 특히 '회진시간 알림문자', '항상 메모'등과 같은 고객우선 서비스로 입원 환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국내 최고 수준의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은 상급종합 지정평가, 의료질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입원환자 중 70%가 수술 및 복잡한 협진을 요하는 중증 환자로, 선천성 심장병, 선천 기형, 미숙아 망막증, 선천성 장폐색, 괴상성 장염, 뇌출혈 및 뇌손상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에 신생아중환자실은 소아심장 · 소아흉부외과 · 소아안과 · 소아외과 · 소아정형외과 · 소아재활의학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이뤄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생체중 1.5 kg의 고위험 미숙아 입원비율이 높아 대한신생아학회 수련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코디네이터를 두고 퇴원 후에도 고위험 신생아들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부터는 선도적으로 신생아/미숙아 ECMO(체외막산소공급)를 시작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 복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선정되어 국가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들의 'Total care solution'이라는 체계적 통합치료 목표하에 장기추적발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공 융합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2019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MEB(Med-Engineering-Bio) 글로벌발달센터로 선정되어, 발달연구 관련 산-학-연-병 연구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박현경 신생아중환자실장은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은 한양대학교병원이 2016년 의료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응급실팀과 함께 표창을 받았다. 2019년도에는 신생아 분야 전담 분과전문의를 충원하였고 현재 상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심평원 지정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2022년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INTERVIEW

4

지천명, 하늘의 뜻을 헤아려 더욱 큰 사랑 실천하기를

- 권성준 18대 병원장 -

권성준 18대 병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암 수술의 권위자다. 일본 국립암센터 위암외과에서 연수를 받은 후 1992년 한양대학교병원에 위외과를 개설했고, 위암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달려왔다. 그리고 2019년, 위암 수술 집도 3000례를 돌파했다. 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위암외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권성준 18대 병원장을 만나보았다.

올해가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입니다.

보통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설립 목적으로 인술을 펼쳐온 한양대학교병원이 이제 하늘의 뜻을 헤아려 더욱 큰 사랑을 실천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개원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병원장 재임 시절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관한 사항에는 모든 분야가 관심의 대상이었지요. 다만 취임 당시 관심을 두었던 건 구성원들의 병원에 대한 사랑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안의 여러 부서 가운데 힘든 일을 하면서도 관심과 주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온 부서가 어디인가를 파악하고 그곳을 가장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였습니까?

환자들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켜 드리는 환자 이송부서였습니다. 병원장에 취임한 다음 날 사무국장과 함께 이송원 휴게실을 찾아갔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옷을 걸어 둘 옷걸이조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즉시 공간을 확장시켜 드리라고 지시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의 휴게 공간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방에서 이송원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첨단 의료장비 도입에도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압니다.

외과 과장 시절부터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었는데, 마침내 이루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어 노발리스티엑스(Novalis Tx)라고 하는 최신형 방사선 치료 기계의 도입으로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였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과 과장 시절부터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었는데, 마침내 이루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어 노발리스티엑스(Novalis Tx)라고 하는 최신형 방사선 치료 기계의 도입으로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였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장 임기를 마치기 얼마 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을 때 특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3개월을 거쳐 집중적인 준비를 했는데, 모든 부서가 다들 힘들었지만 특히 간호국과 영선팀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일을 거의 반납하고 복도에 주저앉아 수액 걸이대의 바퀴에 기름 치고 녹슨 부위 닦아내며 지쳐있던 병실 간호사의 땀방울, 수납장 하나부터 의료 폐기물통 하나까지 크기를 일정하게 재정비하고 페인트 칠하며 흘렸던 영선팀 직원분들의 땀방울은 병원장인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보람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받아들던 그 순간의 감동은 참으로 감개무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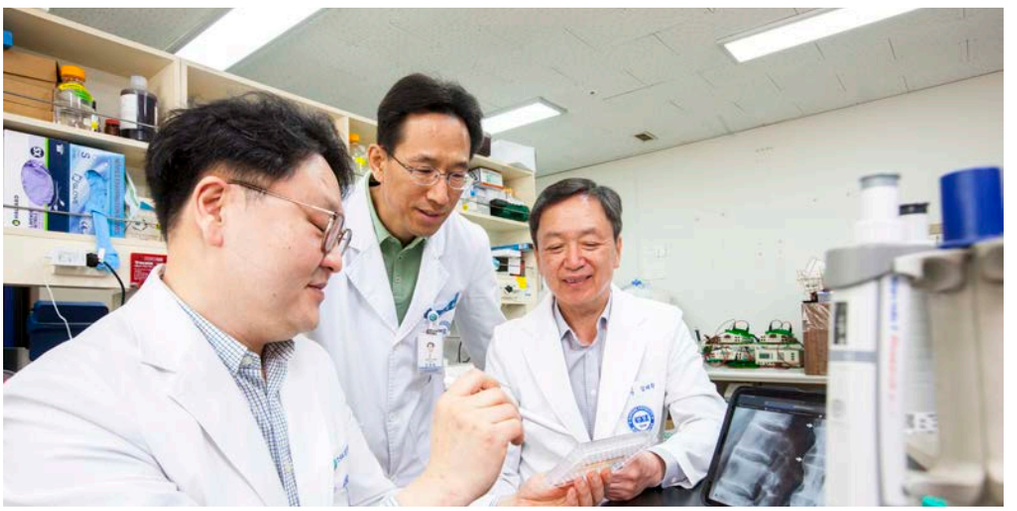
정년퇴임 후인 2020년 12월 양양군보건소장에 부임했습니다.

퇴임을 10여 년 앞둔 시점부터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큰 병원에 가서 몇 년 더 일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40년 이상을 대학병원에서 일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공공 의료기관, 그것도 기왕이면 의사의 손길이 부족한 지역에 가서 의사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양군보건소장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재임 시절 주변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이룬 것도 많았지만 꿈과 기대에 못 미치고 임기를 마쳐야 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정을 모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원장단의 뜻을 믿고 도와주셨던 주변 모든 분께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역량집중



류마티즘연구원

연구중심병원의 선두, 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이행은 류마티스병원이 선두에 있다. 1993년 설립해 류마티스병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던 류마티즘연구소는 2019년 9월, 류마티즘연구원으로 승격했고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초대 연구원장을 맡았다.

'류마티즘 연구의 허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류마티즘연구원은 산하에 자가면역병인연구센터, 임상연구센터, 정밀의학연구센터 등을 두고 기초, 임상, 융합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교육부 지원 이공계 대학 중점 연구소에 선정되어 9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류마티스병원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류마티즘 의료기관과 인적 · 물적 교류와 공동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루푸스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46개를 규명했다. 2021년 1월에는 다차원 오믹스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였고, 30만 명의 대규모 다인종 유전체 정밀 분석을 통해 발병과 연관된 원인 유전자 11개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현재도 류마티스병원은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류마티즘 전문병원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의학연구원, 다각도의 융합 연구에 주력

2017년에는 임상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목표로 의학연구원이 발족했다. 산하에 임상시험센터, 융합의료기기센터, 인체유래물은행, 의료정보연구센터 등을 두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선도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총 52.5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젊은 임상의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시간, 연구비, 연구공간,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의학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AI 치료, 정밀의료, 빅데이터, 모션인식, AI 진단, 3D 프린팅 등을 접목한 창의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진단법, 맞춤형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메디컬 솔루션을 개발하고 창출된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병원-학교-산업체의 다각적인 협력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학연구원은 HYU 교책연구센터 설립으로 병원-학교간 협력체계 시스템 마련, MEB 센터를 통해 산업계와 협력 체계 구축,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공학과 의학의 융합을 위한 디지털 의료 융합학과 개원 등 다각도로 지속가능한 융합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윤리적 연구 기반 형성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13년 4월 25일 최초 등록되었으며, 헬싱키선언(The Declaration of Helsink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임상시험관리 기준(KGCP), ICH-GCP 등의 윤리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연구과정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류마티즘 연구의 허브, 류마티즘연구원

침해되지 않도록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과학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심의면제, 지속심의 및 위반보고, 이상반응 보고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일탈 · 위반 · 미준수 보고에 대한 심의, 내부 점검(Internal Audit) 등은 임상연구보호센터 HRPC(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에서 이루어진다. IRB는 임상연구보호센터 내부점검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양생명과학기술원, 바이오빅데이터 기반 연구

한양대학교는 2021년 12월 28일 감염 · 난치성질환을 극복하고 바이오빅데이터 기반 미래의료기기 · 신약 개발, 정밀의료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양생명과학기술원(HY-IBB)을 개원했다. 한양생명과학기술원은 차세대생명과학융합연구센터, 바이오빅데이터연구센터, 미래의료기기 · 분자진단연구센터, 바이오의약혁신기술센터 등 4개 센터로 구성되었다. 자연과학대학과 의과대학, 공과대학 교수진 80여 명이 모여 바이오 신약 · 백신과 분자진단, 스마트 헬스 ·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제, 혁신 바이오 소재,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를 수행한다.

한양생명과학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생명과학 기초 · 융합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융합 핵심 연구인력과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등 국가 바이오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
한양생명과학기술원 심포지엄



2017년 의학연구원 발족

세포치료센터, 세계 최초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이하 세포치료센터)는 2008년 개소 이후 탄탄한 의료진과 대학의 도움,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 제약업체 코아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를 계속한 결과 2014년 세계 최초로 '뉴로나타-알'으로 불리는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를 만들어냈다.

2015년에는 루게릭병 치료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의료센터로, 난치성질환 전반에 걸친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자가골수유래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루게릭병 세포치료제를 개발, 상용화하였다.

지금도 국내외 많은 루게릭병 환자들이 세포치료센터를 찾고 있으며, 2022년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승인받은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는 루게릭병 외에도 난치성 치매, 저산소성 뇌손상, 소아마비 발달장애, 루프스 등 다양한 세포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난치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 개소식

국제 의료협력 강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을 아우르는 최첨단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은 필수다. 일찍이 국제병원을 개원해 우리나라 의료계에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던 한양대학교병원은, 이후로도 활발하게 국제 의료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한양대학교병원과 몽골국립병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 병원간에 진료 및 교육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및 질 향상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2014년 5월에는, 중국 박애그룹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양대학교병원과 중국 박애그룹 산하의 상해 인애병원간 진료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2016년 9월에는, 러시아 사할린주정부와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과 양 기관의 의료발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2017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2016년 대비 한양대학교병원의 러시아 환자 수가 8.7% 증가했다.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환자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다. 2018년에는 러시아 10여 지역 병원장들, 사할린 보건성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팸투어를 진행해, 한양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최신장비, 병원 경영 방법 등을 소개했다. 2019년에는 몽골 국가암센터 및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의회와도 의료지원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차별화된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통해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2010년 외국인 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201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018년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다양한 수상을 했다.



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

STORY
3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면서



배상철 류마티스병원 교수·류마티즘연구원장·한양생명과학기술원장

한양대학교병원은 류마티스질환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이고 또한 독보적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이 걸어온 류마티스 치료 및 임상연구의 길을 돌아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절로 떠오른다.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병원을 개원하고, 류마티스질환의 불모지를 개척해온 한양대학교병원.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온 나와 동료 의료진들. 우리는 모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

1991년부터 약 4년간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는 낯설고 아무도 모르는 류마티스 임상연구를 막연하게 선택한 후, 향후 내가 해야 할 연구 분야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나에게 가르침을 줄 적절한 멘토가 될 교수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 1995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브리검앤우먼스 병원의 매튜 리앙 교수를 만났다. 그는 내게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의 MPH학위 과정을 권유했다. 정식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박사학위를 막 마무리한 상태라 좀 당황했지만, 1년 반 동안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며 매달린 끝에 합격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2년 동안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일하면서 MPH학위 과정을 수학했다. 그리고 1998년도에 귀국해 한양대학교병원로 돌아왔다. 그후 류마티스병원과 류마티즘연구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코호트 연구 등 임상역학연구, 삶의 질(건강 및 환자 상태 평가 도구의 체계적인 개발 및 한국어화, 저작권 개념), 임상 · 약물 경제학 등을 포함한 국내에 류마티스 임상연구의 개념 도입 및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정밀의학을 위한 연구를 통한 진료, 진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모토로 임상연구과제 지원을 시작하고 2~3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1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프로젝트에 선



정된 것이다. '한국인 관절염 유전체 역학' 관련하여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음과 동시에 '질병부담연구' 관련 연구비도 4년간 지원받게 되었는데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4~5년은 연구 수행에 무척 힘이 들었다.

매년 보고서 낼 때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이겨내니 단단히 고정돼 있는 것만 같았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연구 진행도 점차 가속화되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류마티스 관절염 코호트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류마티스 관련 임상연구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다.

2021년 6월에는 류마티즘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지정이 되었다. 이는 9년간의 매년 7억 이상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배교수들에게 미래 류마티스 연구의 안정된 기반을 위한 주춧돌을 남기게 되어 다행이다.

그동안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추구해온 '정밀의학'은 아쉽게도 아직은 미완성이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불철주야 노력하는 류마티스병원과 류마티즘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있기에 점차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2021년 개원한 한양한양생명과학기술원은 한양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다. 특히 제한된 재원 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나는 우리 한양대학교병원 구성원 모두의 뛰어난 역량과 소명의식을 믿는다. 우리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의술과 연구의 승부사들이므로. 우리의 단단함으로 향후 100년이 아니라 200~300년 그 이상, 세계 속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명성을 이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4.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실현



셀비 메디보이스를 도입한 영상의학과

__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내 의료계에 진료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가속되었다. 병원간 진료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축적된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최적의 맞춤형 치료, 치료 결과를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한양대학교병원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에는 진료정보 운영을 통합하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해 2020년 9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anyang Information System EHR, HiSYS EHR)을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1월 3일 오픈식을 거행했다. 삼성 SDS의 통합 의료정보 솔루션 Nexmed EHR을 기반으로 구축한 HiSYS EHR은 환자 안전, 전자동의서,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빅데이터, 외부기관 연동, 영상 EMR 연동, ABC 원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연계한 시스템이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분야에서는 처방 시 200여 개의 안전규칙을 적용했고, 통합 모니터링 뷰 제공으로 환자의 진료이력, 검사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해 환자 통합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정밀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는 진료, 진료지원, 원무, 전자의무기록(EMR), 일반관리 등의 병원정보시스템 전문 솔루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중심병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및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활용기반 마련 지원(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공통 표준 CDW 모델 마련 및 적용, 데이터 보안, 표준화, 정제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기반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활용을 위한 절차 등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 및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연계해 환자에 대한 데이터 특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한양대학교병원은 2016년 9월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엠케어 도입을 통해 환자중심병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엠케어는 긴 대기 시간, 번거로운 이용 절차와 복잡한 실내구조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병원 이용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이었다. 병원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접수, 진료, 수납, 귀가의 4가지 단계에서 세부적인 이용자의 동선과 프로세스를 엠케어가 인지한 후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정보관리부

업계 최초 AI 면접 및 AI 음성인식 솔루션

2018년에는 국내 병원계에서는 최초로 간호사 및 병원 내 정규직 채용에 'AI 면접'을 도입했다. AI 면접은 결시율이 채 10%도 되지 않았고 학력 · 성적 등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가린다는 차원에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어 좋은 평을 받았다. 이후 AI 면접은 2022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타 병원에도 확산되었다.

2021년 8월에는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를 도입했다. 영상의학과 · 핵의학과에서 도입한 셀비 메디보이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AI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이다. 해당 진료과 의료진들은 X-ray, MRI, CT, PET-CT와 같은 다양한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직접 셀비 메디보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성인식, 자동 텍스트 변환, 의무기록 저장, 병원 정보시스템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의무기록을 실시간 작성하게 되어 의사 1명당 평균 의무기록지 작성 시간이 수기 작성 대비 월 500분 이상 단축되었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진료 효율성 향상 및 판독 정확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2019년부터 한양대학교병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디지털 전문 채널인 Hihy를 건강저장소 운영, 진료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치료 후에도 의료진이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2018년, 메디블록과 개인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기술 및 플랫폼에 대



국내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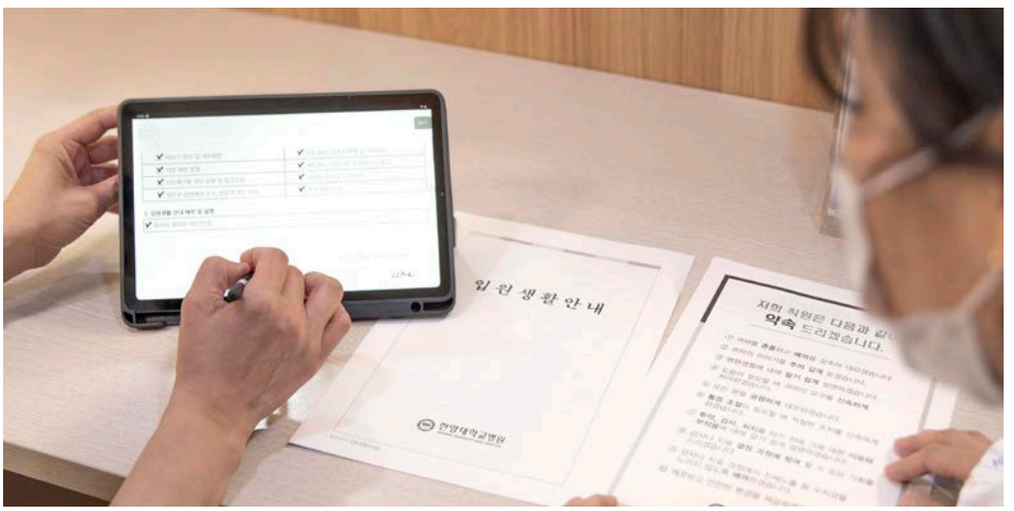
한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협약 체결 이후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진료기록과 라이프로그 등 통합된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했다. 이어 환자가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면 의료진에게 해당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개인 건강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모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환자 진료를 지원했다.

또한 환자나 의뢰 병원 등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12월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I-Refer System도 대폭 보완했다. I-Refer System은 환자 의뢰와 진료 결과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상호협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진료정보 전달 시스템으로 협력병원과 실시간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한양대학교병원의 협력병원은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22년 현재 1,700여 곳에 이르게 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운영중인 디지털 전문채널 Hihy 건강저장소

5.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행복으로



보다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__ 신속대응팀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편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입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위험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처치를 제공, 응급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속대응팀(Hanyang Rapid Response Team, HRRT)을 구축했다. 신속대응팀은 의료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불이행(Failure to rescue)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자 안전 시스템이다.

또한 수술 환자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또는 의료진이 의뢰한 환자의 혈압 · 맥박 · 호흡수 ·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가 전자의무기록(EMR)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으로 연동된 환자 활력 징후와 의식 상태를 신속대응팀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Medical Emergency System, MES)과 전산 스크리닝 프로그램(NeoRRS)도 새롭게 구축했다.

환자 맞춤형 진료

2012년 1월 7일부터는 토요일 진료를 전면 실시했다. 평일 바쁜 스케줄로 진료를 받지 못하던 직장인,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겨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보호자가 주말에만 시간이 되어 평일에 병원을 내원 할 수 없는 환자 등 많은 환자들이 토요일에도 주중과 똑같은 진료 혜택을 받게된 것이다.

2015년 10월에는 환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를 개소했다. 맞춤형 비만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모든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치료한다는 것이었다.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모두 담당의와 1:1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지방흡입이나 고도비만수술 등의 수술 환자는 담당의 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의와도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처방받도록 한 것이었다. 비만치료센터는 2019년 6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로부터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환자 맞춤형으로 높은 비만 치료 효과를 거두는 병원인 동시에 비만대사수술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2016년 5월 26일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 중독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한양대학교병원은 도박 중독 대상자에게 환자 맞춤형으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감염관리 시스템 정비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도 주력해왔다. 2017년 9월부터 모든 병동의 출입 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에 따라 병원 출입구와 병동은 허용시간에만 개방했다. 무분별한 방문 면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출입통제 시스템에 따라, 보호자의 경우 1인에 한



위험환자를 조기발견, 처치하는
신속대응팀

해 본관 1층에서 병동출입증을 발급했다. 입원환자는 입원 시 발급된 손목밴드형 환자 인식표의 바코드를 이용해 병동 출입이 가능하다. 그 외 면회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해졌다. 직원들도 예외는 없었다. 전자태그(RFID)가 내장된 사원증을 통해 구역별 보안등급에 따라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한양대학교병원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방침에 부응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확진자 치료에 전념했다.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당시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메르스 유행 당시 한양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전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호흡기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시에는 홀로 사용하는 별도 병실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호흡기질환자 가운데 메르스 감염자가 있더라도 바이러스가 병원 내로 퍼지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한양대학교병원은 정부로부터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구축한 한양대학교병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의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내원객을 대상으로 문진표 작성을 요구했다. 출입구마다 문진표 작성 부스와 온도 체크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며 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내원객들의 문진표 작성을 지원했다.

2020년 6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확한 정보관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전자명부 시스템'을 도입, 비접촉 코로나19 서비스를 강화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입 등록을 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는 간편하고 정확한 본인 인증으로 허위 작성을 막아 내원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확진자 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생 시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관리시스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내원객은 출입구 앞에 마련된 NFC 태그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발열 상태,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체크하면 간단하게 출입 등록이 확인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으로 안심진료소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기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9개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2021년 5월에는 방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운영했다.

감염병 전문병동은 입원병동 1개 층 전체를 최신 방역시스템을 적용해 리모델링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의 전문적 치료와 격리음압병실을 비롯한 전용 엘리베이터 등 감염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설치했다.

2020년 3월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김제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병원과 평택 박애병원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실신과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온 고령 산모에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28주 미숙아 출산에 성공했다. 당시 국내외에서 코로나 확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제왕절개 수술 성공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임신 14주~28주 차 확진자 산모의 수술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 차단과 환자치료에 총력을 다해 온 한양대학교병원은 이후에도 내원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증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위한 최신식 시설

STORY

4

곁에 머무는 사랑, 끊임없는 실천



국은영 간호국장

1972년,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이래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보는 동시에 사회 공헌을 위한 진료 봉사 등에 전념해왔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의술을 펼친다면 간호사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로 환자를 인도하는 직업이다. 우리는 교대 근무를 서며 하루하루 사람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왔다.

간호국에서 근무하며 겪은 가장 큰 사건은 단언컨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이다. 2020년 1월 20일, 한국 내에서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2022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의 일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무거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확진자를 맞이하며 간호에 전념해야만 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다. 체력이 바닥나고 적절한 휴식도 취하기 힘들었으며, 우리조차 감염될 수도 있다는 위협에 쌓인 채로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처럼 고된 업무에도 지치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간호국에 대한 한양대학교병원의 높은 이해와 한결 같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설립 이후부터 여러 번의 개편을 통해 간호업무의 표준화와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간호의 전문성 확립을 위하여 간호국 산하 교육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업무추진위원회, 연구위원회, 질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간호국 운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금의 환자중심, 근거기반의 간호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은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간호문화 정립,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1978년 국내 처음으로 외래 환자를 진료과별로 분류하였고 입원, 외래 환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돌보기 위한 전산 OCS 등을 도입했다. 이는 간호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간호국은 행정교육팀와 병동 관리팀, 특수 관리팀, 외래 관리팀 등 총 5개의 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각 부서의 간호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병원의 운영과 진료가 막힘 없이 이루어지도록 유지 중이다.

간호국에 대한 복지와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한양대학교병원만의 교육 시스템에 따라 신규간호사 교육, 분야별 교육,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제공하여 전문간호 인재양성을 위한 간호사 직무능력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간호진들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지를 바탕으로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병이 주는 고통으로 가끔 예민해져 있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느라 더욱 예민해진 보호자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의 경험을 전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경청, 존중, 감정이입을 통해 환자 간호에 더욱 힘을 쏟는다. 오랜 시간 간호했던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서면서 건네는 한마디의 감사 인사는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속을 사명감으로 적셔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지속적인 감염병 위협 등은 더 전문적인 간호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처방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로봇을 사용하도록 점차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비대면 시대 간호교육의 디지털 혁신과 임상 현장의 스마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국과 한양대학교 간호학부가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간호의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시도되는 변화를 더욱 혁신적으로 전문화하여 한양 간호의 발전을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양 안에서 간호학을 배우고, 간호사로서 지켜온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 향해 나아가는 지금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의 의미는 더욱 벅차게 다가온다. 지난 50년, 한양대학교병원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다. 한양의 설립정신 '사랑의 실천'을 늘 가슴이 새기며 한양대학교병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 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호국 또한 한양 간호의 정체성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행복하고 힘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본다.



6.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2022년 5월 3일,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21년 10월 1일, 지나온 50년을 회상하고 향후 50년에 대한 비전을 강구하여 100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이형중 교수(신경외과), 부위원장 김상헌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간사 나민균 조교수(신경외과), 행정간사 김동훈 부장(인사총무팀), 간호국 간사 박정하 부장(간호국), 총괄간사 김명희 파트장(간호국)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발전기금 소위원회(위원장 이항락 교수), 홍보강화 소위원회(위원장 김희진 교수), 50년사 편찬 소위원회(위원장 성윤경 교수), 학술대회 소위원회(위원장 박성열 교수), 기반조성 소위원회(위원장 이규훈 교수)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50년의 역사를 기록한 '과거관', 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은 '미래관'으로 구성된 히스토리 월(History Wall)을 본관 1층에 설치했다.

발전기금 소위원회는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병원 신축 모금 캠페인 등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홍보강화 소위원회는 50주년 엠블럼, 기념 홍보영상, 이미지 광고, 기자간담회, 원내 · 외

미디어 특별기획 등을 진행했다. 50년사 편찬 소위원회는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50년사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기반조성 소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슬로건, 50초 동영상, 환자수기 등 여러 가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소위원회는 2022년 4월 30일 오전 9시에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운 길을 향한 한양의 도전'을 부제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양대학교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학술대회는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윤호주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중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션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 한양대학교병원의 발전사 등 병원 역사를 돌아보는 주제와 함께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정밀의료 신기술 연구 동향이나 POST COVID19 시대의 의료대응 현황 및 전략 등 학술 · 정책 관련 분야도 다뤘다. 마지막 미래 세션에서는 한양한양생명과학기술원(HY-IBB)의 소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의 현재와 미래, 병원 신축 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원 50주년 기념식 성료

개원 50주년 기념식은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백남음악관에서 열렸다.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랑의 실천으로 헌신한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향한 도약의 100년을 교직원 모두가 함께 다짐하는 자리였다. 기념행사는 이형중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의 50년 연혁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윤호주 병원장), 기념포상, 격려사(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축사(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환영사(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축사(하헌영 의과대학 동문회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50주년 축하영상(오세훈 서울시장 등), 축하공연 순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인사말에서 윤호주 병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의 개원 5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교직원들과 많은 귀빈에게 감사하다"면서 "의료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



5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히스토리 월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교직원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형중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의 50년 연혁보고와 기념포상이 이어졌다. 기념포상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20명에게 수여되었다.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 외 2명이 이사장상을, 본관 19층 김윤희 과장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관 8층 윤미영 계장 외 1명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을, 감염관리팀 이명희 계장 외 13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한 해 동안 언론홍보 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은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 외과 최동호 교수, 흉부외과 장효준 교수가 수상했다. 의무기록상은 내과 최재원 전공의 외 24명, 친절직원상은 신경과 최병우 교수 외 3명, 환자모시기왕은 영상의학과 박정선 교수 외 2명, 우수부서상은 본관 18층 병동이 수상했다.

기념포상에 이어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열악한 국내 의료와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72년 개원한 이래 지난 50년간 헌신해왔다"면서 "앞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더욱더 발전해 미래 의학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우승 총장이 "한양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과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국가의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도약의 100년을 위해 대학과 함께 융합연구를 통해 중증질환과 난치병을 극복하는 의료기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했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개원 기념식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이 걸어온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 의학을 선도할 50년의 꿈과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이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신축해 환자중심의 진료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헌영 의과대학 동문회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의 축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50주년 축하 영상, 진문일 원목실장의 축도를 끝으로 1부 행사가 막을 내렸다. 2부는 현숙, 김성환, 배일호 등 병원 홍보대사들의 축하 무대를 필두로 교직원들로 구성된 함께한대 합창단의 합창공연, 한양대 음악대학의 다채로운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화합의 장이었다.



포토월 앞에 선
최호순 의료원장, 김종량 이사장 내외, 윤호주 병원장





(위) 2022년 5월 백남음악관에서 열린 개원 50주년 기념식

(아래) 50주년 기념식 영예의 수상자들

INTERVIEW

5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해 도약할 때

- 윤호주 20대 병원장 -

2019년 3월 취임한 윤호주 병원장은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 의료인이다. '만회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아쉬워하거나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파증불고(破甑不顧)가 평소 좌우명이다. 윤호주 병원장은 평소 좌우명대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고 강조한다. 이루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기 보다는, 대학병원의 기본 역할인 후학 양성과 연구 활성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100년 병원을 향해 도약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

개원 50주년을 앞둔 시기에 병원장 직책을 맡아 부담이 적지 않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싶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을 설립 목적으로 개원한 이래 반세기 동안 성장을 거듭해온 한양대학교병원의 저력과 전통을 믿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위상을 드높였던 선배 의료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분들, 그리고 항상 병원을 믿고 따라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가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병원장직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의료기관인증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우 의미가 큰 개원 50주년 행사 준비에 착수해야 했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개원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준 준비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 활성화와 시설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병원에 주어진 임무는 후학 양성과 연구, 환자 진료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양대학교병원은 기본 임무인 의료인 양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거나 개원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동문이 많은 데서도 충분히 입증된 일입니다. 연구와 환자 진료 부문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서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2010년대 이후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우수 의료진 영입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크게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한양대학교병원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구중심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비와 연구인력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노력해서 거둔 성과가 아니고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성과입니다. 시설 확충 문제는 새 병원 건설과 기존 병동의 리모델링을 통

"개원 50주년을 맞는 2022년을
'도약의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
자연과 디지털이 어우러진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신축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연구중심병원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해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병원은 단순히 환자 진료 시설만 확충하는 게 아니고 임상과 연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 구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행사를 기획할 때 대면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성황리에 학술행사와 기념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가 컸던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으로 헌신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이어온 한양대학교병원의 지난 50년을 토대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 새로운 50년을 향해 재도약하는 다짐의 행사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양대학교병원은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을 맞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앞날에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원 50주년은 크게 축하할 일이지만 축하의 말은 가능하면 아껴두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지난 5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올 수 있었던 건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또 병원을 믿고 사랑해준 환자와 보호자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행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을 '도약의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 자연과 디지털이 어우러진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신축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연구중심병원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구성원과 동문, 환자, 보호자 분들 모두 미래를 향한 힘찬 행보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택시
일반


DONGYANG

Chapter 5.

1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미래 의료 선도

더 빛나는
미래를 꿈꾸다



2

연구·교육·환자중심의
의료클러스터 구축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향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변화무쌍한 디지털의 시대.
시작점부터 시대 흐름과
맥을 함께 했던 한양대학교병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새로운 변신을 선언한다.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을 통해
기존의 진료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오늘보다 더 빛나는
미래 청사진을 공개한다.

희망 혁신

Hope & Innovation

1.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미래 의료 선도



2027년 완공 예정인 신축 병원

__ 새 병원 신축 계획 수립

한양대학교병원은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으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의 융복합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새 병원 건립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신축 병원은 2027년 완공 예정이다.

2021년 10월, '한양대학교병원 신축설계 입찰용역'을 공모했고 2022년 2월 새 병원 신축 설계 공모 용역 입찰 당선작으로 삼우종합건축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로써 삼우종합건축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새 병원 신축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게 되었다.

당선작에 따르면 신축 병원은 의과대학 제1 · 2의학관과 정문 부지에 설립, 정문의 역할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상 5층~지하 5층에 대지면적 1만 8,700㎡(5,655평), 연면적 7만 5937㎡(2만 2,900여 평) 규모로 뛰어난 접근성, 본원과의 연계성, 정문으로서의 상징성까지 모두 갖췄다.

2호선 한양대역과 신축 병원, 기존 병원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설계해 중증 질병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족했던 주차 공간 문제도 개선했다.

의료서비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설 한양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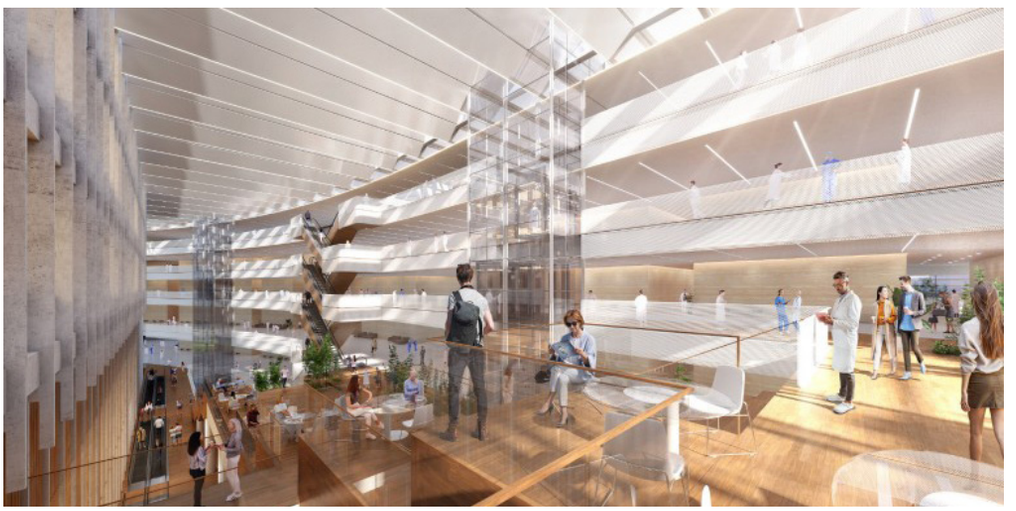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은 새 병원 완공 후 기존 외래 전체를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암센터(병원) 및 통원치료센터와 교육연구시설, 편의시설 등도 함께 건립한다.

기존 본관과 서관은 치료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하되, 본관 및 서관에 재배치 예정인 내시경 및 영상의학 시설 등은 입원 및 외래 환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재배치할 계획이다. 신축 병원 외관은 기존 병원과 의과대학, 캠퍼스 등 주변 환경과 공존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 환자의 접근성, 기존 병원과의 효율적 연계성, 정문으로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이자 진료와 교육, 연구의 융복합 의료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외래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부서는 뇌 · 신경센터(550m^2)로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통합 운영으로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암병원과 류마티스병원에는 각각 510m^2의 공간을 부여할 것이며 류마티스병원은 건물 주 출입구 인근 전면에 배치된다. 이 외에 심혈관센터와 피부과, 성형외과도 입주시킬 계획이다.

2.

연구·교육·환자중심의 의료클러스터 구축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 구성

__ 환자 편의성 높인 스마트병원

이번 신축 병원을 설계할 때 주안점을 둔 첫 번째 키워드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다. 환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우선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치 선정하고 공간을 구성했다.

캠퍼스 정문에 세워질 신축 병원은 입구가 큰 도로와 맞닿아 있고 한양대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다. 주차 공간은 85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과 향후 신축 예정인 사이버대학교 주차장까지 사용하면 약 12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은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구축해 의료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면 방문 예약과 검사, 진료, 수납 순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환자가 최소의 시간과 동선으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로봇을 이용한 안내 및 방역 시스템, 스마트 게이트, 원스톱 스마트 원무시스템 등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힘썼다.

중증·난치질환 중심의 외래 진료부

신축 병원에는 암센터를 비롯해 신경계 · 심혈관질환, 류마티스 등 중증 · 난치질환 중심의 외래진료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외래진료부 배치도 환자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해 구성했다. 환자가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효율적인 다학제 협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난치병이나 관절염 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은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일반 환자들과 동선을 분리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은 저층의 외래부와 고층의 입원부로 나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래병동과 입원병동을 나누는 것이 흔한 형태는 아니나 선진국의 병원 모델과 코로나19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입원병동과 외래병동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임상·융합연구 위한 교육연구센터

지상 4~5층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교육연구센터를 조성해 임상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센터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한 임상연구개발 등 연구중심병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강점인 공대, 자연과학대와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 관련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고부가가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2027년 완공될 신축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의 비전에 걸맞게 웅대하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건물 전체가 한양대학교 정문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그 '새로운 문'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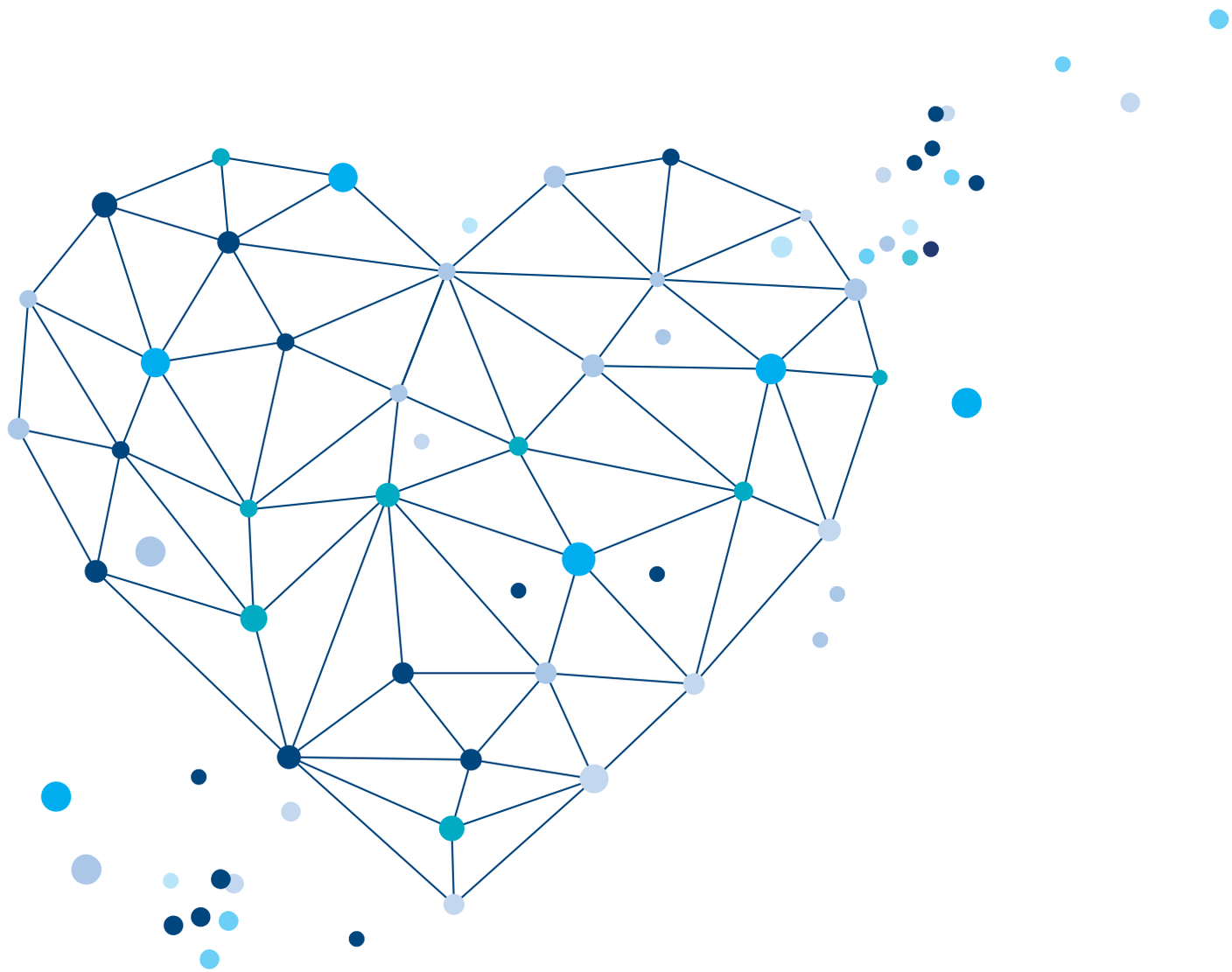


(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

(아래) 건물 전체가 한양대학교 정문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형태로 설계

한양대학교병원의 빛나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노련하고 원숙한 경험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수혈될 때, 단단하고 밀도 있는 시너지가 발생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앞으로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차세대 유망주, 2021~2022년 전임교원이 된 30대 젊은 의료진들을 만나 보았다. 그들의 뜨거운 오늘은 한양대학교병원의 빛나는 내일이다.





변화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소화기내과 최성지 조교수(38)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대두되었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의료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고 노력하는 병원들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병원들은 결국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며 멈추지 않고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앞으로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변화로 만들어갈 시간들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또한 즐기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사람을 중히 여기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 단계 아니고, 두 단계 더! 도약할 우리 한양대학교병원! 힘껏 응원합니다.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도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안과 이원준 조교수(38)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모토에 맞게 다른 병원에서는 느끼기 힘든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병원을 경험한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의 교수님들과 오랜 인연을 쌓고 유기적인 케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처럼, 저도 제가 만날 제자이자 후배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젊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아이템이나 임상 술기, 수술법 등을 잘 선정하고 습득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진료도 열심히 하는 의료인, 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한양대학교병원!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제 모교이자, 행복한 일터가 되고,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의 · 연구자 · 교육자로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수연 조교수(34)

전임교원이 된 것이 당연히 기쁘고 설레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수술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술 전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최적화, 수술 중의 마취 관리, 수술 후의 통증 조절 등 모든 것을 포괄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새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고안, 그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의 특성상 다양한 과의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데, 수술도 굉장히 잘하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하는 모습에 종종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본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도 그 어느 병원보다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100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저도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약의 100년! 무한동력이 되겠습니다

외과 정윤경 조교수(35)

외과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곳,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 가슴 설렙니다. 저에게 있어 의료란, 삶의 동력! 멈추지 않는 뜨거움과 에너지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인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의 인간애가 가득한 병원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신구가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랑이 넘치는 젊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 한양대학교병원이 앞으로 더 멋있게 도약해서 환자 그리고 의료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데 제가 무한동력이 되겠습니다.

진료와 연구를 깊고 넓게 연결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조용일 조교수(38)

전임교원이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교원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의 건학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제 위치에서 어떻게 이뤄나갈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의사이면서 의사과학자로서, 진료와 연구를 깊고 넓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중환자 치료에 대한 영향력 있는 기초, 중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환자 치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많은 동료, 후배들과 함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한양대학교병원은 그 어느 병원보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전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최첨단 기술로 글로벌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뜨거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심장내과 김우현 조교수(39)

이전의 50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50년은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와 가족애로 하나가 되는 따스한 병원입니다. 저 역시 그 일원으로서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내 지인이라면, 고민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개원 당시 한양대학교병원은 동양 최대의 규모로 명성을 떨쳤다면, 앞으로는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새로운 명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역동적인 도약에 제가 뜨거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Dreams come true!
계속 꿈꾸고 이뤄가겠습니다

신경외과 나민균 조교수(39)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교수님들의 가운에 있는 파란색 명찰을 보면서 전임교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어느덧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수술로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학술활동 및 연구를 통해, 뇌종양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외래를 건립하는 만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여러 진료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의 원천이자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가 될 한양대학교병원! 50년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과 발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곳,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계속해서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환자들과 따스하게
소통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병리과 김현성 조교수(36)

모교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뛰어난 의료진이 포진한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의 접근성이 뛰어난 병원으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저 역시 한양대학교병원의 일원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 의료는 '소통'입니다. 탄탄한 의술을 바탕으로 환자들과 따스하게 소통하는,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50년의 역사가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오늘을 딛고 그 전통을 먼 미래까지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한 걸음씩!

이비인후과 변하영 조교수(39)

한양대학교병원의 전임교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고, 차근차근 성실히 진료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교수진이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다른 대학병원보다 매우 많습니다. 외래에서 시행하는 진료와 치료에서부터, 수술실에서까지, 교수진이 직접 관리하는 범위가 방대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만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어,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한양대학교병원이 내 가족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게 되는 병원,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 100년의 출발선상에 선 한양대학교병원. 같이 힘차게, 매일 스타트하겠습니다.


보호구역
30
30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Chapter 6.

1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병원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들

2



끈끈한 조직문화

사랑의 실천으로 변함없이 길을 걷다

1972년부터 오늘을 거쳐
한계 없는 내일로 이어질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은, 사람에서 시작되어
실천으로 완성된다.
이 길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사랑의 실천자들.
한양대학교병원이 품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존경
헌신

Respect & Devotion

1.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병원



1970년대 무료 진료 봉사

활발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한양대학교병원은 1972년 개원 이래 원목실과 사회사업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1998년 성동정신건강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경정신과 안동현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관내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KBS에서 방송하는 한국복지재단 '사랑의 리퀘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원목실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업무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신설했고, 무료 진료 활동을 강화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입원환자, 보호자 등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파랑새 정기음악회'와 '음악치료요법'을 실시했다.

이후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원목실에서는 말기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봉사활동으로 환자의 남겨진 시간에 의미를 더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2000년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사업과 업무를 체계화하여 기존의 사회봉사 활동에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한양대학교병원의 특성을 살린 무료진료 활동에 무게를 더했다.

무료진료 활동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7~8회, 1회당 평균 진료 환자 1,000여 명에 이르는 무료진료를 시행했다.

찾아가는 무료 진료활동

한양대학교병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문을 연 덕에 개원과 동시에 지역 행정기관과 사회단체로부터 각종 의료봉사 요청이 쇄도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다양한 무료진료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 의료진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 대한 무료 진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지역 약물감시 활동, 농어촌 의료봉사, 풍수해 재난지역 의료진 파견 및 의약품 지원, 이주 외국인 노동자 순회 진료 활동, 영세민이나 벽지 도서 주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 무료 진료 횟수가 1~2회 수준에서 크게 늘어 2007년 이후로는 연평균 10회 내외로 확대되었다. 2001년 270명에 이어 2002년엔 823명을 진료했으며 2007년 918명, 2008년 1,795명을 진료했다. 2011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총 71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6차에 걸쳐 1,300여 명에게 무료진료와 처방을 했다.

정기적인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2006년 7월 강원도 평창군 수해 사태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 등 심각한 사건사고에 의료진들을 파견하여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연례 행사인 '사랑의 김장나누기', '나눔쌀 만섬 쌓기기' 행사 등도 꾸준히 지원했다. 2010년 지역사회 의뢰에 따라 시행된 사회복지 서비스는 652건에 달했고 관련 의료 상담 서비스 인원도 총 3,203명을 기록했다. 형편



새마을 무료 봉사

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원한 진료비 역시 91명 1억 1,800만 원 달했으며 무한돌봄 긴급 의료비 지원도 205명 5억 600만 원에 이르렀다.

지역 사회공헌

2007년 12월 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청과 '사랑의 실천 후원 협약'을 맺고 성동구청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정하면, 한양대학교병원이 수술비를 지원하였다. 한양대학병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기금을 모아 수술비를 충당했기에 더욱 의미있는 활동으로 남아있다.

2008년 2월부터는 성동보건소와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내 30세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1차 유방 단순 촬영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유소견 의심자에 대해서는 유방 초음파 검진비도 지원했다.

2008년 8월 서울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9년 3월에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응급의료기관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운영, 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2011년 2월, 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둥이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저체중 출산아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2011년 한 해에만 227회에 걸친 방문 진료가 시행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는 지역 내 150여 가구의 요청을 받아 육아와 재활, 영양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만성질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 공동 헌혈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매년 5월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행복나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축제 한마당' 행사에는 무료 순회 진료와 의약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개원 초기 시행했던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병원학교 운영

2004년 3월 한양대학교병원은 학대아동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다각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및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 치료가 불가피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사회공헌 측면에서 그 어떤 활동보다 의미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한양대학교병원은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또는 병원 자체적으로 유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했다.

2005년 11월, 서울시 성동구교육청 의뢰로 병원 내 어린이학교인 '누리봄교실'을 정식 개교하여 어린이들을 돌보았다. 2009년 8월에는 컴퓨터, 각종 교육시설, 관련 도서 등을 설치한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운영을 국내 최초로 진료 지원부서에 정식 편제시켜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초등학생이나 중 · 고교 학생 중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봄 교실'에서는 일반 학교의 진도를 환자에게 맞추어 학습시키고, 사이버 가정학습, 방문교육, 화상강의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교사 워크숍, 계절캠프, 함께 해요 사랑나눔 누리봄교실, 미술 전시회, 음악회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건강 회복과 학교 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한양대학교병원 '누리봄교실'은 병원 교직원을 필두로 현직 교사와 대학생 교사, 특별활동 교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란 이름으로 소아암 혈액질환 완치자 모임을 결성하여 병원학교 학생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며 어린이 환자 재활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개교 16주년 기념식

해외 의료봉사

한양대학교병원은 1990년대 들어서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나갔다. 첫 해외 의료봉사 활동은 1994년 9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신장내과 강경원 교수와 소화기내과 윤병철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1개월 동안 대민 진료를 시행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의 낙후 중심으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7월에는 오호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을 방글라데시에 파견해 9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2002년 7월에도 홍철호 교수 등 의료진을 방글라데시에 보내 21일간, 892명의 각종 질환자를 진료하여 양 국민과 우의를 다졌다. 2003년에는 해부학과 윤재희 교수를 단장으로 한 의료진을 키르기스스탄에 파견해 2주간에 걸쳐 85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어 2004년 7월에도 천승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을 키르기스스탄에 파견해 2주일간 89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2005년 1월엔 금세기 최대 재앙의 하나였던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를 단장으로 한 의료봉사단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시 참사 현장에 파견했다.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상자 및 환자 치료와 전염병 예방, 의약품을 공급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높이 평가받은 한양대학교병원은 2005년 9월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유동환 교수 등 의료봉사단을 네팔에 파견해 2주간에 걸쳐 155명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베트남 빈딘성 떠이빈으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봉사 지역인 떠이빈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맹호부대가 격전을 벌인 지역으로 한국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으나,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현재는 화해와 우정의 교류를 나누는 장소로 변모했다.



2018년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

2.
끈끈한 조직문화



마라톤동호회 메디런너스

활발한 동호회 활동

한양대학교병원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병원 문화를 창출하고자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3년, 산을 좋아하는 직원 몇몇이 모여 산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호회 형태로 운영하다가 1988년 3월 원내 정식 모임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갔다. 산악회는 매월 첫째 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 명산을 정기적으로 등산했으며 연 2~3회에 걸쳐 지방 원거리 명산을 순례하기도 했다. 매년 3월 첫 등반 시에는 시산제도 빼놓지 않고 거행했다.

1993년 3월 6일에는 바둑을 통하여 건전한 오락 문화를 형성하고 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우회'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직원 35명이 중심이 되어 낚시회를 발족했다. 자연 보호와 친목 도모를 위해 발족한 낚시회는 회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원내 유일의 낚시 동호회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개의 동호회가 새로 결성되었는데 2001년 12월,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원들 역시 건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1997년 '달사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오던 마라톤 동호회가 7명으로 구성된 '메디런너스'라는 이름으로 재발족되었다. 메디런너스는 정규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후 회원 수를 계속 늘려나갔고, 현재는 매년마다 4회 내외 정식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모인 '풍선다모아' 모임이 결성되었다. 매주 첫째 주 금요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정오 음악회에 직원들과 입원 환우,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선 장식을 하는 친목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2007년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았다. 이 모임은 정오 음악회 뿐만 아니라 원내 어린이학교 기념식, 관련 기구의 각종 이벤트는 물론 간호사 교육 등에도 풍선 장식으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간호국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국은 병원간호사회와 함께 2005년부터 매년 10월 4일을 전후로 '천사데이(1004 Day)'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진정한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간호사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펼쳐지는 간호 봉사활동이다. 천사데이 행사는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원 환자와 내원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혈당·혈압 측정 등 무료 건강 체크와 건강상담을 하고, 이어 다양한 음악공연과 함께 다과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로 발을 넓혀 '간호봉사의 날'로 명칭을 바꾸 성동구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여 주변 구민을 위한 손위생 교육,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양대학교병원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4년
한양대학교병원
족구대회

건강한 병원 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7년 6월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주최한 '감정노동 힐링365 온 국민 참여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슬로건 '대한민국 감사온도 1도 올리기'는 감정노동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상호 이해와 힐링으로 따뜻한 공감을 나누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 캠페인에는 병원 의료진들은 물론 방문객과 환자, 보호자들도 참여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메시지를 담은 부채를 나눠주고 힐링 핸즈, 병원 관계자에게 따뜻한 감사메시지 쓰기, 캠페인 인증샷 참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뇌교육 기반 심신힐링 체험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건립 이래 50년간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큰 명성을 쌓은 한양대학교병원. 여러 의료분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내고, 동시에 많은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해준 배경에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을 마치 가족같이 여기고 동시에 따뜻하고 끈끈한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허나 그러한 노력은 단순히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병원을 너머 병원 밖으로,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한양대학교병원의 위상과 평판을 드높였다.

한양대학교병원의 구성원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건립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한 수많은 사랑의 실천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1989년 야외수련회에서 원무팀 단체사진





(위) 2013년 교직원 화합의 밤

(아래) 2019년 노사공동 헌혈행사





(위) 무의촌 진료봉사

(아래) 류마티스 의료봉사



환자들을 위한 원내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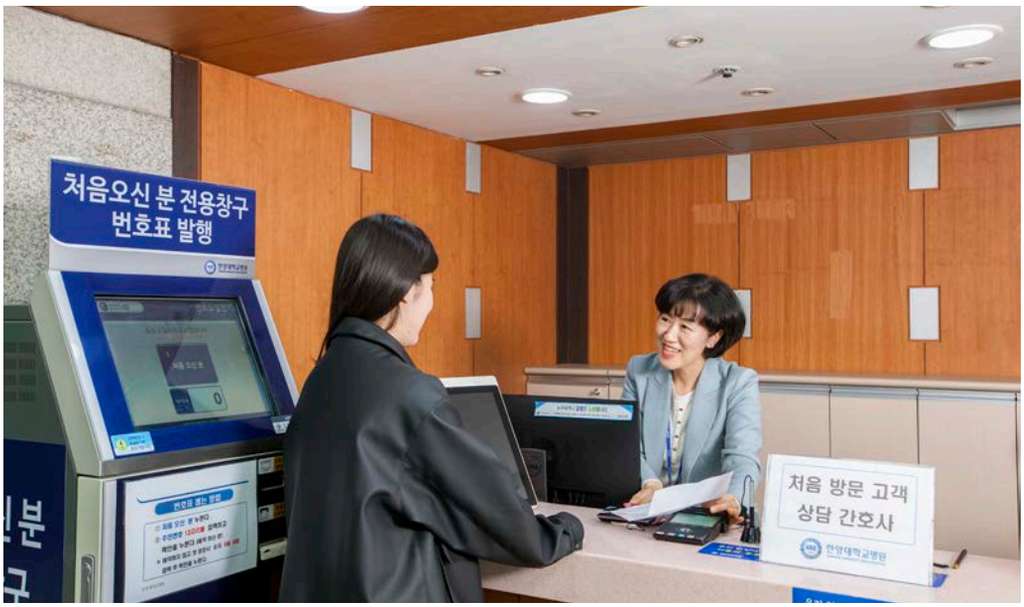
2009년 유방암환우회 핑크리본 마라톤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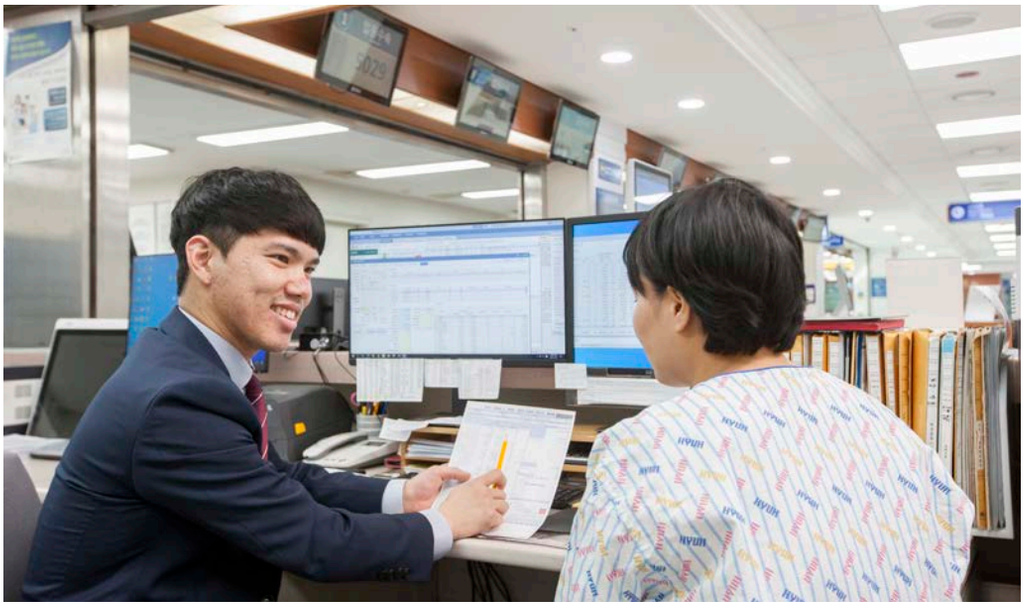




(위) 간호 봉사활동의 일환인 2017년 천사데이

(아래) 1993년 설립된 바둑동호회, 기우회


처음오신 분 전용창구
번호표 발행
처음 방문 고객
상담 간호사




PHILIPS


KYOCERA
KYOCERA
KYOCERA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 곁에 머무는 간호사들


원무팀
강당,에스컬레이터


서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래채혈실
무인 민원발급기
서관 6층 연결통로 입구


초음파실 1
Ultrasonography 1
초음파실 2
여자탈의실

우리 모두가
한양대학교병원입니다.

부문사

사랑의 실천,
한마음으로 가는 길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
한양대학교병원, 모든 사랑의 실천자들이
가슴 속 깊이 품은 사명이다.



진료과

한양대학교병원의 진료과는 8개 분과로 구성된 내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총 33개 과로 구성돼 있다.
1972년 개원 당시부터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새롭게 개설된 과도 있다.
지난 50년간 각 분야 모든 의료진이 꾸준히 노력하여 이룬 성과들이 모여
오늘, 한양대학교병원은 글로벌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정의학과 211
내과 212
감염내과 213
내분비대사내과 214
소화기내과 215
신장내과 216
심장내과 217
혈액종양내과 218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19
마취통증의학과 220
방사선종양학과 221
병리과 222
비뇨의학과 223
산부인과 234
성형외과 225
소아청소년과 226
신경과 227
신경외과 228
안과 229
영상의학과 230
외과 231
응급의학과 232
이비인후과 233
재활의학과 234
정신건강의학과 235
정형외과 236
직업환경의학과 237
진단검사의학과 238
치과 239
피부과 240
핵의학과 241
흉부외과 242
임상약리학과 243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는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질병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과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가족의 역동, 질병과의 연관성도 함께 다룬다.

가정의학과는 주된 임무는 일차 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가 수행하는 일차 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진료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도,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노인의학, 스포츠의학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센터와 맞춤형비만치료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1988년 2월 1일 이정권 전임강사가 본교에 부임하면서 가정의학교실이 개설되었고, 1989년 7월 1일 가정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정식 개설되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은 1993년도부터 시작했고 현재는 연차별로 2명의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다. 일차 의료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의사를 육성하고 통합의료, 지속적 의료의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실습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가정의학과는 박훈기 교수, 황환식 교수로 이루어진 교수진과 전공의 6명, 외래 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실 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훈기 교수는 스포츠의학을 부전공으로 진료하고 있다. 학생 평가 및 문제중심 학습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선도하며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보였고,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실기시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의학교육과에서 펠로우십을 이수하고 이듬해 영국의 런던대학에서 스포츠의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와 의학교육과 스포츠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2010년 4월 보건의 날 의사실기시험 도입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황환식 교수는 노인의학, 비만의학, 건강증진의학 등에 관심을 갖고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가정의학회 수련이사로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이사, 대한스포츠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미국의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노인의학과에서 교환교수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구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내과

대학병원에서 내과는 세부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내과는 감염내과·내분비대사내과·소화기내과·심장내과·신장내과·호흡기알레르기내과·혈액종양내과·류마티스내과, 이렇게 8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내과는 훌륭한 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내과 전공의를 선발하고 교육하며, 각 분과의 의견 조율과 업무 지원, 전공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의 내과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과와 모자병원 관계를 맺어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 선발인원은 7명이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5명으로 총 12명의 전공의를 매년 선발한다. 각 병원과 분과에 적절히 파견되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순환 근무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내과 전공의의 인사 문제, 징계 및 포상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내과 각 분과의 상위 행정조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소속된 전문의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의견종합, 전달 등 행정업무도 주요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각 분과의 경조사 및 친목도모, 동문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내과 분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의사 보조간호사를 선발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2022년 2월 기준, 의사 및 보조간호사 3명을 선발해 운영중이다. 보조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도와 입원 환자의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입원 전담전문의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과학교실은 1972년 5월 한양대학교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과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창설되었다. 설립하고 9년 동안은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교수가 전문의 양성과 연구 업적을 쌓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창설멤버로 박석련 교수, 김종설 교수, 박경남 교수, 이정균 교수, 최하진 교수 등이 있다. 2022년까지 총 491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감염내과

감염질환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발병되어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발병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패혈증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감염내과는 감염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며 환자 진료 외에도 병원 내 감염 예방과 관리, 적정 항생제 처방 관리 활동(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폐렴, 결핵, 신우신염, 방광염, 뇌수막염, 골수염, 피부연조직 감염,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각종 장기에 발생하는 감염 질환과 불명열, 패혈증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이식환자에서 발생하는 기회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감염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날로 복잡다변해지는 감염질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감염내과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1972년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하면서 감염내과의 진료가 시작되었다. 당시 분과는 없었지만 감염학을 전공한 박승철 교수가 1973년 9월부터 1983년 8월까지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를 이끌었고 2002년 9월 배현주 교수가 부임하면서 기반이 닦였다. 감염내과는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관리팀과 협력하여 병원내 감염 발생을 예방,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부서 자체적으로 병원내 적정 항생제 처방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병원 내 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여행자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9월 배현주 교수의 부임 후 현재와 같은 감염내과로 체계가 잡히게 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김봉영 교수가 합류해 활발한 진료 활동과 감염관리 및 항생제 관리 활동, 연구, 교육을 이끌고 있다. 감염내과는 타 과로부터 감염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과 협의 진료를 수행해 왔으며, 감염의 원인파악 및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통해 감염질환의 치료를 전담해왔다. 이를 통해 입원 환자들이 감염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때 정확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받도록 돕고 있다.

배현주 교수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한화학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내분비대사내과

내분비대사내과는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질환과 대사 이상을 진료하는 내과의 분과로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부신 질환, 부갑상선 및 골대사 질환, 성선기능의 이상, 지질대사 이상, 비만 및 각종 영양 관계 이상 질환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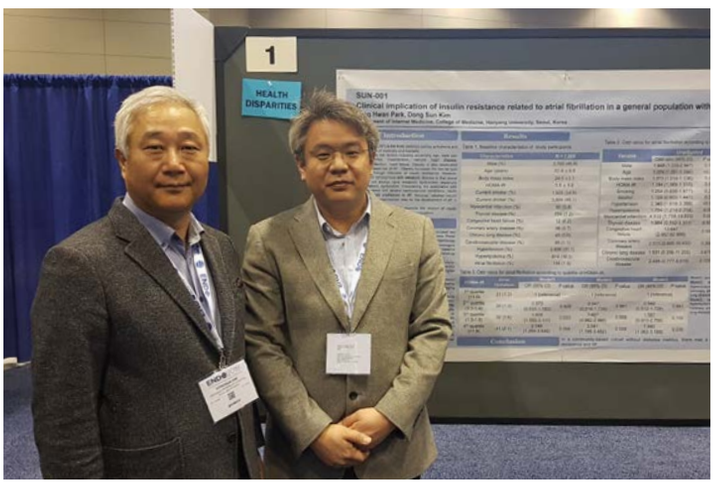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의학 수준도 발전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비만, 당뇨병 및 골다공증과 같은 내분비내과적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는 이러한 내분비내과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 진료과 전문의와 다학제 진료를 하며 다양한 내분비 관련 종양 환자도 치료한다. 나아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다양한 학회에 발표하며 내분비대사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분비대사내과의 본격적인 진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김목현 명예교수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로 부임한 1974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우수한 내분비내과 교수들이 역임하며 발전되어 왔다.

2022년 현재 김동선 교수, 안유헌 교수, 박정환 교수와 이승은 임상강사가 당뇨병, 뇌하수체 질환, 갑상선질환, 골 및 무기질 대사(골다공증 등), 부신질환, 비만, 고지혈증, 성선질환 그밖에 신경내분비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및 전공의 교육, 활발한 연구 활동 및 학회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김동선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7대와 28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내분비대사내과는 외래, 당뇨 상담실을 포함한 당뇨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당뇨병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팀을 이루어 단순한 진단과 치료를 넘어 환자 스스로 당뇨병을 관리하도록 보다 강화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진료과(신장내과, 안과, 신경과, 심장내과 등)와 긴밀하게 협진하여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관리한다. 당뇨 상담실의 교육 간호사와 영양사는 당뇨 환자에게 식사 교육 및 당뇨병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분비대사내과는 서울 동부 지역 중추병원의 내과를 구성하는 중요 분과로서, 전공의와 학생 교육 그리고 환자 진료에 앞장서고 있다.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는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간, 췌담도와 관련된 질환을 진료하는 내과의 한 분과이다.

소화기내과는 1972년 개원과 동시에 창설되었고, 이후 1981년 3월 내과학교실이 5개의 분과로 나뉘어지면서 소화기내과로 독립했다. 그리고 1998년 3월 소화기연구소를 거쳐 2001년 3월 소화기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09년 10월, 현재 위치인 서관 6층에 소화기센터를 확장·개소했다.

현재 내시경실에서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내시경초음파, 캡슐내시경 등의 검사와 이물질 제거, 출혈 병소 지혈,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EMR),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ESD) 등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소화기내과의 최호순 교수는 간암, 담낭암,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분야의 진료를 맡고 있으며 윤병철 교수는 식도, 위, 대장, 내시경치료 및 초음파, 위장관기능검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오영 교수는 식도, 위, 대장,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및 치료, 내시경초음파, 위장관기능검사 분야의 진료를 맡고 있으며 이항락 교수는 소화기, 위장관, 대장내시경,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대장용종절제술, 내시경지혈술, 내시경초음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전대원 교수는 간질환, 간암, 자가면역성 간염 분야의 진료를 맡고 있으며 이강녕 교수는 식도, 위, 대장, 치료내시경(용종절제술, 식도암/위암/대장암의 내시경절제술, 내시경지혈술, 스텐트삽입술, 위루형성술, 이물제거)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재훈 교수는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용종,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초음파내시경 분야의 진료를 맡고 있다.

윤아일린 교수는 간 질환, 간암, 급·만성 및 자가면역성 간염 분야를, 최성지 교수는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분야 진료를 맡고 있다.

소화기내과는 1972년 개원 이후 우리나라의 위내시경 확산 및 보급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위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간세포암종에 가장 많이 사용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해 간세포암종 환자 치료를 선도했다.



신장내과

신장내과는 콩팥과 연관된 모든 질환을 진료하는 내과의 한 분과다. 주요 질환에는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염(신장염),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요로감염, 전해질장애, 고혈압과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등이 있다.

2022년 현재 신장내과는 외래진료실, 혈액투석실, 복막투석실, 환자교육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래진료실은 서관 5층에 있으며 신장이식환자, 사구체신염, 복막투석 환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콩팥병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혈액투석실은 국내 최고 시설의 정수시설을 기초로 한 혈액투석 장비 40여 대를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혈액투석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2020년 기준, 4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복막투석실 또한 환자들이 병원 내원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요시 검사와 처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자료실은 만성콩팥병 환자 및 투석환자의 교육과 상담을 위한 장소로 환자와 그 가족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으로부터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신장학을 연구하던 박한철 교수가 한양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신장내과의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투석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1975년 10월 인공신장실이 특수클리닉으로 설치되어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1978년에는 신장이식을 시작해, 국내 의료계에 말기신부전 치료의 장을 열었다. 197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뇌사자 신장이식이 본원에서 시행되었다. 이어 1995년에 외과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교환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했다.

국내에 내과 분과제도가 없었던 1981년, 본원에서 최초로 내과 분과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장내과는 내과의 한 분과로서 환자 진료뿐 아니라, 병원 전체를 통하여 협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대체요법으로써 전통적인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외에 지속적 신대체요법, 자동복막투석, 온라인혈액여과투석 등 여러 최신기법을 조기에 적용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22년 현재 김근호 교수, 이창화 교수, 박준성 교수로 이루어진 신장내과 의료진은 연구 활동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학생 및 전공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장내과

심장내과는 1972년 의과대학 설립 당시에 내과학교실로 조직되었다. 1981년 3월, 내과학 교실이 5개의 분과로 분리되면서 순환기내과로 출범했다. 이어 1998년 3월, 명칭을 순환기내과에서 심장내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심장내과는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대동맥에서 말초혈관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혈관질환을 다룬다. 고혈압, 이상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 질환과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동맥경화, 심부전, 판막 질환,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 및 중재적 시술을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

심장내과는 순환기내과 시절인 1984년, 한양대학교병원 최초로 개소한 백남심장센터와 함께 한양대학교병원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심장내과 및 백남심장센터는 외래, 심혈관조영실 및 하이브리드 수술실, 심초음파실, 심전도실, 혈관검사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신진호 교수, 임영효 교수, 박진규 교수, 허란 교수, 김우현 교수, 국형돈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스태프진(심혈관 조영실 7명, 심초음파실 4명, 심전도실 및 혈관검사실 3명)도 함께 일하고 있다. 특히 심장내과 교수진은 활발한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심근경색을 비롯한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 질환, 고혈압과 심부전, 부정맥, 성인 선천성 심질환 및 구조 심질환 등 세분화된 분야에서 정확한 진료를 시행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심장내과는 보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심혈관 시술과 진료를 위해 2015년 본관 5층에 새롭게 심혈관 조영실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마련해 확장 이전했다. 의료설비 확충과 타 과와의 협진으로 기존의 심혈관 중재시술, 부정맥 시술에 더하여 복잡한 병변에 대한 치료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혈관외과 및 흉부외과와의 다학제 진료를 통한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대동맥판 삽입술에 대한 시술(TAVR)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 정확한 시술과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며 하루 빨리 질 높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는 혈액 및 골수 질환, 그리고 악성종양(암)을 진료하는 내과의 한 분과다. 재생불량빈혈, 혈소판감소증 등의 양성 혈액질환과 다발골수종, 백혈병, 림프종 등의 혈액 및 골수계 암질환을 진료하며 조혈모세포이식도 시행하고 있다.

혈액종양내과는 고형 장기의 악성 종양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며 암환자에게 전인적 치료를 제공한다. 임상연구 및 학생, 전공의, 개원의, 지역사회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진료의 특성상 종양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타 임상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학제 진료의 핵심 진료과로서,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와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학과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암의 완치와 치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관 21층의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혈액질환 환자에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완치를 돕고 있다.

혈액종양내과는 1972년 개원 당시 내과학교실로 조직되었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종양 질환(각종 고형암 및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과 그 외 다양한 혈액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1986년 4월 내과학교실 내에 혈액종양내과 분과를 설립했다.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이의 도움을 받으며 현재의 수준 높은 전문의와 최신 설비,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22년 현재, 고형암 항암치료 및 림프종, 다발골수종을 진료하는 박병배 교수가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을 역임하고 있고, 급성/만성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및 재발성 림프종 및 기타 혈액질환 진료, 자가/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엄지은 교수가 조혈모세포이식센터장을 맡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오석중 교수가 합류하여 고형암 및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의 혈액질환 진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해 암 연구도 함께 수행하는 등 학회 활동에서 중추 역할을 하며 학술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타 기관의 수혜자에게 이식할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을 활발히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표적치료제와 유전체 기반의 정밀의학을 추구하며 여러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질환을 담당하는 내과의 한 분과이자 진료과다.

개원과 함께 내과학교실이 개설되었으며 1973년 2월 이정희 교수가 국립의료원에서 한양대학교병원에 부임하며 호흡기내과 및 결핵과 진료가 시작되었다. 1981년, 내과를 5개 분과로 분리했는데 이때 호흡기내과 및 결핵과가 독립하여 이정희 교수가 초대과장으로 취임했다. 이정희 교수에 이어 박성수 교수, 신동호 교수가 호흡기내과에 발령받아 근무했고, 박성수 교수는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윤호주 교수는 2022년 현재 병원장으로, 손장원 교수는 내과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호흡기내과는 2014년 3월부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부 진료로 윤호주, 김상헌 교수는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손장원 교수는 중환자실과 감염성폐질환 진료를 맡고 있다. 박동원 교수는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현 교수는 기관지확장증 등 기도질환을 맡고 있다. 정승준 교수는 일반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스태프진이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다.

기관지내시경실은 기관지내시경, 초음파기관지내시경(Endobronchial Ultrasound, EBUS)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전자기유도 내비게이션 기관지내시경(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 ENB) 등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알레르기검사실은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하고자 실내외 흡입항원과 식품, 약물에 대한 피부시험과 혈액검사, 그리고 유발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결핵상담실에서는 민간-공공협력(Private-Public Mix, PPM) 결핵전담간호사가 결핵환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며 관리하고 있다. 외래의 전담 설명간호사는 천식 등의 만성질환 질병교육을 하고 흡입기 사용법 교육과 평가, 리플릿과 동영상 등의 환자 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본과는 매일 엑스레이 컨퍼런스(X-ray conference)와 격주로 흉부 컨퍼런스(chest conference)를 운영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임상과가 모여 증례를 토의하고 환자중심의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폐암 진료를 위하여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 환자의 마취 관리와 수술 전 환자 평가, 수술 후 진통 조절을 담당한다. 또 통증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만성 통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고위험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혈관조영실, 신생아중환자실, 심혈관촬영실과 하이브리드수술실 등 수술실 외 환자의 수술과 시술을 위한 마취와 진정을 담당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시 마취과로 시작했고, 2002년 3월 마취통증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22년 현재는 총 6명의 전임교원과 3명의 임상교원, 임상강사 1명, 전임의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통한 진료와 연구, 교육에 매진하며 타과 전문의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환자 관리와 모니터링 기기 및 인공호흡기는 전종헌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김동원 교수는 뇌신경 마취를 맡고 있다. 정미애 교수는 소아마취 및 의료기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규남 교수는 이식 마취 및 메타 분석 연구를 맡고 있다.

김유진 교수는 뇌신경 마취 및 수술 후 섬망과 관련한 뇌파분석을 담당하며 임현영 교수는 산과마취, 기도관리 및 부위마취를 맡고 있다. 김수연 교수는 심폐혈관마취, 뇌파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교수들의 활발한 대외활동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종헌 교수는 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김동원 교수는 전 마취통증의학회 수련교육이사/홍보이사를 역임하고 현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 보건복지부 교육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미애 교수는 전 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고시위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규남 교수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고시위원, 학술위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서울지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6년 4월, 개심술 마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심장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4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이식과 폐이식을 준비하는 단계다. 또한 1977년 4월 신장이식 마취를 시작으로 1998년 사체간이식이 처음 시행되었고, 2015년 3월부터는 생체간이식 마취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1973년, 본관 5층에 개설되었던 통증클리닉은 1998년 5월, 류마티스병원 내에 통증클리닉 외래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급성, 만성 통증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담당하는 과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 요법과 더불어 3대 암 치료방법 중 하나다.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학분야 중 하나로, 암 정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초기에는 방사선치료 시설이 없어 타 병원으로 암 환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79년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했다.

1979년 신관 준공과 함께 코발트-60 원격 방사선 치료기,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TAO applicator를 도입하여 Cs-137 밀봉선원을 이용한 강내치료를 준비했고, 1979년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의 지원으로 본과가 문을 열었다.

초대 방사선치료 담당 교수로 김정진 교수, 치료 담당 방사선사는 김병욱 기사장이 내정되어 본격적으로 치료방사선과 개설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5년 이명자 교수, 1989년 전하정 교수, 2014년 박혜진 교수가 방사선종양학과에 임용되어 방사선치료에 임하고 있다.

1983년 도시바사의 시뮬레이터를 시작으로 1986년 Hyperthermia system, 1987년 Mevatron KD Linear Accelerator, Computer Planning System(Mevaplan), Dosimetry System(Wellhofer)를 도입해 제 2의 도약을 했다. 이후 2014년에는 Primus Linear Accelerator를 베리언사의 Novalis TX Linear Accelerator로 뉴클레트론사의 simulux Simulator는 필립스사의 Brilliance Big Bore(16 Slice) CT Simulator로 교체하여 현재까지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노발리스 티엑스 치료기는 ARIA로 불리는 인터페이스로 Eclipse Planning System, I-Plan (Brain SRS Plan)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Robot Couch System인 브레인랩사의 Exactrac은 6D Motion(상하좌우에 이어 Tilting까지)이 가능한 Treatment Table이며, 실시간 환자 위치 관리 시스템(Real time patient Positioning Management System)이다. 아울러 Gating(RPM)System, Portal Vision, On-Board Imager(CBCT)을 이용하여 2D, 3D-CRT, IMRT(VMAT), IGRT, SBRT, SRS 등 다양한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노발리스센터는 2014년 6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3,05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오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교수, 박혜진 교수,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 한명훈 교수 등이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



병리과

병리과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형태학적, 기능적 변화를 탐색하고 질병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다양한 질병에 최종 병리학적 진단을 내린다.

병리 진단업무는 조직검사, 세포검사, 면역조직화학검사, 면역형광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으로 나뉘며 여러 전공 교수진과 전공의, 병리 팀원들이 참여해 수행하고 있다.

진료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 및 임상병리학적 연계 연구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적용과 맞춤형 환자 치료를 위한 AI기반 신기술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병리과는 기본 역할인 조직병리 및 세포병리 진단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분자병리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현재는 2명의 전담병리사가 다양한 유전자증폭검사를 이용한 분자병리 진단, 표적치료관련 유전자변이검사, 유전자재배열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등 분자병리 검사를 원내에서 직접 진행해 보다 효율적인 환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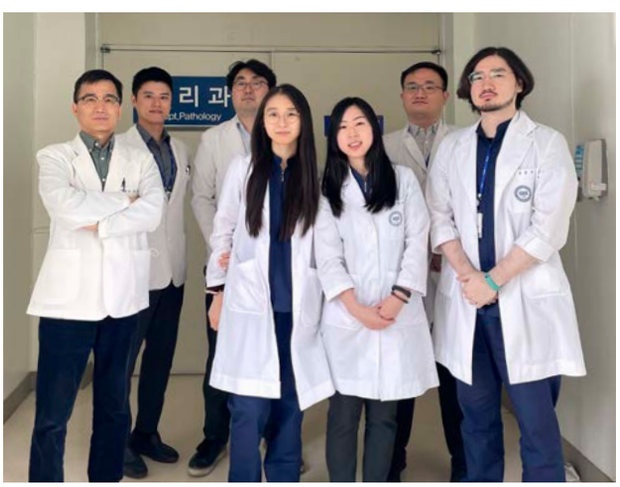
병리과에는 모든 환자의 검체가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보관된 검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이용한 연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위해 최근에 Tissue microarray를 이용한 연구조직 미세배열 은행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병리과는 백승삼 교수, 명재경 부교수, 김현성 조교수, 박호섭 임상전문교수 4명의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백승삼 교수는 소화기병리, 피부병리, 골병리를 담당하고 명재경 교수는 신경병리, 두경부병리, 폐병리를 맡고 있다.

김현성 교수는 신장병리와 혈액종양병리를 담당하며 박호섭 교수는 유방병리와 전립선병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세포병리를 공통으로 전공하고 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명재경 교수, 김현성 교수, 박호섭 교수는 분자병리 검사실의 병리진단에 있어 유전자증폭검사를 이용한 병리진단, 표적치료제를 위한 특정 유전자 변이여부 검사 및 NGS분석 등 다양한 분자병리 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4년차 지승윤, 2년차 손황규, 1년차 차혜빈 등 전공의 3명으로 구성되었다. 임상병리사 12명, 행정부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리과의 모든 교수는 꾸준하게 연구와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참여한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AI기술을 이용한 암진단 기술개발 컨소시엄 결과에 따라 병리과 암진단 AI연구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비뇨기종양, 남성의학, 배뇨장애 및 여성비뇨기학, 소아비뇨기학, 내비뇨기학, 신장이식 및 요로재건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김용태 교수, 박성열 교수, 윤영은 교수, 조정기 교수 등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김용태 교수는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요석, 비뇨기종양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박성열 교수는 비뇨기종양학, 비뇨기 복강경수술, 비뇨기 로봇수술, 소아 비뇨기과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영은 교수는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비뇨내시경수술,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 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 비대증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조정기 교수는 비뇨기 종양학, 로봇 및 복강경 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을 담당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최소침습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소 절개 및 복강경을 이용한 비뇨기계 질병 치료와 결석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5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도입했으며 1996년에 복강경수술을 도입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신장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결과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해 복강경 수술이 보급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7년에는 개복 전립선적출술과 복강경 전립선적출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수술법인 '복강경 보조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개발했다. 이어 2008년부터 다빈치 로봇을 도입해 전립선암이나 신장암을 비롯한 여러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과거에는 신장암 환자에게 신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지만,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병기에 따라 건강한 신장 부위는 남기면서 신부분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립선암도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확대된 3차원 시야에서 안전하고 출혈도 적으며 수술 후 합병증도 적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전립선질환과 비뇨기 종양, 배뇨장애, 여성비뇨기질환의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뇨기과는 이러한 질환의 치료 자체에만 치중하기보다, 수술 후 환자 삶의 질을 위한 기능 보존과 회복에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

그와 관련된 한 예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비뇨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매년 한 번씩 '전립선 친우회'를 개최한다. 또한 비뇨기과는 무료 검진 및 강의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의 관리를 받도록 이끌고 있으며, 검진을 통한 조기 암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부인과

1972년 개원과 함께 산부인과도 행보를 시작했다. 초기에 송상환 교수와 김두상 교수가 산부인과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문형, 황윤영, 김경태, 조삼현, 박문일 교수 등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22년 현재 황정혜 교수가 불임 및 내분비질환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정규 교수는 고위험임신 및 습관성유산의 진료와 더불어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및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중섭 교수는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난이도 높은 부인과 내시경 수술을 집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임상결과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또한 배재만 교수는 암 생존자 클리닉을 개설해 암을 극복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2019년 이원무 교수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에서 난소암 수술의 최대종양 감축술과 부인암 환자의 로봇 수술에 대한 장기연수를 마치고 귀원해 부인종양 수술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접목하며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산부인과는 교수진의 보강, 전문의 양성을 지속하며 주산기학, 생식내분비학, 부인종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94년 단일 병원 최초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시작했는데, 이후 각 병원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산부인과 연수강좌를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6년에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광범위 전자궁적출술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가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SCI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았던 저널인 국제학술지 부인종양학 저널(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되면서 자궁경부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2011년 최중섭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내시경학회의 상임 이사(Board of Trustees)로 당선되며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산부인과 내시경 수술 분야도 국내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시경 수술이 힘든 증례의 환자들에게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환자를 의뢰하는 병원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다빈치 로봇 수술을 위주로 한 내시경 수술 분야의 환자를 확보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부인암 환자도 유치해 진료와 연구 활동을 활발히 가질 계획이다. 유능한 임상교원의 중개 연구, 메타분석, 빅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와 공동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개원과 동시에 일반외과의 특수분야로서 진료를 개시했다. 당시 한국에서 성형외과학은 초기 정착 단계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개원 초부터 진료를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성형외과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피부와 근골격에 결손이나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와 기능을 개선해주는 외과다. 구체적으로 두개골 조기유합증, 구순, 구개열과 같은 선천성기형을 치료한다. 이와 함께 안면골절 등 외상, 수부 및 하지손상과 선천기형 교정, 피부암, 두경부암 및 유방암 등 종양수술 이후 결손부 재건도 담당하고 있다.

성형외과는 개설 이후 화상 및 두안면부 기형, 안면골 손상 치료에 특별한 업적과 명성을 얻었다. 개원 이듬해인 1973년, 일반외과의 한 분야가 아닌 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다. 이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이후 미세재건수술로 국내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성형외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상위 의료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는 현재 총 다섯 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영만 교수는 두경부 종양 및 연부조직 종양, 욕창 및 만성창상, 안면부 외상, 수부손상, 선천성기형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김연환 교수는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욕창 분야를 맡고 있다.

박성오 교수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림프부종, 허혈성수지(레이노현상), 흉터 및 켈로이드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장란숙 교수는 소아성형, 화상, 미세수술, 만성창상, 액취증 분야를 맡고 있다. 민경현 교수는 유방 재건 및 성형, 만성 창상 피부 및 연부 조직 종양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김연환, 장란숙 교수는 골수염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개설된 골수염 클리닉에서 정형외과 황규태 교수, 영상의학과 송순영, 이승훈, 김여주 교수, 핵의학과 이수진 교수과 다학제팀을 구성해 원스톱 진단 및 연부조직 재건 등의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염 및 외상, 종양, 수부 사지 재건, 미용, 선천기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진료를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사지 재건, 미세 수술 분야에서 국내외를 선도하고 있다.

1978년 병원 설립 초기 류재만 교수는 일란성 쌍생아의 동종피부이식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류 교수는 12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및 21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는 1972년 개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대 주임교수이자 과장 박종무 교수는 국내 소아과를 이끈 선두 의학자로 하버드 의대에서 공중보건학을 연구했다. 모자보건의 중요성에 관한 개념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육아 상담실을 열었다.

제2대 주임교수 및 과장인 이근수 교수는 소화기학을 담당했고, 제3대 주임교수 및 과장인 이항 교수는 1984년에 미국 시카고대학병원 소아혈액종양학 과장으로 재임하다 본원으로 와서 소아혈액종양학을 담당하며 수많은 소아혈액암질환 환아들을 치료했다. 제4대 주임교수 및 과장 문수지 교수는 신생아학을 맡아 신생아중환자실을 설립해 미숙아 및 중증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다.

제5대 주임교수 및 과장 이하백 교수는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을 담당했다.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고자 범국가적 모유수유 홍보에 힘을 쏟으며 대한모유수유의학회를 설립했다. 제6대 주임교수 및 과장은 신경분과 설인준 교수였고, 제7대 주임교수 및 과장 신재훈 교수는 내분비학과 유전학을 담당했으며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성장클리닉을 운영했다.

제8대 주임교수 및 과장 오성희 교수는 소아감염학을 담당했다. 제9대 주임교수 및 과장인 김남수 교수는 심장학을 담당했다. 세계 각국에서 진료봉사를 하면서 선천성심질환 환아들이 본원에서 수술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22년 현재 소아혈액종양학분과의 이영호 교수(현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가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세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소아소화기영양학과는 김용주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들에게 내시경술을 시행하고 간 조직검사 등 다양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내분비분과 및 소아유전학은 양승 교수가 담당하며 다양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다. 신생아분과는 박현경 교수, 이현주 교수, 안자혜 임상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아심장분과는 나재윤 임상교수가 담당하며 소아 심혈관질환을 진료하고있다.

각각의 전문 분과 과목에 따른 특화된 진료가 가능하여, 증상 및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맞춤화된 진료를 시행한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상급병원에 상응하는 설비로 주변 소아청소년과 및 산과 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과

신경과는 각 세부 분야별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승현 교수는 미국 휴스턴 베일러 의대에서 퇴행성 신경질환(루게릭병, 치매)을 연수했고, 현재 말초신경질환 및 루게릭병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희태 교수는 영국 런던의 퀸 스퀘어 신경학 연구소에서 연수했다. 파킨슨병과 운동질환 환자를 위한 최신 이론과 선진 치료 기술을 습득하여 파킨슨 클리닉에서 다양한 환자의 진료에 힘쓰고 있다. 김현영 교수와 김영서 교수는 뇌졸중 클리닉을 운영하며 뇌혈관 중재치료를 포함한 급성기 뇌졸중 치료와 예방치료를 담당한다.

김희진 교수는 치매 및 인지기능 클리닉을 운영하며 개인형, 맞춤형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오기욱 교수는 근신경계 질환,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계질환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박진석 교수는 뇌전증,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맡고 있다. 이상곤 교수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근육질환, 신경계 자가면역질환과 뇌신경계 감염증을 담당하며 성원재 교수 외 신경과 교수진은 세부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임상 진료와 왕성한 학회활동에 힘쓰고 있다.

신경과는 2009년부터 뇌졸중 클리닉을 운영해왔고, 2010년 이후 뇌졸중 평가 1등급을 줄곧 유지했다. 2013년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대한뇌졸중학회의 인준을 획득했다. 2016년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확장하며 2019년에 뇌졸중 센터로 인증을 받았다. 2022년에는 뇌졸중의 급성기 재관류치료에 대한 인준을 받으면서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인증받았다.

치매 및 인지기능 클리닉의 전문화된 의료진과 연구진은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의학, 영상의학, 핵의학과와 연계한 전인적인 치료에 힘쓰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동구 치매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에 관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치매극복 과제와 미래부 산하 뇌원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퇴행성 질환과 난치성 신경질환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세포치료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어 2010년 5월 보건복지부지정 병원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로 발전했다.



신경외과

신경외과는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창설되었으며, 1973년 6월부터 신경외과 진료와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했다. 2022년 현재 신경외과 외래, 수술실, 외과계 중환자실, 뇌혈관조영실, 노발리스 티엑스 방사선 수술실로 운영되고 있다.

정환영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여러 교수들이 역임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6명의 교수가 근무 중이다.

정위기능 분야는 김영수 교수가 담당하며 척추 분야는 백광흠 교수와 전형준 교수가 맡고 있다. 뇌혈관 분야는 이형중 교수와 최규선 교수, 뇌종양 분야는 나민균 교수가 맡고 있다.

김영수 교수는 2008년 대한의료로봇학회 이사장, 2014년 아시아로봇수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신경외과 영역에서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기여했다.

백광흠 교수는 2014년 대한척추종양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척추종양 발전을 선도했다. 이형중 교수는 진료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수련교육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병원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형준 교수와 최규선 교수와 나민균 교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경외과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척추수술과 미세수술 부문에 남다른 관심을 두었던 정환영 교수는 1978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198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7년 대한척추신경외과연구회를 창설해 4년간 회장을 맡으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1983년 5월 부임한 오석전 교수는 2001년 대한 뇌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8년 대한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내학회 최초로 영문 발표를 도입하는 등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의 위상을 제고했다. 2013년 세계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수석부회장이 되어 국외적으로 한양대학교를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

고용 교수는 1994년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조해동 교수를 만나 미세침습수술 분야의 의술을 연마했다. 두 교수는 1996년 세계 최초로 내시경을 이용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 방법에 관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뇌종양 수술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두개저 뇌종양 수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안과

1972년 개원과 함께 안과학교실이 출발해 197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하고 현재까지 100여 명의 안과전문의를 양성했다.

현재 임한웅 교수가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성준 교수가 망막 및 유리체, 포도막염 분야를 맡고 있다. 이원준 교수는 녹내장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유정 교수는 각막과 전안부 분야를 맡고 있다.

2004년에 망막 및 시신경검사 장비인 OCT를 처음 도입했고 지속적인 장비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는 파장가변 OCT를 조기 도입해 사용 중이다. 듀얼 샤임플러그 각막지형도, 최첨단 OCT 및 OCT angiography 장비, 광각 안저촬영기, 형광안저촬영기, LED 기반 공초점 시신경촬영기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체계적인 검사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단 장비뿐만 아니라 2021년 눈꺼풀염의 최신 치료장비인 Intense Pulsed Light(IPL)를 도입해 건성안과 눈꺼풀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안과 수술실에 최신 수술현미경과 백내장 및 망막 수술장비를 도입했으며, 숙련된 의료진을 갖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백내장 수술 시 통원 수술 시스템을 적용해 외래 근거의 진료 시스템을 확립했다.

2017년부터는 류마티스안과를 개설해 류마티스내과와 다학제 진료를 시행 중이다. 눈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도 계획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간호 파트에는 박미연, 김현정 간호사 및 윤혜경, 오선희, 권지영 서무원이 일하고 있고 검사실은 고원석, 최재원, 김진영 기사가 맡고 있다. 안과 수술실에는 안과 수술 전문간호사인 차은영 간호사 등이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래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안과에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원활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충제 초대 주임교수는 대한안과학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양대병원 안과학교실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최준규 교수는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고명규 교수는 안병리에 있어 독보적인 연구를 보였는데,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영국안과학회지〉의 표지사진으로 논문이 게재되었다. 엄기방 교수는 녹내장 연구를, 이병로 교수는 망막질환 연구로 다수 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으며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영상의학과

1972년 개원시 방사선과학교실로 시작한 영상의학과는 2003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하였으며 흉부, 심혈관, 복부, 비뇨생식계, 신경두경부, 신경중재,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 인터벤션 등 총 16명의 세부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총 8명의 전공의가 근무하며 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흉부 영상의학은 최요원 교수가 주축이 되어 유승진 임상조교수, 백상현 임상전문교수, 전석철 명예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유승진 임상조교수는 기존 폐 중심의 흉부 영상의학뿐 아니라 심장영상으로도 판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중재적 시술(인터벤션)은 송순영 교수가 담당하고 김정은 임상전문교수와 함께 활발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부/비뇨생식계 영상의학은 강보경 조교수, 김미미 조교수, 이철민 임상조교수, 고병희 명예교수가 담당하며 영상판독과 초음파, 초음파 유도하 생검을 시행하고 있다.

신경두경부영상과 신경과/신경외과의 척추영상은 이영준 교수와 정소영 임상조교수가 맡고 있으며 이영준교수는 신경계 혈관질환의 중재적 시술및 치료를 겸하고 있다. 유방 및 갑상선 영상의 판독, 초음파 및 시술은 박정선 교수가, 근골격 및 척추영상의 판독과 시술은 이승훈 교수와 김여주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외 유수 SCI, SCIE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강석린 초대 주임교수는 한양대학교 방사선과학 교실 창설, 대한 방사선의학회 제 16대 회장 및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함창곡 명예교수는 대한 초음파의학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방사선의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최근 10년간은 최요원 교수가 2013, 2014년에 흉부영상의학회장을 역임했고 2021년에는 이승훈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의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영상의학과 촬영팀은 2022년 현재 팀장 박종국 방사선사를 포함 방사선사 52명, 간호사 5명, 사무·서무직 6명 총 63명의 직원이 25개 촬영실과 36대의 검사장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MDCT, 3T MR, US, DR, 3D digital tomosynthesis와 같은 최첨단 영상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검사실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긴밀히 협력하여 진료과를 보조하는 한편, 영상의 품질관리에도 힘써 매년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외과

외과는 개원과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의 편의와 치료의 효율성을 위해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등 최고 수준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각 세부분야별로 최첨단수술 기법인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수술 성과를 내고 있다.

개원 당시 이용우 선생이 초대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김근호 교수, 전규영 조교수, 전공의 3명(지행옥, 조무식, 김영태)과 함께 교실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2년 현재 상부위장관 외과에 하태경, 이주희 교수, 하부위장관 외과에 이강홍, 안병규 교수, 간담췌외과에 이경근, 최동호, 정윤경, 김경식, 임진혁 교수, 유방 및 내분비외과에 정민성, 차치환 교수, 이식 혈관외과에 권오정, 최지윤 교수, 소아외과에 손준혁 교수가 진료를 하고 있으며 1년차 전공의(고현석)가 수련을 받고 있다. 또한 병동 전담전문간호사 6명(정금화, 전현정, 오수민, 이서현, 이한별, 이한솔), 수술실 전담전문간호사 4명(김선우, 김종찬, 주호성, 고찬영)이 있다.

1978년 곽진영 교수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이식혈관외과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당시 국내 미개척 분야인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시작했다.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뇌사자 신장이식을 내과의 박한철 교수, 비뇨기과의 김동한 교수, 외과의 김용일 조교수와 팀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979년에는 영국 Sheffield, Liverpool의 Alder Hey 및 Great Ormond Street 아동병원에서 소아외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정풍만 교수가 9월부터 소아외과 환자를 독립된 분과로 진료하기 시작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였으며, 1994년에는 장폐색으로 소화흡수를 못 하는 단장증후군 아기의 장 길이를 2배로 늘리는 수술도 국내 최초로 시도해 성공하였다.

간담췌외과에서는 1984년 독일 본 대학에서 간이식을 연수한 이광수 교수가 1994년 뇌사자 다장기적출과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3년 최동호 교수가 부임하여 다소 침체되어 있던 간이식의 활성을 위해 간이식 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진행했다. 2015년 3월 7일 첫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2015년 5월 13일 간이식 2례 성공 발표회 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1992년 일본 국립암센터 위암 외과에서 연수 후 귀국한 권성준 교수는 위암에 대한 최소 침습 수술 등 활발한 위절제술을 시행하여 2019년 위암 3,000례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는 1997년 3월 개설 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서울시 동남권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1위를 차지 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17병상) 을 포함하여 응급실(34병상), 응급중환자실 (20병상), 응급병동(30병상) 운영과 실무를 맡고 있다. 또한, 병원 내 심정지 발생을 감시하고 예측을 통해 생존률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분류담당 전문가가 한국형 응급 환자중증도 분류체계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내원한 환자일 경우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신속협진체계와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해당 과와 함께 시간 내 올바르고 정확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응급실 내 다양한 응급 질환의 진단/치료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심정지 후 통합 치료, 다양한 중독, 환경 손상 환자의 중환자 입원 환자들에게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 고압산소치료 등의 다양하고 고난이도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초기 일반외과 정파종 교수가 초대 과장으로 임명되어 전반적인 틀을 마련했다. 1998년 3월, 배성만 교수가 전임의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3월 장순봉 선생이 응급의학과 첫 전공의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는 임태호(2001년), 강형구(2007년), 오재훈(2015년), 고벽성(2018년), 와 조용일(2020년) 등 5 명의 전임 교수와 원태영, 이준철 그리고 배준원 3명의 임상교수가 진료,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어 응급의료체계, 소생의학, 임상중독학, 중환자의학, 재난의학, 쇼크 분야 등 응급의학 세부 분야 뿐만아니라, 의료 장비 개발, 의학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메타/건강보험자료 등 빅데이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주요한 국가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구급대원, 지역사회 교육에도 열정을 쏟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기반의 체계적인 실습 교육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다. 크게 이과학, 비과학, 두경부외과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8년에는 청력, 전정기능검사실을 확대 리모델링하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외래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김경래 교수는 1988년 8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21년 2월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부비동내시경수술과 부비동의 병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했다.

태경 교수는 1994년 3월 한양대학교병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2007년 2월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전보되어 2022년 현재까지 두경부외과분야 진료를 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에서 두경부외과학을 연수했다. 2014년 1월 제18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으로서 취임하며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의 위상을 높였다.

조석현 교수는 2002년 부임한 후 현재까지 비과학, 알레르기 비염, 소아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년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과학을 연수했으며 최근에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송창면 교수는 2012년 3월 두경부외과학 임상강사로 부임 후 현재까지 두경부 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에 있다.

변하영 교수는 2017년 3월 구리병원 임상조교수로 부임 후, 2018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이과학을 맡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2004년부터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와 공동으로 매년 갑상선 연수회를 개최하여 갑상선 수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적인 갑상선 수술의 권위자들과 함께 APTS(아시아-태평양 갑상선외과학회)를 창립하여 갑상선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1년 5월 1일 갑상선·두경부종양센터가 개설되며 암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성형외과 등 여러 과와의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암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7월 27일 세계 두경부암의 날에는 일반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강연 및 무료 검진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는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성마비, 척수손상, 측삭경화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다루며, 근골격계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를 한다. 재활치료실과 협력하여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사지 마비, 언어, 연하, 호흡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재활 치료 하는 맞춤형 전문 치료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로봇 재활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근전도검사실은 다양한 신경-근육계 증상의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음파검사실은 근골격, 신경계에 대한 해부학적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미숙아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지닌 소아환자에게는 소아치료실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소아 재활 평가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투시촬영실과의 협력으로, 비디오투시연하검사와 다양한 통증 중재 시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8명의 전공의가 일하고 있으며 박시복 교수가 족부 질환 및 류마티스 질환의 재활을 담당한다. 김미정 교수는 로봇 재활 치료를 포함한 뇌신경재활과 소아재활, 스포츠의학을 중점으로 진료한다. 이규훈 교수는 뇌신경재활과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을 맡고 있다. 재활치료실은 윤성익 실장을 필두로 운동치료실(이덕성, 정연재, 김준철), 작업치료실(김형선, 김원철, 박은지), 언어치료실(오승한), 소아치료실(최은혜, 엄장수), 물리치료실(정신호, 황운택, 성기욱)로 구성되어 있다. 8명의 인턴 치료사와 의료진이 협력해 통합적인 전문 재활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

초대 이강목 교수는 미국 뉴욕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국내 의학계에 재활의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을 도입하고 정착시켰다. 1998년 12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국내 재활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98년 류마티스병원 개원 당시, 박시복 교수가 류마티스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03년 관절재활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3월 병원시설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실 및 재활치료실이 동관 류마티스병원 5층으로 이전했다. 이를 계기로 운동, 작업, 물리 및 소아 치료실의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고 일상생활 동작치료실도 새롭게 개설했다. 환자들이 좀 더 쾌적하고 원활하게 진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1972년 개원과 함께 신경정신과로 개설되었다. 정신과에 대한 대중과 사회의 편견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여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스트레스 질환 분야는 김석현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중독 질환(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분야는 노성원 교수가 맡고 있다. 조현병, 양극성장애(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분야는 이건석 교수가 진료하고 있다.

소아/성인 ADHD, 틱장애, 발달지연, 발달장애, 청소년 우울증, 학교 스트레스, 가족문제 등 소아청소년 트라우마 분야는 김인향 교수가 진료하고 있다. 우울증, 노인정신질환, 불면증 분야는 김혜원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심리평가, 심리치료 분야는 김소정 교수가 맡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진은 진료뿐 아니라 학회활동과 연구에도 꾸준히 임하고 있다.

더불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임상심리사, 외래 및 병동 간호사, 발달센터 치료사가 함께 일하며 여러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의 의학계열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연구소다. 1971년 5월 뇌신경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고, 1982년 정신건강연구소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운영해왔고, 〈정신건강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 진성기 교수가 초대소장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정신건강연구소로 바뀐 후 김광일, 김이영, 양병환, 김재환, 안동현 교수가 소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노성원 교수가 소장직을 맡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뿐 아니라 경두개자기자극술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동 내에서는 집단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폭넓은 치료프로그램이 이뤄진다.

또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인향 교수)와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건석 교수)를 위탁 운영하며 전공의를 파견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활발히 해내고 있다.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1972년 개원과 동시에 진료를 시작했다. 초대 과장으로 김광회 교수가 임명되어 근골격계질환 진료와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다. 개원 당시에는 2명의 교수와 2명의 수련의로 시작했으나, 이듬해에 교수 5명,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9명의 수련의가 교육받는 명실상부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의 면모를 갖추었다. 정형외과는 현재 교수 10명, 전임의 3명, 전공의 12명, 석고치료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충혁 교수는 Hospital for special surgery과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연수받았으며, 인공 슬관절 치환술 및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성일훈 교수 또한 족부외과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하던 1990년대 말에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서 족부외과학을 연수했다. 류마티스성 족부질환 및 족부 외상 분야에서 많은 연구 및 높은 진료 실적을 내고 있다.

강창남 교수는 2008년 미국 Twin cities spine center에서 연수했으며, 퇴행성 척추 질환과 척추 변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봉근 교수는 2010년부터 한양대학병원에서 어깨 관절경 분야를 맡아 최신 수술기법을 도입해 진료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연수했으며, 관절의 생역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이석 교수는 2009년부터 근무하면서 고관절 외상 및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쌓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연수했다. 황규태 교수는 외상학 분야, 그중에서도 다발성 외상 및 중증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의과대학에서 연수했다.

이진규 교수는 스포츠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한편, 올림픽 선수단 주치의로 대외 활동을 하며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이창훈 교수는 수부 외상 및 질환, 변형의 진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최성훈 교수는 척추 중에서도 특히 경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심각한 척추 외상, 중증 척추 질환과 같은 고난이 수술과 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배근형 교수는 소아 분야 전문의로서 소아 근골격계 외상 및 질환과 골관절종양학에서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토대로 진료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용민 실장은 간호사 출신으로 석고 붕대 고정술, 석고 부목, 보조기 등 다양한 석고 치료 분야를 담당하며, 중증 외상 수술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는 1991년 산업보건센터로 출발해 2000년 정규 임상과(임상교실)인 산업의학과를 개설했다. 2011년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진료과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검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일반검진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검진센터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수행하며 보건관리전문팀과 작업환경측정팀은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 건강관리와 사업장의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기획, 제안, 자문하고 있다.

건강검진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인간공학요인, 직무 스트레스 등 직업적으로 유해 환경에 놓인 노동자(특수검진) 2만 명, 일반 직장(일반검진) 노동자 1만 7,000명, 기타 연구종사자 등 2,0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64개 사업장의 1만 명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작업환경팀은 7만 5,000명이 근무하는 240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직업환경의학과는 2명의 교수(송재철, 이수진)와 연차별 1명의 전공의(김양우, 한지영, 이수연, 우승희), 검진팀(이운정, 임은진, 김주영, 김주영, 임태은, 이세진), 보건관리대행팀(신수일, 강미경, 이경영, 정태성), 작업환경측정팀(심상효, 심종운, 임창훈, 이선주), 행정팀(금응연, 유혜경) 등의 21명 직원이 지역사회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팀워크와 실력을 자랑할 만큼 성장했다.

관리 및 정책분야에 있어서 직업병인정기준, 산재보상정책 및 농어업인의 질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것도 중요한 실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관련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의 조사방법과 인정기준을 정착시켰고, 고객응대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든 것도 의미 있는 업적이다. 직업보건(또는 산업보건) 제도권에서 소외된 농업인, 어업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등의 건강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새집증후군 클리닉을 개설하기도 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임상화학, 진단혈액학, 진단면역학, 임상미생물학, 수혈의학, 진단유전학 6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개원과 더불어 본관 3층에 개설되었다. 초대 과장을 김기홍 교수가 역임했고, 이후에 박승함, 김춘원, 최태열, 김신규, 이웅수, 김덕언 교수가 과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이양순 교수가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덕언 교수는 임상화학과 혈액은행파트를 담당하며 희귀혈액을 연구했다. 전래희 교수는 진단면역 파트를 담당하며,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양순 교수는 과장직을 맡으며 검사실의 운영과 임상미생물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세균의 항균제 내성과 역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김영은 교수는 진단유전파트를 맡으며 유전학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혜 교수는 진단혈액학 파트를 담당하며 혈액암 관련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웅수 교수와 안명희 교수는 임상교수로 각각 진단혈액학과 기생충질환 진단에 기여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1972년 초대 기사장으로 이주섭 임상병리사가 재직했고, 이후 김대근, 김태진, 이귀순, 오재혁 임상병리사가 업무를 이어 받았다. 현재는 강대혁 임상병리사가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6개 세부 파트와 외래채혈실에 각각 파트장을 두어 7명의 파트장이 조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팀원 39명과 서무원 5명이 함께 최선을 다해 검사실 운영을 돕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은 1999년부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의 검사실 신임인증제도에 참여해 우수검사실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1977년부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임상검사외부정도관리사업에 참여해 수탁기관인증을 받았다. 또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참가해 우수유전자검사실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의 자가면역 특수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첨단 검사실 환경과 신속하고 정확한 주요 검사를 시행하며 환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세부 전공 교수진이 상근하며, 전공의와 함께 검사 결과의 검증 및 판독, 임상자문,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1만 4,000여 종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검사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치과

치과는 1972년 개원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주과로 세분화되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과 턱, 안면 부위에 발생하는 감염, 손상, 기형 및 종양 등의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외과적 치료를 통해 심미적 복원 및 기능적 회복을 추구한다. 치과보철과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의 결손에 대해 보철물을 통해 수복하여 심미적 복원 및 기능적 회복을 추구한다.

치과교정과는 두개안면부의 성장발육, 부정교합과 기타 치아, 턱, 안면의 이상을 예방하며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치주과에서는 치아를 지지하는 치아 주위조직을 연구하고 치주질환의 원인, 진행,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치과보존과는 치아경조직 및 치수, 치근단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통해 치아의 형태, 기능, 심미성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명예교수인 심광섭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침샘(타액선)질환, 쇼그렌질환,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및 구강 내 소수술 분야는 황경균 교수가 맡고 있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양악수술, 치과 진정법, 턱관절 장애 및 구강악안면영역 병소 제거 분야는 박창주 교수는 담당하고 있다.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를 하는 치주과는 한지영 교수는 맡고 있으며 심미 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 미백을 하는 치과보존과는 정혜전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틀니, 브릿지, 크라운 등을 하는 치과보철과를 인희진 교수가 맡고 있으며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성장기 교정, 성인교정을 하는 치과교정과는 임승원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4명(3년차 최혁, 2년차 서진원, 정원준, 1년차 박대호)과 보존과 전공의 1명(1년차 김지은), 인턴 2명(김우섭, 이원우)이 수련받고 있다.

1981년 9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 치과학전공을 개설했는데, 국내 최초 의과대학 내 치과학전공 개설로 그 의미가 크다.

2013년 3월에는 동문 위주의 연구모임인 한양치의학연구회를 발족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양치의학 심포지엄은 깊이 있고 뛰어난 강의로 매년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2021년부터는 치과보존과 정혜전 임상교수, 치과교정과 임승원 임상교수, 치과보철과 인희진 임상교수를 임용해 더욱 발전하는 치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부과

피부과학교실은 한양대병원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72년 개원과 함께 피부과학교실이 창립되어 피부과 개설 후 피부과 진료를 시작했다.

1989년 정년 퇴임한 김중환 교수는 뉴욕의대, 괴테의대에서 피부병리, 성병학 분야를 전공했고 피부과 의국 창설 및 학술 활동을 주도했다. 또한 1980년 대한피부과학회 회장 및 성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정년 퇴임한 이창우 교수는 1981년부터 재직하며 자가면역 피부질환 분야를 선도했다. 또한 위스콘신의대 연수 경험과 다수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자가면역 피부질환 도서를 집필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일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 정년 퇴임한 김재홍 교수는 1983년부터 재직했으며, 네브라스카대학과 테네시대학에서 피부병리 분야를 수학했다. 2000년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91년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제3부원장, 제2부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정년 퇴임한 노영석 교수는 한국형 여드름 중등도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했고, 국내외 학술지에 1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2013년 한양대학교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여 대학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피부과는 2013년 피부과 외래를 리모델링하며 확장했고,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고강도 초점초음파 치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장비인 울쎄라를 도입했다.

2022년 현재 서관 5층 피부과 외래에 2개의 진료실, 2개의 레이저실, 2개의 치료실, 1개의 광선치료실, 피부관리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류마티스내과와 협의진료를 하며, 전신홍반루푸스, 피부근염, 피부경화증 등의 결합조직 질환 및 건선과 건선관절염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자가면역 류마티스-피부질환의 치료와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22년 현재는 3명의 교수와 1명의 임상강사 및 7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다. 고주연 교수는 2007년부터 재직 중이며, 알레르기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피부병리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임교수로 피부과학교실 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정은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재직 중이며 건선, 색소질환, 백반증, 색소 레이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숙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재직중이며 피부소양증, 두드러기, 노인피부질환 및 흉터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핵의학과

핵의학과는 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우리 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 하고 평가, 치료하는 최첨단 의학 분야다.

핵의학과는 펫시티(PET-CT),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기(SPECT-CT) 장비를 이용한 체내영상검사와 체외검체검사,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미량 물질을 방사성동위원소로 정밀 측정하여 질병의 유무와 정도, 치료 경과 과정을 관찰하는 매우 정교한 검사방법인 체외검체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핵의학과는 1972년도 본원 설립 당시에 동위원소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초대 동위원소실은 내과 장고창 교수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맡았다.

이후 1981년부터 2년 6개월간 한양대학교병원 내과학 교실이 5개의 분과로 나뉠 당시 일반 내과 과장이었던 김목현 교수가 동위원소실을 담당하며 핵의학 체내 검사뿐만 아니라 체외 검사 확립에도 힘썼고,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조석신 교수가 동위원소실장을 역임하였다. 김목현 교수는 1994년부터 2년간 대한핵의학회장으로 재임하며 핵의학과 전문의 제도 신설에 주력해 1995년도에 그 결실을 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995년에 핵의학이 전문과목으로 신설되면서 1997년에 병원 내 25개 진료 과목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이후 최윤영 교수가 1997년에 본원으로 부임해 PET-CT와 SPECT-CT 감마카메라 등의 첨단 진단 장비로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노력했다.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 동관 7층에 2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실을 개소하여 환자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는 종합검진센터의 검체 검사 위주로 체외검사를 재개하여 전공의 수련병원 기준을 갖추게 했다.

2022년 현재는 핵의학 전문의 2명(최윤영 교수, 이수진 교수)이 활발한 학회 활동 및 연구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안전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명(김태균)과 PET-CT와 SPECT-CT, SPECT 등의 검사실을 운영하는 방사선사 8명(임종윤, 김영준, 정인희, 이세연, 안선우, 최훈, 김지현, 전용수), 체외검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황희원), 외래 간호 분야 간호사 1명(김선옥), 서무원 1명(박미연) 등 총 14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정확한 검사와 치료, 판독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흉부외과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외래, 외래 치료실, 흉부외과 전용 수술실, 외과계 중환자실, 병동 집중 치료실 및 일반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증환자에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에크모 치료의 경우, 장비를 점차 확대해 최근까지 총 5대의 에크모 장비를 보유해 심정지 환자 및 급성호흡부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대 주임교수인 김근호 교수는 1975년 7월 당시 최고의 심폐기 모델인 Sams 5000을 이용해 승모판막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해 본원이 국내에서 3번째로 개심술을 시행하며 최정상급 병원으로 발돋움했다.

3대 주임교수인 지행옥 교수는 1979년 9월부터 1981년 8월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에서 2년간 연수했고 1984년 9월부터 1986년 9월까지 독일의 바드웬하우젠 심장센터에서 스탭으로 근무했다. 본과에 합류한 후 국내에서 3번째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성공했다.

4대 주임교수인 김영학 교수는 1982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연수 및 박사학위 취득 후 1989년 3월부터 본교에 근무했다.

199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선천성 심질환을 연구하고 1997년에는 미국 알라바마 주립대 심장센터에서 성인 심장질환을 연수한 후 현재까지 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심장수술의 최신지견을 임상에 적용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흉부외과는 성인 심장파트에 김영학 교수, 김혁 교수와 일반 흉부파트에 장효준 교수, 정용호 교수가 있다.

김혁 교수는 1997년 미국의 알라바마 주립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 수술 펠로우 과정을 수료했고, 2006년 독일 바드웬하우젠 심장센터에서 심장 보조장치에 관한 최신 의술을 습득했다. 활발한 임상 활동으로 본원 심장 수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본과의 주임교수와 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장효준 교수는 흉강경 수술의 임상 경험을 쌓고 본원에서 흉강경 수술을 적용 중이며, 정용호 교수는 흉강경 수술 및 로봇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박영식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과 에크모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명(김영상, 김영문, 김선운, 마혜연, 정창희, 김소언, 김진수, 조원재)의 전담 간호사가 의국원으로 구성되어 흉부외과 교수의 수술과 진료 업무를 돕고 있다.



임상약리학과

임상약리학과는 인체와 약물 간의 모든 방면을 다루는 부서다. 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데 관여하고, 약물에 대한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정책 자문, 약물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 약리학, 약학, 의과학 등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상약리학과는 2019년 최초로 개설되었다. 개설 이후 주로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해왔다. 본관 9층 T관 및 본관 3층 외래에서 1상 임상시험의 입원 및 외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관 6층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맞춤약물요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다.

임상약리학과에 초대 학과장으로 이상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상원 교수는 2018년 대한임상약리학회로부터 임상약리학 인정의 자격을 득 하였으며, 임상시험설계에 대한 자문, 임상약리학, 임상시험, 맞춤약물요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약물요법과 관련된 각종 진료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시라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 과제 관리, 임상시험 관련 검사 수행, 자원자 모집, 대상자 관리 등을 수행하며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고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상약리학과는 2020년 한양대학교병원 최초로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최초투여 1상 임상시험(First-in-human study)을 수행했다. 이어 2021년에는 혁신신약으로 (First-in-class) 1상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2022년에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책임연구자, QPI)을 획득하며 임상약리학과의 위상을 높였다.



류마티스병원
국제병원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시대를 앞서 탄생한 두 곳의 독립 병원이 있다.
바로 류마티스병원과 국제병원이다. 국내 최초로 개설되어 전문의료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개척한 이 두 병원은 타 병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되고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며 한양대학교병원만의 존재감을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류마티스병원 245
국제병원 249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병원의 역사는 곧 한국 류마티스의학의 역사와 같다. 1985년 국내 최초로 한양대학교병원에 류마티스내과가 개설되면서 국내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근골격계질환 패러다임을 바꾼 병원

1980년대 말에 류마티스센터가 개설됐으며 이후 교수진을 비롯해 다수의 의료 인력을 충원해 1998년,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병원이 출범했다. 이로써 그동안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던 국내 관절염 및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최고의 수련환경을 갖추면서 해마다 100명 이상의 류마티스 전문의를 배출해 국내 류마티스 진료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출범 이후 류마티스병원은 국내에서 류마티스질환을 독보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환자들의 치료 의지가 낳은 명성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 연구 및 교육

류마티스병원은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다.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 연구 및 교육,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류마티스병원은 골관절외과·관절재활의학과·류마티스내과·류마티스안과·류마티스영상의학과·류마티스피부과·통증의학과, 이렇게 총 7개 진료과를 개설하고 있다.

류마티스병원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실과 함께 초음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 다기관을 침범하는 질병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학제 진료실 운영을 통해 타과 의료진과의 긴밀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진료와 연구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생명과학자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한국인에 맞는 새로운 치료법 및 검사법 개발로 류마티스질환의 진료 및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활발한 임상연구와 전문화된 클리닉

국내 최초로 한양대학교병원에 개설된 류마티스내과에 이어 독립병원으로 출범한 류마티스병원은 김성윤 초대원장 주도로 설립되었다. 이후 배상철 교수가 류마티스병원의 비전 제정과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대현 교수를 비롯해 전재범 교수, 김태환 교수는 류마티스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해 류마티즘연구소를 발전시켰다. 배상철 교수, 성윤경 교수, 최찬범 교수, 조수경 교수는 질환별 환자들의 임상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환자 등록 시스템을 갖추며 보건복지부 지정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를 운영했다.

류마티스병원 구성원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며 서로 간 이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다. 충분한 의사소통과 단합된 의견도출 및 행동, 활발한 연구 활동은 병원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의 성실하고 따뜻한 진료는 좋은 치료 경과와 최고의 환자 만족도를 가져와 류마티스병원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현재 류마티스병원은 7인의 전임교원과 3인의 임상교원(김형영 교수, 남보라 교수, 송여진 교수)이 전문질환을 진료하고, 학생 교육 및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별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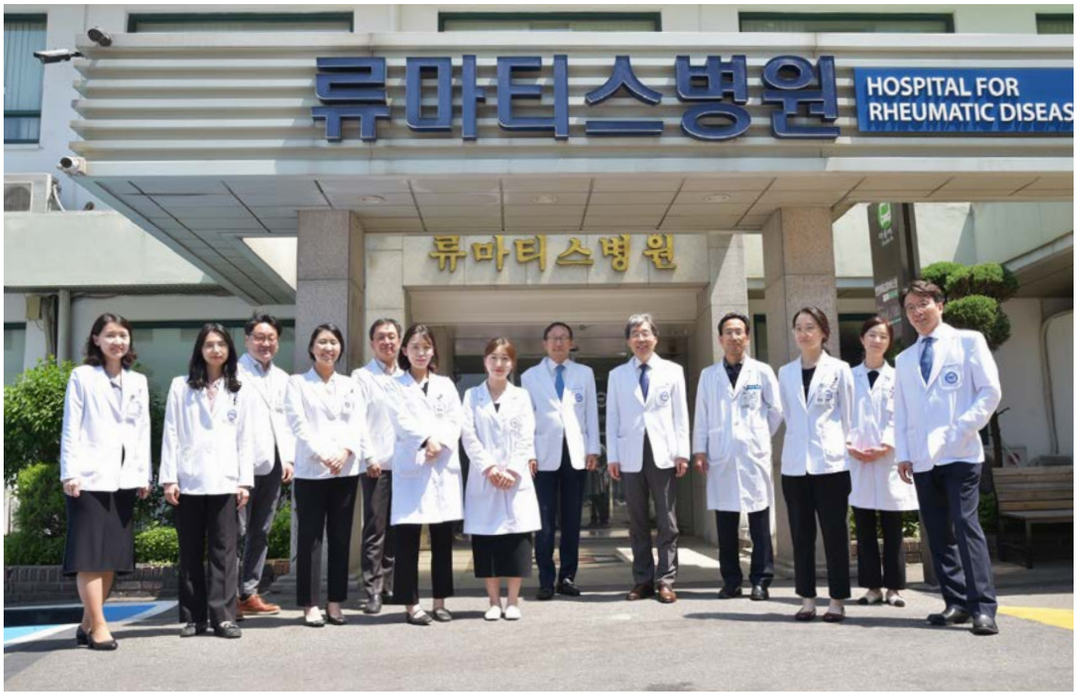
유대현 교수와 조수경 교수가 근염·성인형스틸병클리닉, 배상철 교수는 루푸스클리닉, 전재범 교수는 경피증클리닉과 통풍클리닉, 김태환 교수는 강직성척추염클리닉, 성윤경 교수는 쇼그렌증후군클리닉과 골다공증 클리닉, 그리고 최찬범 교수가 혈관염클리닉과 건선관절염클리닉을 통해 전문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외래 진료 시간을 보완하여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류마티스 전문 간호사(최윤정 간호사)가 환자의 운동, 약제 교육을 맡아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022년 전문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 향후 보다 원활하고 수준 높은 외래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양대학
류마티스병원
암 환우 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류마티스 연구센터


류마티스병원
HOSPITAL FOR
RHEUMATIC DISEAS
류마티스병원

국내 류마티스질환 치료와 연구 선도

류마티스병원은 국내 류마티스질환 치료와 연구를 선도하면서 다진 명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류마티스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개설했으며 대학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유대현 교수를 비롯하여 전재범 교수, 김태환 교수는 류마티스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여 류마티즘연구소를 발전시켰고, 배상철 교수, 성윤경 교수, 최찬범 교수, 조수경 교수는 질환별 환자들의 임상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환자 등록 시스템을 갖추며, 보건복지부 지정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CRCRA)를 운영했다.

2021년도에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류마티스연구원은 한국 연구 재단의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9년간 약 70억 원을 지원받아 류마티스질환 정밀의료 신기술 개발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더욱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류마티스병원 교수들은 활발하고 주도적으로 학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4대 이사장 유대현 교수, 8대 이사장 김태환 교수)을 배출하여 국내 류마티스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배상철 교수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아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수들이 학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병원

국제병원은 2003년 7월 '국제협력병원'이란 명칭으로 문을 열었다.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외국인 대상으로 '센터'가 아닌 단일병원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09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내 최초, 외국인환자진료 체계 구축

2002년 10월 주한미18의무사령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주한미군 지정 진료 협력병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9개월여 만에 개원하게 되었다.

개원 당시 국제협력병원은 국제진료센터, 종합검진센터, 성인병센터로 운영하며 미군과 외국인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가 본격화되면서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양대학교국제병원으로 병원명을 개정하고 국·내외 여러 기관과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했다.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기반으로 간호사와 코디네이터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와 몽골, 미주교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수가 급증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와 무료진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 캄차트카 주정부, 몽골 울란바타르 시의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한양대학교병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받기 원하고 있고, 이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여러 국가의 보건분야 기관장들이 국제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09년 의료관광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 보건복지부 선정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메디컬코리아에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가졌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CT기반의 사전·사후 원격상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외국인환자 의료시설

국제병원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국제진료센터와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종합검진센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진료센터는 우수한 의료진과 영어에 능통한 전담간호사, 러시아어와 몽골어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국내 최고의 외국인환자 의료시설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간호사, 전담 코디네이터가 24시간 진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외래는 물론 입원 및 응급환자에게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한미군이나 가족, 외국대사관 및 외국인 기업체와 진료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반브레다 인터내셔널 등 유수의 국제 보험회사와 직접청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에게 진료받기 편한 외국인 의료시설로 명성을 얻고 있다.

종합검진센터는 외국인환자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식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개인 및 기업체 고객들의 평생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러시아,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해외거주 재외동포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국제적인 종합검진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24시간 진료 서비스 제공

국제병원은 소화기내과 이항락 국제병원장을 중심으로 종합검진센터와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병원 소속으로 내·외국인 건강검진 고객의 예진과 결과상담을 전담하는 일은 박계영 교수가 담당한다. 심장내과 신진호 교수가 국제진료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가 종합검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는 환자의 검진 결과를 상담해주고 있다. 종합검진센터 소화기내시경실은 한성희 임상전문교수와 문원 임상전문교수가 담당하며 초음파실은 정은아 임상전문교수, 서무원 오정희 계장이 맡고 있다. 채혈 및 알레르기 검사실은 임상병리사 박민규 과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심전도실은 임상병리사 박은주 계장이 맡고 있다. 국제행정지원팀은 박재우 부장(팀장)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명영숙 계장, 최상배 계장, 김민희 계장과 국제진료업무를 전담하는 전선영 간호사, 오밀라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수해르태이 아리웅 몽골어 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간호국 소속의 김연주 간호과장(파트장), 홍혜정 간호사, 남서윤 간호사, 최현주 간호사, 김찬양 간호사와 심명주 서무원, 박순미 서무원, 이윤정 서무원이 있다.

종합검진센터는 그 특성상 다양한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검사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그중 영상의학과가 대표적이다. CT검사, 흉부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김민석 계장, 김대호 계장, 석성은 계장, 김정훈 간호사가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수송을 위해 박민식 계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승주 인턴사원과 계약직으로 예약실 이슬기 간호사, 내시경실 오기쁨 간호사, 고시연 임상병리사, 송아름 임상병리사, 최광수, 양라윤, 전소희, 박진아, 김민희, 김하영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03년 7월 국제협력병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며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해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지자 국내 병원 모두 앞다투어 '해외환자 유치'라는 신규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다. 이에 국제협력병원 역시 해외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자 '국제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신 시설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국제병원 로비를 리모델링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병원은 2022년 현재 해외환자 유치시장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종합검진센터에 640채널 CT를 설치하여 검진고객에게 정밀한 검사와 우수한 검진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병원의 큰 자랑이다.

한편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제병원은 외국인환자가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 아래 ICT 기반의 비대면 진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 센터 및 연구원

한양대학교병원은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암센터 등
분야별 특성화된 센터를 운영해 보다 심도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응급센터와 신속대응센터의 긴급 상황 시 체계적인 대처 시스템 또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내실을 더 공고하게 할
의학연구원은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안팎으로 진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253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254
신속대응센터 256
암센터 257
의약품안전센터 259
장기이식센터 260
장루실금센터 261
한양발달의학센터 262
의학연구원 263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양대학교병원은 2015년 12월 23일 서울 동남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후, 2017년 1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정식 지정받았다. 서울 동남권역은 서울시 6개 구(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도 3개 시/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을 포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다수 사상자 사고, 대량 재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비하고 있다. 응급의학과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재난의료팀(DMAT)은 다수사상자 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의료활동을 시행한다.

응급실에는 2개의 소생실을 포함해 40여 개의 병상과 전용 CT, X-ray실로 구성되어 중증응급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에는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이 있으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환자 수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4층 응급병동은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30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2022년 현재 약 2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으로 임태호, 강형구 교수에 이어 오재훈 교수가 역임하여 운영의 실무를 총 지휘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이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내원 환자 수는 2017년 38,198명, 2018년 40,424명, 2019년 42,12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이후 중증 응급 환자가 많이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센터다. 매년 약 200-300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 그 외에도 상처 치료, 난청 환자 등 다양한 환자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난 거점병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재난 상황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지원팀(DMAT)은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이 생겼을 때 현장응급의료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2회 서울특별시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생명사랑센터는 2017년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 환자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 기관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평균의 2배 가량인 65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2014년 8월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생명윤리에 기반한 세포치료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및 임상적용 신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루게릭병, 파킨슨병, 난치성 치매 등 다양한 난치성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난치성질환별 다학제 클리닉을 운영하며 다양한 진료과와 협력해 환자 중심의 치료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게릭병의 자가골수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이외에도 다양한 세포를 통한 질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높았던 2003년 한양대학교 산하 조직으로 개설되었다. 2008년부터는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14년 9월부터는 증축된 한양대학교병원 서관 7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6개의 진료실, 행정실, 코아스템 GMP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소를 갖추고 있다. 현재 6개의 난치성질환 다학제 클리닉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루게릭병은 신경과의 김승현 교수와 추현식, 손부경 간호사가 진료하고 있다. 난치성 치매는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와 최경회, 서지미, 이경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저산소성 뇌손상 분야는 김현영, 김영서 교수와 신채미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소아마비 발달장애는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맡고 있다. 간담췌세포치료는 최호순, 전대원, 최동호 교수와 조인경 간호사가 담당한다. 루프스는 배상철, 최찬범 교수가 맡고 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임상 연구팀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팀(노민영 박사, 임수민 박사, 라옥초, 안수경, 강미현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난치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신경계 희귀난치성질환을 중심으로 다학제 진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인의 유전학적 특징을 근거로 맞춤형/정밀의학 방향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면역-염증 조절에 관한 학문적 근거를 창출해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많은 국내·외 루게릭병 환자들이 한양대학교병원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를 찾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승인받은 3상 임상시험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루게릭병 치료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대한 공로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인정받았다. 2018년 신경과학 분야 유명 학술지인〈Annals of Neurology〉에 연구논문을 출판했다.

논문은 유럽신경과학회에서 선정한 2018년도 이달의 최우수 논문으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의 Journal Watch'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0년 10월 신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세포사멸기전을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했다. 그 외 루게릭병 연구 및 환자관리체계와 관련된 SCI논문 91편을 포함한 약 220편의 논문을 세계 유수 저널에 발표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체감형 진료 모델을 제시해 적용했으며, 정기적으로 환우와 가족 교육강좌를 개최하며 교육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공로로 2015년 천주교 가톨릭 재단 생명의 신비상 본상을 수상했다.



신속대응센터

신속대응센터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성인 환자가 질환 혹은 이외의 이유로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의식 저하, 호흡곤란이 생길 때 빠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CPR 조직과는 별도로 CPR팀보다 먼저 환자 관리에 관여한다. 호흡곤란, 쇼크, 의식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신속대응센터에서는 신속대응체계 스크리닝 기준을 통해 악화 위험성이 높은 입원 환자를 선별해 의무기록, 영상, 진단검사를 확인하고 직접 회진을 하고 있다(소아청소년과병동, 중환자실 제외).

또한 각 진료과에서 협조 요청된 응급환자 발생시 조기 개입 및 대응을 통해 기관삽관술, 심장초음파, 고유량 산소요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자문이나 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료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EHR 프로그램 상 진료메모를 작성하여 의료진간 공유하고 있다.

신속대응팀(Hanyang Rapid Response Team: HaRRT)은 2012년 3월 발대식을 가지고 '더 안전한 병원을 위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신속대응팀에서 신속대응센터로 확장하면서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 받았다. 이후 양미숙 응급전문간호사가 전담간호사로 발령받아 HaRRT 구성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활동했다.

2022년 3월 현재의 구성원은 오재훈 센터장을 중심으로 중환자의학 세부과정을 수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벽성 교수, 조용일 교수, 이준철 교수가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간호사인 이정애, 이지영, 김도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힘쓰고 있다.

2014년에는 본관 15층, 18층 병동을 대상으로 '산소수가 재정비 및 누락 방지 활동을 통한 병원 수익 증대'를 주제로 QI 활동을 전개해 제 13차 QI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도 본관 19층, 20층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QI 활동을 전개해 금상을 수상했다. 주제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심전도 리듬 분석 강화 교육을 통한 신속한 제세동 시행 능력 향상'이었다.

2021년 역시 본관 10층, 12층병동 간호사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의 초기심전도 리듬 분석 강화 교육을 통한 신속한 제세동 시행 능력 향상'을 주제로 CQI 활동을 전개했다.



암센터

한때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혈액 종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일하던 교수들이 본원으로 돌아오면서,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의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새로운 의학적 접근과 최신 치료 방법으로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암센터는 1991년 3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이항 초대소장을 필두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2008년 3월 암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시 만들고, 더 높은 홍보 효과를 가지기 위해 진료실과 상담실을 구성하여 본관 3층에 개소했다. 이후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다. 암질환 특강, 암환자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환우회 지원 및 각종 외부 행사 참여,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에는 '환자중심진료'의 일환으로 다학제 협진 진료를 시작했다. 이는 환자가 앓는 질환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 본관 3층에서 현재 위치인 서관 4층으로 이동했다. 초대 센터장으로 소아청소년과 이항 교수가 부임한 이후 혈액종양내과의 김인순 교수와 이영열 교수, 외과의 권성준 교수, 소아청소년과의 이영호 교수 등이 센터장을 역임했다. 2015년 3월부터 현 센터장인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가 암센터와 다학제협진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간호사 2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기존 강혜령 간호사의 휴직과 퇴직으로 종양전문간호사 서혜영 간호사가 발령되었다. 2022년 암적정성평가에 대비하여 2021년 12월부터 이은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암센터의 업무는 크게 암환자 교육과 다학제 협진 진료로 나뉘어져 있다 .

실무 업무로써 첫째, 암환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며 암환자의 수술 후 교육과 항암화학요법 교육을 진행한다. 암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들이 대상이 되며, 서관 4층 암센터 내 교육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직접교육과 전화상담, 병원 내 요청시 추가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성형외과에서 하던 혈액종양내과 환자 중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소독과 중심정맥관 관리교육업무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2014년 9월부터 다학제 협력 진료실을 신설하고 갑상선종양센터 등 15개 세부진료 센터와 암연구 및 교육센터를 개설, 긴밀하고 유기적인 다학제 협력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의 장점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상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도출, 환자



에게 정확한 진단과 병기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빠른 시간에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번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진료비 또한 절약할 수 있다. 여러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환자의 상황, 체력,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따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의 순서와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치료법의 전문가들간에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학제 팀진료다. 암센터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관련 의료진에게 스케쥴 조정 및 알림을 시행하며 진료환자 관리 및 예약 업무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간호사 대상 실무 교육을 하고 있고 필요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암센터는 매년 7월 27일 '세계 두경부암의 날'을 맞이해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세계두경부종양학회의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와 공동으로 '두경부암, 아는 만큼 이긴다'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건강강좌를 개최했으며 200명의 방문객들이 강의와 전문의 문진 및 초음파, 후두 내시경 검진을 받았다. 이 중 2~5명은 암의심환자 혹은 암환자로 조기진단되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014년 11월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4년에 '노발리스 TX', '최소 침습 암 수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했으며 2015년에는 '암환자를 위한 지원 및 완화의료(Supportive & Palliative Care for Cancer Patient)', '암 치료의 다원적, 포괄적인 접근법(Multidisciplinary, Comprehensive Approach in Cancer Treatment)'을 주제로 강의했다.

2016년에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면역종양학(Immuno-oncology)', '암치료의 업데이트(Updates on cancer treatment)'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2017년에는 암생존자의 치료 후 관리와 삶의 질을 주제로 강의를 시행했다. 이어 2018년에는 암 치료에서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인공지능 왓슨, 빅데이터를 주제로 강의했다. 2019년에는 '다학제 진료의 최신 견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2014년 9월 두경부암 다학제 진료를 시작한 암센터는 2022년 1월 1,000례를 기록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는 '대면 다학제 진료'를 도입해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주 이비인후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성형외과,병리과, 핵의학과 분야의 의료진이 모여 치료 과정에 상의가 필요한 환자 증례를 논의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안전센터는 원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서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월 설립되었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윤호주 교수가 초대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센터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5년 2월부터는 김상헌 교수가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진 간호사(2011~2016년), 김명희 간호사(2016~2022년)가 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며 원내 의약품 안전 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고 2022년 4월부터 심명옥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간호사 1명외에 연구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제팀 약사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안전센터는 원내진료부서, 수련교육팀, 약제팀, 의료정보팀, 간호국 등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물이상반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부터는 능동적 약물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EHR 의료정보 기반으로 이상사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있다.

원내 약물이상반응 세미나를 통한 의료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감시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약물안전 온라인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 의료진 및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수집하며 상담 활동도 확대했다. 또한 CDM을 이용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 분석과 플랫폼 개발 및 응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이상반응 등 약물역학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약물감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센터장인 윤호주 교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17년에는 최종 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센터장인 김상헌 교수가 표창을 받았으며 2018년 사업 우수 협조자로 표창을 받았다. 2019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연차 사업수행실적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2018~2020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사업의 사업 협조 우수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표창을 받아 우수한 사업 수행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는 1994년 6월 개소되어 장기기증자와 이식환자의 관리 및 기증과 이식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과 최동호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남민경 간호사와 성세영 간호사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장은 이식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뇌사자장기기증자를 발굴하고, 장기이식대기자 관리, 장기기증 및 이식환자 관리, 장기기증 및 이식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본원 곽진영 교수가 당시 우리나라 의학의 미개척분야인 신장이식학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연수한 후 돌아와 1978년 신장이식 수술을 시작하면서 장기이식센터의 토대를 마련했다. 1979년 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합동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뇌사자 신장이식에 성공하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뇌사자 신장이식에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장기이식 등 이식에 관한 법(뇌사자 장기이식법)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다.

또한 1990년대 가족 중 면역검사상 불일치 환자의 신이식수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가족과 가능한 기증자를 선택하는 교환이식법을 개발하였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 최초, 최다인 98례를 시행하여 신장이식의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각막이식은 김유정 교수, 신장이식은 최지윤 교수, 간이식은 최동호, 김경식, 정윤경 교수가 담당하며, 복강경을 이용한 공여자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본원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기관으로서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뇌사자장기기증과 이식업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내과, 외과, 비뇨기과, 안과, 흉부외과,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이식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사회복지팀 및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과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이식팀으로 구성되어 장기이식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루실금센터

장루실금센터는 2017년 4월 1일 설립되었다. 암환자를 포함한 만성 질환자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장루실금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외상의 증가, 포괄 수가제 적용에 따른 재원일수의 단축으로 장루실금센터를 운영해 장루, 실금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로 고객만족도 증가, 환자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장루실금센터는 관리감독의 체계화 및 일원화에 따른 전문 서비스 개선, 신속한 서비스 전달 및 타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루(요루)환자의 교육상담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면서 장루 및 요루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되었다.

장루실금센터장은 대장항문외과 이강홍 교수가 맡고 있으며 대장항문외과 안병규 교수, 비뇨의학과 박성열 교수, 성형외과 김연환, 박성오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처장루실금간호사(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WOCN)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금화 간호사와 임상영양사 권수정 영양사가 장루 환자의 상처와 영양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외과전담 간호사가 업무를 겸하고 있어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장루(요루), 실금환자를 대상으로 협진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루(요루)환자대상으로 수술 전 준비 및 교육, 수술 후 관리교육, 장루(요루) 관련제품 및 주의사항 교육, 식이교육, 장세척 교육, 장루(요루) 퇴원교육, 실금 관련 피부문제 위험요소 사정 및 합병증 관리 교육, 그리고 의료진 교육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진료 및 처치 분야에서 장루(요루)관리 파우칭(Pouching), 장루 합병증 사정 및 치료, 관련제품 및 치료제(약품 및 치료재료) 처방, 단순제품 처방 및 반환, 교환 업무와 실금 관련 피부 문제 드레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피누공 드레싱 및 파우칭, 환자 관리(상담), 장루(요루) 환자 및 가족 상담, 퇴원 후 전화상담, 타과 의뢰 및 연계하는 업무를 한다.



한양발달의학센터

한양발달의학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2016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2015년 안동현 소아청소년정신과 센터장을 포함해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공과대학 등의 다학제적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김인향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소아재활의학과 김미정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 이현주 교수, 안자혜 교수, 소아안과 임한웅 교수 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협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신전문간호사 1인과 행동치료사 4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언어재활사 3인, 소아작업치료사 2인, 소아물리치료사 1인 등 발달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다.

치료실 2개로 시작된 공간은 현재 다학제실 1개, 검사실 1개, 치료실 5개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맞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양발달의학센터는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9년 전국적으로 확대될 당시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7년에 개소 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및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에는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 2019년에는 개소 3주년 심포지엄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운영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7년에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김보경 정신전문간호사와 원소진 행동치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9년 박현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2020년 한우주 언어재활사, 2021년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같은 상을 수상했다.

한편 발달의학센터는 2020년 국내 최초로 진료 상황 가상현실 시스템인 '블루룸(Blue room)'을 도입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접촉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 병원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의학연구원

의학연구원은 임상의학연구와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발족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주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총 4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2022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지정되기도 했다.

의학연구행정팀

국가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200건 이상의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식지 발간,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연구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지원 등도 수행한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외과 최동호 교수가 의학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며 각 산하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의학연구행정팀은 5명의 연구원이 임상연구 관련 행정 및 일반 행정 업무와 국고지원사업 및 연구과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IRB행정지원팀

초창기(2010년 8월 이전)에는 교육연구부에서 IRB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 9월 1일부로 IRB 행정지원팀의 전신인 임상연구지원과로 분리되었고 현재 의학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초대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과 김덕언 교수가 재임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리학교실 신인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재임중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10년 9월 13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25일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 2012년 6월부터는 심사관리와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e-IRB시스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주요 업무는 IRB에 제출된 연구계획 관련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접수하며, 심의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공상훈 부장과 이은엽 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센터는 2017년 9월, 운영을 시작하여 임상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연구지원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지원과 코어랩 서비스 그리고 임상시험 자문을 통한 임상연구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지원을 통해 임상연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IQVIA 등의 임상연구 유관 기관들과의 MOU를 체결했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개발 과제 연구의 4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임상연구 종사자 교육 및 임상시험센터 교육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상약리학과 이상원 교수가 임상시험센터의 간사로 활동 중이다. 이자경 간호사가 임상시험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구간호사는 심순경(CRC 매니저), 최유정, 황예슬, 박소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의료기기센터

융합의료기기센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현장 중심의 사용 적합한 의료기기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초거대 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혁신 사업을 위해 LG AI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 데이터 활용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의학연구원의 산하 여러 센터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와 연구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비뇨의학과 조정기 교수가 2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정혜정 연구원이 센터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정보연구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는 초대 센터장 송영수 교수를 주축으로 2017년에 개소했다.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 등 임상연구와 정책수립 등의 분야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글로벌 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CDM을 구축했으며 본원은 2020년 10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EHR 진단코드, 주요 검사결과, 처방에 대한 FHIR 형식의 표준화된 서버를 구축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 우수 평가 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2대 센터장 정형외과 김이석 교수에 이어 현재 3대 센터장으로서 피부과 김정은 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정혜정 연구원이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임상연구보호센터는 2020년 6월 의학연구원 산하 센터로 신설되었다. 임상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윤리성을 확보하여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을 운영한다. 센터의 구성원들은 국내·외 법률에 기반한 원내 임상연구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 연구자의 규정 준수 및 위반관리, 원내 수행 연구에 대한 자체점검(QA) 활동지원, 연구참여자 및 연구 관련자의 질의사항 접수, 종사자 교육 시행, IRB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현재, 류마티스내과 성윤경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박지영 직원은 자체점검 및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자경 계장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기관관리자를 담당하고, 이예은 연구원은 교육담당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수행 중인 임상연구가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체 내부점검인 QA활동을 통해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검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처리 및 분양을 담당하는 기구로, 검체은행의 역할을 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또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총체적으로 망라한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임상시료를 보관, 정도관리, 분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전문적인 스태프와 위원회를 갖추어 향후 임상연구 활성화와 우수연구자들과의 검체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1년부터 명재경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1명의 엄정윤 연구원이 인체유래물의은행의 구축 및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첨단재생의료센터

한양대학교병원은 신경퇴행성질환과 자가면역성질환 등에서 세포치료와 융복합치료를 선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2020년 12월, 첨단재생의료센터를 신설했다. 그 결과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았으며, 2022년 2월 정식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이 되었다. 첨단재생의료센터에서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신경과 김현영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총 8명의 연구원이 첨단재생의료연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간호국 및 진료지원부서

진료과가 원활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부서의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간호국을 비롯해 감염관리실, 병원학교, 사회복지팀, 약제팀 등
다양한 진료지원부서들이 함께 서로 간의 존경과 신뢰, 헌신를 자세를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간호국	267	사회복지팀	276	원목실	279
감염관리실	274	약제팀	277	의무기록실	280
병원학교	275	영양팀	278	집중영양치료실	281

간호국

1972년 5월 3일 한양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된 간호국은 '사랑의 실천'을 기반한 간호 제공, 간호질 향상, 인재 양성, 간호업무 개선, 임상간호연구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개원 초기에는 간호과로 운영되었고 6층, 7층, 9층,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중앙공급실 등 총 204개의 병상으로 시작했다.

양막지 초대 간호과장이 중심이 되어 17명의 간호사가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1972년 말에 10층, 11층, 12층 병동이 운영되면서 103명의 간호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1973년에는 21층, 8층, 16층 병동을 개설했으며, 1974년에는 15층 병동 개설, 1976년에는 17층, 18층 병동 개설, 1978년에는 19층, 20층 병동을 개설했다. 이때 재원 환자는 600명으로 개원 당시보다 병상 수가 3배 증가했으며 간호사 246명, 간호보조원 48명, 용원 43명으로 총 337명이 간호국에 근무했다.

1979년 간호과장이 간호차장으로 승진했으며 1987년 7월 간호과에서 간호부로 승격되었다. 1988년 간호부는 업무차장, 인사차장, 교육차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후 1995년 구리병원이 개원하며 김익선 간호차장을 비롯한 57명의 간호사가 구리병원으로 이동했다.

2001년 간호과장(3명), 간호감독(2명), 교육전담자(7명)로 간호부 직제를 개편했다. 또 간호직, 서무직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병동-외래 간 정규 로테이션을 시작했다. 병동 수간호사 명칭도 간호과장으로 변경되었다.

2009년 행정·교육과장, 병동과장, 특수부서과장, 외래과장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이어 2013년 원내 조직개편과 더불어 간호부는 간호국으로 승격되었다. 애정희 간호부장이 초대 간호국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간호국 내 행정·교육과장, 병동과장, 특수부서과장이 팀장으로, 병동 간호과장은 파트장으로 변경되면서, 간호국장-팀장-파트장-팀원의 팀제형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간호국 조직

2022년 현재 간호국은 국은영 간호국장과 박정하 행정·교육팀장, 김준희 병동 1팀장, 김진녀 병동 2팀장, 김명숙 특수팀장, 손유경 외래팀장과 32명의 파트장 및 간호직, 서무직, 기능직 등 1,00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간호부 내에 행정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나 1977년에 분리되어 2000년까지 업무차장이 업무를 담당했다. 2001년에는 행정과장, 행정주임으로 간호행정부서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어 2009년 행정·교육과장을 거쳐 2013년 행정교육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행정·교육팀은 행정파트, 교육파트, 인사·행정관리, 예산 계획 및 집행, 복리후생, 간호국 내 소속 직원을 위한 신규 및 재직 직원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평가, 상급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 준비 업무, 대한간호협회 및 외부 유관기관과 관련 업무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간호국 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병동 1팀은 본관 21층 외 8개 부서로, 병동 2팀은 본관 15층 외 10개 부서로, 특수팀은 신생아중환자실 외 10개 부서로, 외래팀은 22개 진료과 외래와 육아지도실, 외래주사실, 내시경실, 정맥전담간호사실, 종합검진센터 외래로 구성되어 외래팀장이 관리하고 있다.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가 1999년 11월에 도입되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등급은 일반병동이 4등급(972병상, 288명의 간호사)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4년 3등급, 2013년 2등급, 2020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환자실은 2010년 3등급으로 시작해 2017년 2등급, 2019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병상 수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하며 변화에 대응해 왔다.

간호 질 향상을 위한 활동

간호국은 진료 서비스와 업무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1978년 간호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외래환자를 진료과별로 분류했다. 또 외래에 컴퓨터를 도입해 진료 편의를 도모했다. 1982년에는 Problem List, Nursing Discharge Summary 같은 서식지를 개발하여 임상현장에 적용했다. 1994년 OCS 전산화 도입을 위해 전 간호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2000년 12월에 김혜원, 차경옥, 박정하 간호사가 OCS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간호 업무에 도입되었다. 카덱스와 Medication Record, Infusion Record, 근무스케줄 관리, 물품청구, 환자 중증도 관리, 간호진단 등록 등이 전산화되며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동에서는 팀 간호(Team Nursing) 제도를 도입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였다. 2009년 간호기록의 표준화를 위해 DAR와 Focus Charting을 도입했다. 2019년에는 나경미, 최희숙, 김선희 간호사가 EHR(Electric Health Record) 개발에 참여해 1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간호업무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각종 간호기록지 대신 Flowsheet, To-do-List, 간호활동, Checklist, 간호기록, 수혈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환정보조사지 대신 이동형 노트북을 이용해 간호초기평가 화면에 환자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했으며 PDA를 이용한 환자 확인과 투약 확인으로 더 안전한 간호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본관 20층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52병상을 신설해 보호자 상주 없이 전인간호 제공이 가능한 간호업무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6, 간호조무사 대 환자 비율 1:30, 병동지원인력 4인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병실 내 화장실 설치 등으로 안전한 간호환경을 마련했다. 이후 2018년 본관 12층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총 13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본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보직자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파견해 감염병에 대응했다. 2020년 3월부터 본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민안심병원의 분류소, 선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소에 간호인력을 추가 파견하여 환자 진료 및 검체 채취 업무를 지원했다.

2020년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9개를 지정받아 2월 26일부터 음압병동을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진자 간호를 시작했다. 음압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파견으로 간호팀을 구성했다.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고 Duty별 2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직접간호와 간접간호를 시행했다. 2021년 5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파견했던 간호 인력을 복귀시켰다.

2020년 12월부터 경증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대구 동산의료원, 김제생활치료센터, 성동구 생활치료센터에 파트장을 포함한 일반간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영역을 확대했다.

2021년 6월 본관 18층에 13개 병상의 긴급치료병상 공사가 완공되어 음압병동을 잠정 폐쇄하고 본관 18층으로 환자를 전동했다. 또 음압병동 간호사도 본관 18층으로 전원 이동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높아져서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재파견했으며,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26개 병상으로 확대했다.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가 지속되어 1월 20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8개를 지정받아 음압병동을 다시 오픈하여 본관 18층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파견했다. 2년여 간 간호국은 직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간호환경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교육 및 연구 활동

간호국은 개원 초기부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에 힘을 기울여 왔다. 보수교육, 실무교육, 신규간호사 교육, 승진자 교육, 프리셉터 교육 등을 진행했다. 1998년에는 중환자 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간호국은 1983년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아 매년 7~10회 정도 간호사 보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내 및 외부기관의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참여자가 최신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온라인(Zoom)으로 간호사 보수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간호사 실무교육은 논문발표, 분야별 특강 형식으로 진행했다. 매년 말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전문교수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충실도를 채워나가고 있다.

부서별 병동파트장의 지도로 월 1~2회의 병동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간호국은 파트장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연 4~6회 파트장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무직과 기능직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감염관리, 안전관리 교육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원내 간호사의 경력 개발을 위해 1979년부터 매년 주임간호사급 이상의 관리자를 위한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을 실시한다. 이로써 간호관리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간호단위 관리기법을 익힐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프리셉터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병동의 프리셉터를 임명하고 프리셉터를 통해 신규직원의 부서 적응력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11개 간호대학교 간호실습 협약을 맺어 매년 200~300명의 간호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임상경험을 통해 간호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규간호사는 입사 전 예비교육을 통해 2주간의 이론교육과 2주간의 병동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집체교육 형태인 이론교육을 대신하여 입사 2주 전 임상술기실습장인 나이팅게일룸에서 5일간 EHR 프로그램 실습, 정맥주사, 기본간호 등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시행한 후 부서 배치를 통해 실무적응을 돕고 있다.

간호국은 2020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본관 20층과 본관 12층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작 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업무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간호국은 1999년 제1회 '간호와 연구'라는 주제로 산학협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8편의 임상간호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간호실무와 이론의 연계성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이후 2021년 제20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년 논문을 작성하며 임상간호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하는 간호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매년 외부 학술대회 및 전문가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원내 신한플라자에 나이팅게일룸을 개관하여 간호국 직원의 다양한 교육장소 및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 및 전담간호사 배출

1992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김혜원 간호사가 당뇨상담실 전담간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1995년 김정현 간호사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이도희 간호사가 QA 전담간호사로, 김명숙 간호사가 감염관리 간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 박상순 간호사가 가정간호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진료협력센터, 산업보건센터, 종합검진센터, 암센터 등으로 전담간호사가 이동했다.

2010년 이후에는 난치성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 갑상선 두경부종양센터로, 의약품 안전센터, 정형외과 외래 설명간호사, 신속대응센터, 집중영양치료실,



발달의학센터, 의학연구행정팀, 류마티스내과 전담간호사로 이동했다. 2011년 송은미 간호사가 소아정맥주사전담이 되어 소아청소년과 외래 및 응급실의 소아정맥주사 업무를 시작했다.

2021년에는 정윤희 외 2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정맥전담간호사실 운영을 시작하여 병동, 외래 및 응급실의 소아정맥과 병동 성인 입원환자의 정맥주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맥전담간호사는 병동의 혈관 확보가 어려운 환자를 담당하며 환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박현정 외 4명의 간호사가 권역응급의료센터 KTAS 전담간호사로 이동하기도 했다.

2022년 현재 간호국은 QI실, 감염관리실, 직업환경의학과, 보험심사팀, 의약품 안전센터, 원무팀, 인사총무팀 등 간호국 외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하는 전담간호사와 진료과 PA로 근무하고 있는 총 100여 명의 간호인력을 배출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호국 제위원회 활동

간호국은 파트장 이상 보직자로 구성된 제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2021년까지 윤리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질향상업무개선위원회로 구성되어 간호국장과 팀장이 위원회를 맡아 운영했다.

윤리위원회는 간호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간호국 내에서 직원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교육연구위원회는 행정교육팀장이 위원장을 맡아 신규 및 재직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논의하고 간호국에서 진행하는 신규간호사 예비교육,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규간호사의 날(구 첫돌잔치) 행사'를 개최해 1년간 노력한 신규간호사들에게 선배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물을 증정하며 신규간호사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병동1팀장이 위원장을 맡아 안전한 간호 제공을 위해 욕창 및 낙상 발생률을 파악하여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손위생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는 등 안전간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질향상업무개선위원회는 병동2팀장이 위원장을 맡아 직원의 사전근무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다. 2018년 경구 및 주사투약실무지침을 공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서별 피드백을 제공했다. 2021년에는 환자경험을 높이기 위해 입원생활안내문에 대한 영상자료를 만들어 입원 전 환자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본원은 2021년



환자경험평가 6위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고객만족위원회는 외래팀장이 위원장을 맡아 매년 간호국 바자회를 진행해왔다. 2018년에는 전화예절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올바른 전화응대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외래 직원의 고객 응대법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검사 지침서인 '그것이 알고 싶다' 책자를 업데이트하여 병동에서 다양한 검사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검사실과의 소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제위원회는 2년마다 간호과정 및 간호기록, 실무지침서, 업무규정, 직무기술서의 간호국 지침서를 개정해왔다. 2021년도에는 2020년 EHR 도입으로 변경된 간호 절차에 맞게 지침서를 전면 개정했다.

간호국 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

1994년 9월 김미혜 외 간호사 2인이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진료팀과 함께 1개월간 르완다 난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간호를 실천했다. 1996년 한숙자 수간호사 외 2명의 간호사가 한양대학교 봉사단과 11일간 중국 연변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매년 사회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지역의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외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성동구 관내 복지관에 6~10명의 간호사를 파견해왔고, 해외 봉사활동 및 무료 이동진료에 간호국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2008년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 '한양대학교병원 발전 후원 바자회'를 개최하여 병원에 피아노 1대, TV 5대, NIBP 15대를 기증했다. 간호국은 매년 다양한 형식의 작은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통해 2019년까지 병동 망실 물품비를 지원해왔다.

간호국은 2005년부터 매년 10월경 '1004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본원을 찾는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가는 간호를 실천한다. 본관 1층 로비와 병동별 행사를 개최하며 혈압 및 혈당측정, 간호상담, 발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청계천 등 외부에서 성동구와 합동으로 '간호봉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간호활동 및 선물 증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국장은 대한간호협회 산하 성동구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개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 성동구간호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영화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간호국은 '간호국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한 간호국, 실력 있는 간호국, 화합하는 간호국, 고객을 가족처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2016년 업무개선 전략보고회를 개최해 병동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 간호국 사업보고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해 부서별 실적과 다음 해 부서별 계획을 발표하며 내용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있다.

2016년 친절한 간호현장 만들기를 위해 '바른말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원 초기 간호사는 원피스 형태의 간호사복을 착용해오다 1994년 활동적인 간호업무에 맞추어 흰색 투피스로 변경했고 간호사의 상징이던 CAP 착용의 자율화를 시작했다. 2017년 전문간호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간호부 직원의 유니폼을 현재 착용하는 상하 근무복과 덧가운의 활동복 형태로 교체했다.

또한 2017년 도입된 환자경험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힘써왔다. 간호 요구도에 부응하고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고, 2019년도에는 '메모지를 이용한 환자요구도 확인 및 쉽게 설명하기'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간호사 서비스 부문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20년에는 존중하는 간호문화를 만들고자 '간호존중문화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부서별로 낭독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간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국 코로나19 예방 실천지침'을 마련해 매주 1회 낭독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안전한 간호환경 조성을 위해 간

호국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여 격려하고 포상했다.

주요성과

간호국의 파트장 이상 보직자는 원내 중간관리자로서 부서를 관리하며 간호국과 병원 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여를 했다. 매월 간호국장 주재 아래 파트장 회의를 진행하여 간호국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중요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간호국은 보건의료정책의 많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보호자 상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환자에게 전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래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가칭)를 개설하여 외래주사실과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외래 당일 수술과 시술 환자를 위해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고 수술 및 시술 후 안전한 회복간호를 제공하고자 센터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간호국은 2022년 한양대학교병원 신축 추진으로 인한 외래의 이동과 확장, 본관과 서관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있다. 환자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병원발전을 이끌고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간호국은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압병동, 선별진료소(구, 안심병원), 감염관리실 및 성동구 생활치료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을 파견하여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 및 직원 확진자 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호국은 지난 50년간 간호직, 서무직, 기능직을 중심으로 24시간 병원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펼쳐질 50년의 시간도 항상 최선봉에 서서 안전한 간호, 환자중심간호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실은 1995년 의료 감염으로부터 환자, 방문객 및 직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의 실무 수행 부서로서 설치되었다.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감염관리 활동,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6명의 전담간호사가 배치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로 다제내성균 표본감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은 원내 환자의 위험요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발생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세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활동을 계획하고 해당 부서와 상의해 진행하고 있다.

감시대상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해 지표와 산출식을 적용하고 도표 혹은 조사대상의 특성별 통계적 검증, 감염발생률 추이비교 등 감염발생률 자료를 분석하는 일도 한다.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감시지표로 중환자실 감시, 수술부위 감염감시,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 손위생 감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의 직무 중 감염노출과 원내 감염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파악해 직원 감염예방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원, 방문객, 환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지침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감염관리주간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해 문서를 제공하는 일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감염감시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감염관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실무적으로 논의하며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과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법정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신고 지원 업무와 유행발생 시 감시체계로 감염 감시 중 특정 감염원의 유행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이양순 교수가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으며 권순주 팀장 포함한 7명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상근하고 있다.



병원학교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잦은 통원치료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치된 학급이다.

환아들을 위한 병원의 학생 교육은 2005년 3월 한양대학교 대학생 동아리가 원내에서 개별 교습 형식으로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이영호 교수가 부임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과 병원학교 설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 11월에 정식 개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학생 등 자원 봉사 교사 모집, 명예교사 위촉 그리고 지속적인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대표적 병원학교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2007년, 명칭을 지금의 '병원학교 누리봄교실'로 변경하며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2009년 8월엔 병원학교를 병원 진료지원부 소속의 정식기구로 편제했다. 교육지원청과의 정식 협약을 통한 병원학교의 개교는 다른 병원들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이듬해인 2006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병원학교가 설립운영되기 시작했다. 즉,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의 개교는 전국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병원학교 개교의 효시가 되었다.

병원학교 누리봄교실은 교장, 교무부장 중심으로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두어 병원학교 운영을 돕는 한편 현직 교사, 대학생 교사, 특별활동 교사를 위촉해 최적의 학생들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지원금을 지원받아 교육을 제공한다.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의 교육목표 기준, 교육과정, 교육활동계획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와 병원학교사업집행결과를 제출한다. 매년 6월 교육청장학검열도 이뤄지고 있다.

매년 11월에는 병원학교 관계자 연수회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재 병원학교는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교장을 맡고 있다.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설경숙 교무부장이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 최적의 학습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 2021년 소아암협회 미술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회복지팀

사회복지팀은 개원 초 사회사업과로 개설했고 1983년 7월 원목실에서 원목 활동의 일환으로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위안잔치' 및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7년 의무기록실의 '학생사회봉사활동' 업무를 인수하여 1999년 9월 독립된 사회복지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회복지팀에는 전문자격을 소지한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진의 협진의뢰 및 민·관 지역사회 의뢰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와 관련된 의료복지 문제를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팀은 장기이식 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 승인신청을 위한 상담평가 및 뇌사판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조사에 따른 취약환자권리보호세칙, 학대와폭력피해자보호위원회세칙, 사회복지후원금관리위원회세칙 의료사회복지체계세칙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타 병원 벤치마킹을 통해 OCS 사회복지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원 수련평가 및 의료기관인증조사를 2020년까지 대비했다. 매년 환자·보호자·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년 4,000~5,000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후원기관 등을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및 민간후원을 통해 14억 5,90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07년부터 2021년까지는 원내지원 및 외부기관을 연계하여 180억 8,000여만 원과 헌혈증서 5,833장을 지원했다.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1억 7,000여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원했고 2007년 10월부터는 교직원 급여이체 정기후원과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저소득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03년과 2010년 성동구청 표창장을, 2010년 개원 38주년 모범직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년 현재 사회복지팀은 사회복지사 1급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팀장 1명과 행정직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진의 협진의뢰 및 지역사회 의뢰공문에 근거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전국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 후원 기관 등을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및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제팀

약제팀은 의약품의 조제 투약·복약상담·의약정보 제공·임상 업무 등 최선의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제팀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야간약국, 의약정보실, 특수조제실, 임상약국, 복약상담실, 고영양수액자문업무, 임상약동학 자문업무, 부작용모니터링업무, 중환자 약료 등의 업무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래약국은 외래환자를 위한 조제, 자가주사제, 투약 및 복약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병실약국은 입원환자와 응급실 환자를 위한 조제 및 투약, 특수 복약상담, 약품식별 업무를 담당한다.

의약정보실은 모바일 의약품집 및 의약정보지를 발간하고 신규 약품 도입과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수조제실은 병실 및 외래 항암제 조제업무, 신생아 중환자실을 위한 고영양 수액 무균조제 업무, 임상시험약 조제 업무를 수행한다.

임상약동학 자문업무는 투약 이력과 약물의 혈중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용량과 용법을 의료진이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고영양수액 자문업무는 경구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여 영양 필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복약상담실은 환자와의 복약상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며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 중환자팀 의료를 통해 중환자 처방검토 및 중재 등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약동학 자문업무를 한다. 또한 임상약국에서는 임상시험약을 조제하고 투약 및 복약상담을 통해 임상시험정보를 작성한다. 또 의뢰자 모니터링 및 점검 식약처 실사수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제팀은 박은재 팀장을 필두로 약사 27명, 서무직 8명, 기능직 1명, 야간 담당 약사 6명, 야간 담당 서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래와 병동 환자를 위한 약품 조제 및 복약 상담, 임상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개인맞춤형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1년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설립으로 약제팀에 근무 중인 약사 10명이 겸임교수로 임명되었다. 2014년부터 약제팀 내 분야별 기초 및 심화실무 실습으로 약학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약사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약사를 배출하여 개인맞춤형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양팀

영양팀은 1972년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식 관련 팀원은 현재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환자식과 직원식의 급식관리를 하였으나 1998년 2월, 직원식을 분리하여 위탁업체가 직원식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내분비내과에 당뇨병센터가 신설되면서 영양교육을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임상영양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의료진과 협진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개원 후 수차례의 조리장 리모델링을 거쳐 2015년 4월, 의료기관인증 및 감염관리 기준에 준하는 위생적이며 첨단 시스템을 갖춘 조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다. 영양팀의 급식영양관리파트는 환자식을 일반식과 멸균식, 당뇨식, 저염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의 영양계획, 식단개발 및 작성, 식단평가와 영양가 분석을 하고 있다. 급식재료의 구매, 발주, 검수 등 업무와 안전하고 정확한 조리 및 배식업무를 수행한다.

임상영양관리파트는 영양교육은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석사수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을 갖춘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와 비급여교육 외 영양교육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Nutrition Counselling을 진행하며, 암질환에 따른 수술 후 교육과 항암시 영양관리, 당뇨질환, 신장질환, 소화기계질환, 소아질환, 비만 및 영양집중지원의 영양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양관리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등 원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의료기관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며 병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영양팀은 총 8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민선 팀장이 영양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사 7명 중 강경화, 예아영 영양사는 급식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진유리 영양사는 영양사의 임상영양업무를 관리하며 팀원들의 휴가 및 근태관리와 시설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권수정, 박청, 최정은, 배소연 영양사는 영양집중지원, 당뇨질환, 암질환, 신장질환 등 질환별 영양교육 및 상담, 교육자료 개발업무와 환자의 영양상태평가 등을 수행한다.

최정은 영양사는 환자 식사변경과 영양불량환자 관리를 담당한다. 김태윤 조리사 외 2명의 조리사는 식단개발, 조리지도 등 조리관리 업무를 하며, 기능 1종 원인 박상혁 외 2명의 기능원은 조리장 내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를 한다. 기능 2종원인 김선화 외 67명은 환자식의 조리, 배식,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목실

원목실은 병원 환자들이 투병할 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원목의 주된 임무는 환자의 영적인 양육 및 치유사역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사역이다. 또한 직원의 신앙 관리자로서 역할 및 환자와 보호자의 위기관리자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예배, 상담 및 병실 방문, 구역장, 기도 모임, 교육(CPE, 임상 목회 실습), 기독의사회, 갈릴리회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원목실은 전문인력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 배치 및 관리 또한 담당한다. 수요처와 봉사자 간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시키는 매개체 역할과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의료진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환우들과 직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원목활동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원목 2명(목사 1명, 전도사 1명)이 전 병동을 2구역으로 분담하여 환자들을 관리하며 병실 방문을 하고 있다. 원목 실장(목사)은 행정업무로 원목실 업무 총괄, 종교행사 및 상담 활동, 주일예배, 수요일 예배, 기독의사회, 갈릴리회, 각종 예식 집례, 21~12층, ICU 환자, 보호자 대상 의료진 안내 및 상담을 수행한다. 대내외 활동으로는 한국서울원목협회, 본원 IRB 생명윤리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특수치료 협의회 위원, 생명윤리위원회, 폭력방지위원회, 감면 수혜자(성직자, 봉사자 등) 선정,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원목(전도사)은 11~6층, 동관 7층, ICU 환자, 보호자 대상 의료진 안내 및 각종 상담, 예배, 업무계획 수립 및 실행, 분석, 자원봉사자 획득, 선발, 면접 및 관리 운영, 뇌사 판정위원회, 임상 목회 실습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실적관리, 한국 서울 원목협회, 성동구청 자원봉사분과간담회, 사회복지위원, 감면 수혜자(성직자, 봉사자) 선정 및 지원, 절기 행사 및 극빈 환자 봉사자 필요 여부 파악 선정, 문서 획득(각종 도서, 신문, 잡지) 및 배포 관리, 도서관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팀

의무기록팀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바탕으로 의무기록 열람, 작성, 수정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의하는 의무기록에 기입해야 할 항목, 내용 등이 충실히 기재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심화 업무로 의료진이 의무기록에 작성한 진단명을 근거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 질 평가 등의 기준에 맞추어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의무기록팀은 의무기록 진단 관리부문, 기록 관리부문, 사본 발급부문 그리고 의무기록 스캔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관리, 기록 관리파트는 의무기록 질 관리파트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의무기록 진단 관리파트는 업무숙련도에 따라 1차 코더, 2차 코더, 수석 코더로 업무를 나누어 배분했으며, 환자의 구성 비율이 결정되는 재원 중 환자 관리는 2차 코더가 관리하고 환자 퇴원 후 퇴원분석 파트는 1차 코더가 진행한다. 수석 코더는 재원파트와 퇴원분석파트에서 생성된 질병분류 코드의 질 점검을 수행하며, 질병분류 코드값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수렴을 담당한다.

미비 관리 파트는 1차 코더와 2차 코더가 생성한 의무기록의 미비한 사항을 각 의료진에 통보하여 기록이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비기록이 정리 안 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과에 과금하고 알리는 업무도 진행한다.

의무기록 사본발급파트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3자에게 발급되지 않도록 기록 교부 전 최종 자격 확인을 하고 있다. 각종 소송 및 근거 자료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발급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의무기록 스캔파트는 원내에서 생성되는 종이 서식의 의무기록과 환자가 타 병원에서 발급해온 의무기록, 진료의뢰서 등의 서식을 의무기록에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인 최찬범 교수가 실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의무기록에 관련된 규정 개정, 서식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관련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밖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인 백기영 부장이 의무기록팀장으로 팀원과 함께 의무기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중영양치료실

집중영양치료실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변화에 따라 2014년 8월 1일 집중영양치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수가가 신설되면서 발족했다.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의사, 약사, 임상영양사, 간호사 등 직종 간 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영양집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으로 출범한 것이었다.

집중영양치료실 운영에 앞서 2010년 8월부터 영양집중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영양집중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양집중지원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했으며, 2011년부터는 영양집중지원팀(약칭 HNST)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영양집중지원팀은 영양집중지원 협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협진 의뢰 후, 팀 회진을 통해 적절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공급이 시행되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질병 상태를 호전시켜 합병증 및 입원 기간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영양액의 공급을 막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업무 의료종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양집중지원팀의 직무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영양집중지원을 받는 환자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를 판정하고, 적절한 영양지원 방법과 경로를 결정하며, 의료진 및 환자교육을 시행한다.

약사는 정맥영양공급의 요구량을 산정해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여 영양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정맥영양환자의 경과에 대한 적응도 및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고 정맥영양액의 조제, 안정성 및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상영양사는 환자의 영양상태평가 및 영양필요량을 산정하고 경장영양환자의 영양관리를 계획한다. 영양지원 목표 및 영양상태 변화를 점검, 경장영양공급에 따른 적응도 및 합병증을 모니터링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 계측, 병력 및 임상 상태, 식사 섭취 상태, 생화학적 검사 등 환자의 임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영양지원의 적응도 및 합병증을 모니터링, 영양집중지원팀 회진준비, 운영 및 행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외과 이경근 교수가 집중영양치료실장을 맡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로 한미숙 간호사가 배치되어 집중영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지원부서 및 노동조합

한양대학교병원이 50년 역사를 거쳐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 병원의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실의 기반이 되는 경영지원실과 밖으로 알리는 일을 맡는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부터
운영지원국, 물류팀, 고객지원협력센터 등 이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고가 모여
한양대학교병원이 역동하고 있다.

경영지원실	282	운영지원국	287	병원신축추진단	296
대외협력실	284	고객진료협력센터	292	노동조합	297
의료정보실	285	QI실	294		
기획조정실	286	수련교육부	295		

경영지원실

⊕ 법무·감사팀/인사·노무팀

경영지원실은 2012년 9월 1일, 의료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보좌하여 의료원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개편 당시에는 경영지원실 산하조직으로 경영감사팀과 노무팀을 두었는데, 이후 2018년 3월 12일자 업무개편을 통해 경영감사팀은 법무·감사팀으로, 노무팀은 인사·노무팀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경영지원실은 경영분석, 재무관리, 행정관리 등을 통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리더십을 보좌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의 건전한 노사문화,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매월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자금 집행을 관리하여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경영지원실장은 법무·감사팀과 인사·노무팀을 관장한다. 법무·감사팀의 감사 기능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률 지원 업무를 통해 업무상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2018년 8월부터는 사내변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인사·노무팀을 통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인사간담회 등의 업무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기관과 대학병원 노무 담당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직원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원 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외 의료원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의료원 내 승진 및 보직 변경 사항을 조직 구성원에게 공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헌효 경영지원실장은 2018년 3월부터 서울병원 운영지원국장을 역임하다가 2020년 9월부터 경영지원실을 이끌고 있으며, 기획·물류·인사총무·원무 업무에 통달한 행정의 전문가다. 뛰어난 경영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은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법무·감사팀은 함두식 팀장과 고승완 변호사, 김기현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두식 팀장과 김기현 팀원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고승완 변호사는 특히 계약관계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에게 많은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인사·노무팀은 조성하 팀장과 김문영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하 팀장은 2022년 3월 전보되어 노사 화합을 이끌고 노무 문제의 법률적 해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문영 계장은 특유의 성실과 친화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협력실

⊕ 대외홍보팀

대외협력실은 1994년, 의료원 기획관리실 산하 기획홍보과의 홍보업무로 출발하였다. 2003년 9월, 의료계 내에서도 점차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홍보실을 신설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별도로 인터넷팀을 두어 홈페이지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5월, 의료원 직속 조직으로 편제되었고 2009년 9월, 다시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지면서 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 홍보업무 외에도 대외협력과 발전기금 업무까지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대외홍보팀은 2006년부터 홍보위원회를, 2009년부터는 대외협력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하며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기부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며 발전기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홍보파트의 주요 업무는 언론매체를 통한 PR활동과 의료원 매거진 발행, 이미지광고 제작,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홍보, 홍보물과 홍보영상 제작 등이다. 이렇게 진행된 의료진 홍보 결과를 반영해, 2010년부터는 개원기념일에 '한양교수언론상'을 선정하고 있다.

의료원 홈페이지는 1998년 6월 개설된 이래, 의료원의 모든 소식과 의료진 진료예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인 〈Hihy건강저장소〉를 시작해 디지털 컨텐츠를 통한 의료원 PR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대외협력파트의 주요 업무는 의료원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 활성화 업무와 국제학술교류의 지원, 국내외 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활동, 국경을 넘은 해외 의료봉사 등이다.

김희진 신경과 교수가 대외협력실장을 맡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실을 진두지휘하고, 의료원 홍보업무의 시작을 연 손화선 과장이 대외홍보팀장을 맡아 홍보파트와 대외협력파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홍보파트에서는 전형수 과장, 김미진 사무원, 박신엽 사무원이 언론홍보, 원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온라인홍보, 홈페이지 등의 PR활동을 유기적인 팀웍으로 최상의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다.

대외협력파트에서는 육수영 계장과 황미현 계장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료협력과 의료원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정보실

⊕ 의료원의료정보팀/정보보호팀

의료정보실은 의료원 차세대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맞춰 의료원 산하 조직으로 2021년 3월에 신설되었다. 신임 의료정보실장으로 김이석 교수가 임명되어 의료원 및 각 병원 정보화 추진, 운영, 개발,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의료정보실의 의료원의료정보팀은 1984년 의료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입퇴원 등록 및 수납 업무, 급여 관리 등 원무 및 일반관리 전산개발 업무를 수행해 왔다. 1999년 11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OCS(처방전달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하여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한양대학교병원, 2001년 3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OCS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시스템을 2003년 2월에 한양대학교병원, 2003년 4월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가동하였다. 영상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2007년 5월 한양대학교병원, 2007년 3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가동하였다.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Hisys은 의료원 통합운영을 목표로 삼성SDS와 17개월의 사업기간으로 진행해 2020년 9월 26일 한양대학교병원, 2020년 12월 25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오픈하였다.

의료정보실의 의료원의료정보팀은 의사 Order System 및 진료기록, 간호업무 전산화, 진단검사의학 전산화, 병리과 전산화, 영상의학 전산화, 각종 검사실 전산화, 약제업무 전산화, 영양업무 전산화, 의무기록 전산화,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 전산화, 각종 심사청구 전산화, 각종 통계 전산화, 급여/인사/회계 전산화, 재고관리 전산화, 구매관리 전산화, PACS System 등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중장기적 목표는 Data 축척을 통한 고객중심서비스 고도화 및 전략운영 체계 마련이다. AI/BigData 등 Smart 병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형 병원으로 나아가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실 전 구성원은 의료원의 경쟁력 확보 및 진료의 질 향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김현욱 부장이 의료원의료정보팀 팀장을 맡고 있다. 진료 및 진료지원파트에 파트장인 설명길 과장 외 11명이, 일반관리 파트에 파트장인 조호정 계장 외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운영파트에는 파트장인 양광식 부장 외 3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운영파트는 파트장인 안은종 과장 외 3명이 인프라 관리 및 EHR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 기획팀

한양대학교병원 출범 당시 신설된 기획조정실은 직제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어 왔으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부서이다. 경영혁신을 통해 더 나은 한양대학교병원의 현재를 만들고 기획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선도적 상급종합병원의 책무를 이끌어 가는 부서가 바로 기획조정실이다.

현재 기획팀은 서울병원 기획조정실 산하에 편제되어 병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제 규정 제정 및 개폐, 정원관리, 경영분석, 예산, 교원평가, 직무분석,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팀은 경영혁신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단을 보좌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리고 각 부서가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진료부서의 실적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 업그레이드 한다. 또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부서별 적정 정원을 관리하고,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양한 경영 분석 자료를 경영진에게 제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급종합병원평가, 의료 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등급 유지 및 상향을 목표로 방향성을 정하고 유관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현재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ABC원가시스템 구축, 병원 미래의 시작인 외래신축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2022년도에는 개원 50주년 각종 프로젝트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전체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여 기획팀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미래 100년의 새도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13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를 필두로 2022년 3월 부로 기획팀장으로 부임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기획팀을 이끌어갈 권오균 팀장과 ABC원가 구축의 중심 장종남 과장, 각종 통계를 관장하는 장경희 과장,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성과급을 담당하는 방성주 과장, 꼼꼼한 분석을 통해 규정 및 정원을 관리하는 박유순 계장,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교원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승준 계장, 기획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신입사원 조대륜 사무원, 이렇게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지원국

⊕ 인사총무팀/원무팀/보험심사팀/물류팀/재무팀/시설팀

운영지원국은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병원의 행정적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단일 병원 행정부서의 최상위 조직이다.

운영지원국은 병원 운영 초기에는 사무국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설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각 병원의 운영지원국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인사총무팀, 물류팀, 원무팀, 보험심사팀, 재무팀, 시설팀을 두고 있다. 팀별 개요 및 주요 업무, 구성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은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초 사무부 산하의 총무과로 출발했다. 조창구 총무과장을 필두로 인사, 급여, 근태, 서무 등 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해왔다. 2012년 9월 더욱 효율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 그에 따라 인사관리와 급여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이어받으면서 한양대학교병원에 인사총무팀이 탄생했다.

인사총무팀은 채용, 배치, 급여 등 인적자원관리를 주도하고 원내·외 행사 개최, 외부기관 협조, 안전대응체계 확립 등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세부적인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인사파트는 병원의 인력 운영방침 수립, 교원인사 및 교직원 제급여, 일반직원 승진 및 인사고과, 한양대학교의료원·한양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간의 인사이동, 재단 인사발령 요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총무파트는 복무 및 근태관리, 대내외 문서관리, 일반관리비(경상비) 지출관리, 임대 및 용역업체 계약관리, 교직원 연금 및 보험, 식수, 증명서 발급, 우편물 배송 등 행정지원업무와 교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한다. 2015년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검진, 예방접종, 작업환경측정과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비상계획파트는 병원의 내외적 환경관리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산업안전관리를 비롯해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며 병원 외래 등 미화 환경관리 및 보안, 경비업무, 원내 주차관리 차량 관리, 조경 관리 등을 시행한다.

현재 인사총무팀은 인사총무와 비상계획파트를 총괄하는 팀장 1명, 인사총무 파트장 1명, 비상계획파트 파트장 1명 등 총 팀원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팀장은





인사총무팀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고, 파트장은 팀장을 보좌해 부서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그 밖 14명의 팀원은 각자 맡은 분야별로 교직원 복지와 건강관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돕고 있다.

물류팀

물류팀은 1972년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초에 사무부 산하의 관리과로 업무를 시작했다. 초대 이호재 과장의 지휘 아래 병원의 물품을 관리해왔다. 의료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2009년 9월 보급과와 검수과의 업무를 이어받았고, 2012년 9월 구매과와 의공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서울병원 물류팀으로 탄생했다.

물류팀은 물자관리, 물류배송, 의료기기 보수 및 관리, 린넨류 및 근무복 제작공급 등 병원 물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물류파트는 대지 및 건물 공간 재배치, 고정자산 구매 및 관리, 재고자산 구매 및 관리, 의료재료 구매 및 관리, 직물자재 구매 및 관리, 입찰 품목 관리, 의료기기 보수 및 관리, 물류배송 및 보수를 담당한다.

의공파트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노후장비 교체, 수리비용 및 시간 절감, 교육 강화를 담당한다. 재봉실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린넨류와 각종 근무복을 원활하게 제작하고 공급해 병원 전체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물류팀의 업무는 병원의 '후방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지원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정별 업무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양대학교병원의 물류를 책임지는 병원의 허브(Hub)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현재 물류팀은 이창무 팀장을 필두로 이용응 물류파트장, 이정민 의공파트장 등 파트장 2명, 팀원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무팀

원무팀은 1972년 개원 초기 원무를 시작했다. 환자 진료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제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외래파트, 입원파트, 의료법무파트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1979년 전국의료보험연합회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정기적인 자체 워크숍을 시행해 원무 내부의 단합과 직원 역량 강화, 진료과별 중증도 입원 우선제, 퇴원 예고제 등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외래파트는 초진 및 재진 환자, 교통환자, 검사통합예약, 응급실 환자의 진료 접수 및 진료비 수납, 미수금 청구, 통계작성업무 등을 담당한다. 입원파트는 환자 유형별, 진료과별, 병실 배정 및 심사 완료된 환자의 퇴원수속 및 각종 증명서 발행하고 서무 업무와 외





래, 입원수입 통계 업무를 맡고 있다. 의료법무파트는 재원환자 중간진료비 및 문제환자, 고액체납환자, 장기입원환자 등의 관리업무와 미수금 및 지원금의 청구업무를 하며 의료분쟁과 같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 2020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고자 직원들과 협력하여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후 디지털병원으로 혁신하고자 2020년 9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의료인프라를 구축했다.

나아가 진료 이력, 검사 내역 등 통합정보 확인으로 환자맞춤형 정밀진료를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한곳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제증명 발급이 모든 수납창구에서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의 편의를 도왔다.

현재 변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에 힘쓰며 환자 중심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무팀 업무를 총괄하는 양정자 팀장을 필두로 외래·응급실 업무를 지도하는 김미라 외래파트장, 입원·퇴원 업무를 지도하는 권해창 입원파트장, 재원·법무 업무를 지도하는 박헌택 의료법무파트장, 그 밖 과장, 계장 및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포함 40여 명의 직원이 원활한 원무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험심사팀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보험 제도와 보험심사 관련 업무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1977년 실질적인 보험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 1994년 1월 외래 수납업무가 회계과로 전과되면서 순수한 의료보험만의 심사업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보험과는 1994년 3월 원무부로 통합된 이후 1999년 9월 서면 청구에서 전자문서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청구방식 전환되며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EDI 청구방식의 공식승인으로 병원 전자적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기관진료비용을 전산화된 청구방식(EDI)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012년 9월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보험심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더욱 전문화된 보험심사팀은 보험자별 유형에 따른 고유업무인 기관 진료비 심사청구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심사지침 안내 및 교육 홍보, 종합수가(보험유형자별 원내수가 관리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유형이 있음)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병원의 전반적 평가관리업무도 담당하며 평가 결과



에 따른 질 향상 및 인센티브 지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매년 15~20여 개의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수익 누수를 최소화하는 비용 관리 측면의 고유 업무 외에도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신속히 대응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보험심사팀은 이연아 팀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팀장은 팀 전체 업무관리와 보험정책분석 및 홍보,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 파트장 2명, 팀원 22명 등 총 25명의 직원이 수가 및 신고, 수입 및 통계, 민원, 평가, 심사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무팀

재무팀은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초 회계과로 신설되어 병원의 자금관리 및 운영 계획을 담당해왔다. 현재 재무팀은 회계, 자금, 세무,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의 전반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통계를 총괄하여 예산 집행을 위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여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출자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팀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관리하며 병원의 자금 현황과 수익 및 지출에 대한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병원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재무팀의 업무는 주기별로 일일, 월말, 분기, 그리고 연말에 따라 주업무의 성격이 달라진다. 일일 업무로는 매출액 및 현금수입 현황을 관리하며 해당자료를 토대로 병원의 재정통계 및 자금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급여, 자재대, 그리고 경상비 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과 지출통계를 바탕으로 매월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결산작업을 수행하여 병원의 재무현황을 기록 및 보고하고 있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리고 지방세를 신고 및 관리하는 등 병원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말에는 병원 모든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원 이후 국세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부 회계감사 등 대외감독기관에 대응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재무팀은 총 5명의 구성원으로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상원 재무팀장은 재무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병원의 수익과 지출관리를 하며 병원의 경영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를 총괄하여 작성하고 있다. 팀원 4명은 부가세 신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관리, 진료부서 운영비 지급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국고보조금 등 기부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자재대 출납 업무,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경상비



집행 및 증빙 관리, 월차 손익 보고, 자금 추정 및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무팀은 이러한 재무행정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에서 의료원의 사명과 미션을 실천하는 모든 교직원분들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시설팀

시설팀은 기계·영선파트, 전기·통신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년 된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환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병원진료환경에 맞추어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해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을 위한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설팀의 세부적인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격 요건 및 직무능력에 맞추어 기계·영선파트, 전기·통신파트 등을 운영 관리하여 건축, 기계, 영선, 전기, 통신, 의료가스, 소방안전관리, 환경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건물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공사의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 등 공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 기계·영선파트는 냉난방, 위생설비, 고압가스, 열관리, 의료가스, 철공, 목공, 도장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전기·통신파트는 수변전, 발전, 통신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시설팀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제규정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직무능력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팀은 주임선 팀장을 필두로 파트장 2명, 팀원 4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계·영선파트장은 김희규, 전기·통신파트장은 박진용이 맡고 있다. 그밖 직원들이 서무, 소방안전관리자 및 파트별 상근근무와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팀장 이하 모든 구성원이 시설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다.





고객진료협력센터

⊕ 고객지원팀/진료협력팀

고객진료협력센터는 고객지원팀과 진료협력팀으로 구성된다. 고객지원팀은 2003년 9월에 신설한 사이버한양센터를 모체로 한다. 사이버한양센터를 보다 전문화하여 2006년 6월, 고객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고객지원센터는 진료협력센터, 고객상담센터, CS교육(HYSA), 전화예약센터, 검사통합예약센터 등 5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내·외부 고객에게 최적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를 더욱 전문화하기 위해서 2016년 3월, 고객지원팀과 진료협력팀으로 분리했고 이후 2018년 6월, 이 두 팀은 고객진료협력센터으로 편제되었다.

고객지원팀

고객지원팀은 크게 고객상담 업무와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 가장 먼저 소통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고객상담 업무를 통해 불만 고객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콜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변경, 취소, 진료상담, 콜백서비스, 각 부서 교환 업무, 응급실 환자 중계, 진료 기록 사본 및 제증명서류 발급, 의사일정 조정, 인터넷 예약관리, 무인 자동 서류발급, 영수증 재발급, 진단서 재발급, 병원을 찾아오시는 방법(노선/셔틀버스), 주차요금, 분실물, 홈페이지, 앱 이용방법 등 병원의 종합적인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방송업무(일반방송, 긴급방송)와 본관 1층 전광판 시간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물론 검사비용, 검사결과지 영문발급 안내와 코로나19 관련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시간표 관리를 한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느끼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박성열 센터장과 주광노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일반 서무업무는 이경철 계장이 담당하고 있다. 콜센터 전화상담은 이문희 계장, 형희숙 계장, 최정애 계장, 김은영 계장, 김옥자 계장, 정명재 상담원, 한진희 상담원, 권영한 상담원, 하승정 상담원, 이화연 상담원, 이수민 상담원, 김현진 상담원, 김진숙 상담원이 맡고 있다.

고객지원팀은 2021년 9월 실시한 '친절한 병원 만들기 CS 모니터링'에서 수신 태도, 설명 태도, 응대 태도, 전화종료 시 태도에 대해 만점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2021년 3/4분기 친절직원에 고객지원팀 콜센터 직원이 선정되었다.



진료협력팀

진료협력팀은 2016년 3월 25일 신설되었다. 그 이후 2018년 6월, 조직개편으로 고객진료협력센터의 한 부서로 편성되었다. 진료협력팀은 부원장 직속 부서로, 협력 병원을 통한 환자진료 의뢰 및 진료결과 회신에 관한 업무, 입원 및 외래 환자 회송 관련 업무, 협력병의원 협약체결 및 운영, 협력기관 협약 체결, 의료협력 네트워크 및 진료협력창구 운영에 관한 업무와 마케팅 및 협력병원과 협력기관을 통한 신규 환자 창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원의 및 협력병원 의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본원을 이용하는 내원 환자 수 증대 및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료협력팀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2020년 본 사업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 의뢰 및 회송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사업 초기 190건 정도였던 회송 건수가 2022년 현재 3,3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진료정보교류 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원내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단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이동진료 행사를 통해 평균 250 여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투약을 포함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의사회 및 인접 지역 의사회 행사 개최 시 참가하여 병원 홍보를 통한 신환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진료협력팀 업무 총괄은 김화선 팀장이 맡고 있다. 입원 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서서영 과장, 환자 의뢰 및 회송을 담당하는 서지영 계장과 강정은 간호사, 협력병원 및 협력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미정 계장,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기승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QI실

⊕ QI팀

QI실은 1990년대 의료계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에 선도적으로 QI실장과 전담 직원 1인을 배치하여 QA(Quality Assurance)연구반으로 시작했고, 현재 QI실장과 전담 직원 5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병원 차원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QPS(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위원회와 함께 2016년 환자안전법 개정 취지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환자안전문화 정착과 원내 체계적인 질 관리 활성화를 목표로 부서 QI활동,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관리, 지표관리 및 의료기관인증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QI실의 모든 업무는 원내 전반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위원장인 병원장을 중심으로 QPS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를 지원하고 병원 차원에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수행하며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병원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보고체계를 운영하며 사건의 원인분석,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각 부서의 QPS매니저와 연계하여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부서 QI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1회 QI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과 원내 질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 및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경영진 및 의료진, 환자 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환자만족도와 직원만족도를 연 1회 조사하고 분석된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증조사 기준을 분석하고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기관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부서를 지원한다.

현재 QI실은 QI실장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를 필두로 1995년 첫 전담 직원이었던 이도희 팀장과 송미라 과장, 조현진 계장, 박수현 계장, 박채린 간호사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2인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도희, 송미라)에서 시작하여 현재 전체 팀원 모두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의료기관인증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도희 팀장이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QI실의 모든 부서원은 위험관리, 환자안전사건의 관리, 지표관리,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만족도조사, 의료기관인증조사 대비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련교육부

⊕ 수련교육팀

1972년 4월 24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수련의사 수련병원 인가를 받은 이후 수련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했다. 이후 1983년 4월 7일부로 수련교육부가 총무과로부터 분리되면서 수련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년 6월 1일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교육연구부에서 수련교육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했다. 수련교육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을 통한 수련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병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주요 업무는 전공의 수련교육, 임상교수 연수교육 및 근태관리, 개원의 연수교육, 직원교육, 의학학술정보관 관리업무 등이다. 또한 전공의 모집, 선발, 임용, 등록, 평가, 복무 및 수련병원 지정,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1972년 4월 24일 수련의사 수련병원 인가를 취득하여 인턴 14명을 교육시킨 이래 2022년까지 인턴 3,203명, 레지던트 2,566명을 수련시켰다. 2016년 12월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수련규칙표준안에 따라 수련환경을 개선, 전공의 인권보호 및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현대적이고 쾌적한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통합의국'을 개소했으며, 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하고 있다. 개원의 및 협력병원 대상으로 최신 지견에 맞추어 풍부한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의학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1982년 10월 제1차 개원의 연수교육을 시작한 이래 2022년 4월에 94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1996년 주임급 이상 전 직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이래 접점부서 및 의료진 대상 고객응대교육을 실시했으며, 2021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병원만들기 CS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및 법정 필수교육은 2019년부터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이러닝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재 수련교육부는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가 23대 수련교육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수련교육부 인턴은 김현 인턴장과 이원섭, 김재우 부인턴장 외 인턴 70명(치과 2명 포함)이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인천나은병원, 제주중앙병원을 연간 파견계획에 의하여 순환하며 수련하고 있다. 수련교육팀에는 정영덕 팀장,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명 과장, 직원교육과 병원학교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설경숙 계장과 박미옥 과장(휴직), 의사직 연수, 근태, 위탁 수련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건택 사무원, 의학학술정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지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병원신축추진단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50주년을 미래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글로벌 100대 최첨단 스마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병원신축 미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 1일 한양대학교병원 산하에 병원신축추진단을 신설, 2021년 10월 병원신축설계 입찰용역을 공모했으며, 2022년 2월 병원신축설계용역 공모당선작으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

신축 미래관은 의과대학 제1·2의학관과 정문 부지에 건축,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한양의 새로운 랜드마크, 대학과 병원의 정문 상징성을 모두 갖추어 계획될 예정이다. 신축 미래관은 대지면적 1만 8,700㎡(5,655평), 연면적 7만 5,937㎡(2만 2,900여 평), 지상 5층~지하 5층 규모로 건축되며 한양사이버대와 주차장 공유를 통해 약 1,000대의 외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미래관은 건강,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병원, 자연과 이야기가 있는 치유의 공간,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여 진료와 교육 및 연구의 융복합 의료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한다.

신축 미래관의 내부 공간은 스마트 로비, 암센터(병원), 류마티스병원, 중증·난치질환 중심의 외래진료부,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연구 공간,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한 공간계획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해지고, 중심 공간인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들과 연결,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본관과의 편리한 연계,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극대화로 내원객 및 의료진의 이동 편의성도 제공된다.

병원신축추진단은 병원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된 임시조직으로, 신축 미래관 관련 업무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병원신축자문위원회 운영, 각 분야별 TFT 운영, 예산 및 추진 일정 관리, 설계 및 공사 지침 검토, 대관 인허가 진행 관리, 설계 중 사용자 요구 조율 및 일정 관리, 설계 변경 사항 승인 요청(병원신축위원회 상정), 기획 업무 관리(신축병원 운영계획·업무 추진 검토 등), 재무 업무 관리(자금 운영계획·사업비·운영비 등), 시설 업무 관리(설계·시공관리·인허가 등), 인력 계획 및 인력 운영 관리, 의료장비 계획 및 운영 관리, 기타 부수되는 신축 관련 사항이다.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가 병원신축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며 손진석 팀장과 김용우 파트장, 김휘중 계장이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양대학교의료원지부)은 1987년 8월 17일 한양대학교의료원 최초의 민주노조로 설립되었다. 1988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거쳐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이끌었다.

노동조합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양대학교의료원지부는 노동조합 슬로건인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이윤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의료원 2,400여 조합원을 대표해 의료원과 매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교섭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개선, 민주적 직장문화 정착과 직장 갑질 근절, 안전한 병원 만들기 등 현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노동조합의 힘도 조합원의 단결된 힘에서 나오는 만큼 단체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원들의 참여와 단결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2,400여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매년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2009년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운동'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발전해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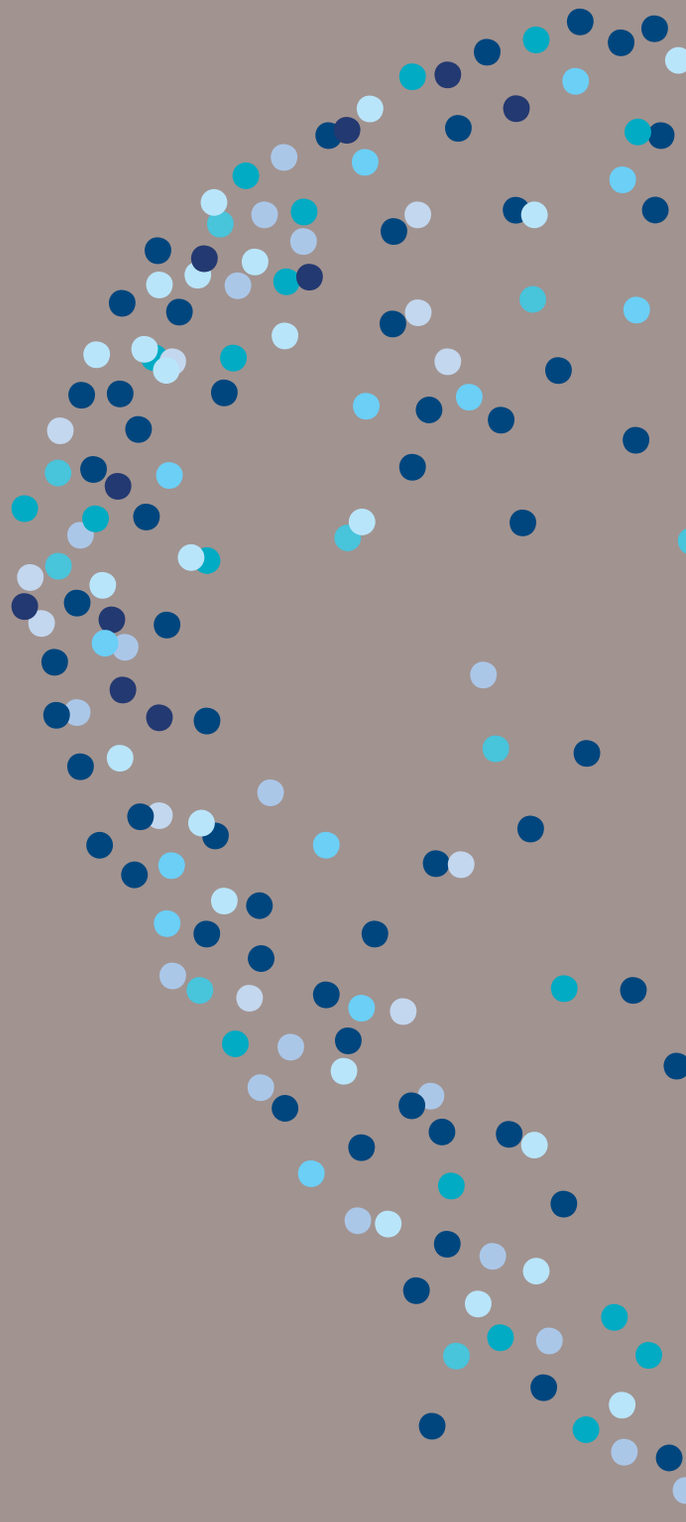
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한국사회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합친 조합원은 2,383명이고, 부서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총 80명, 현장에서 일하는 상집간부가 18명, 회계감사 2명, 전임간부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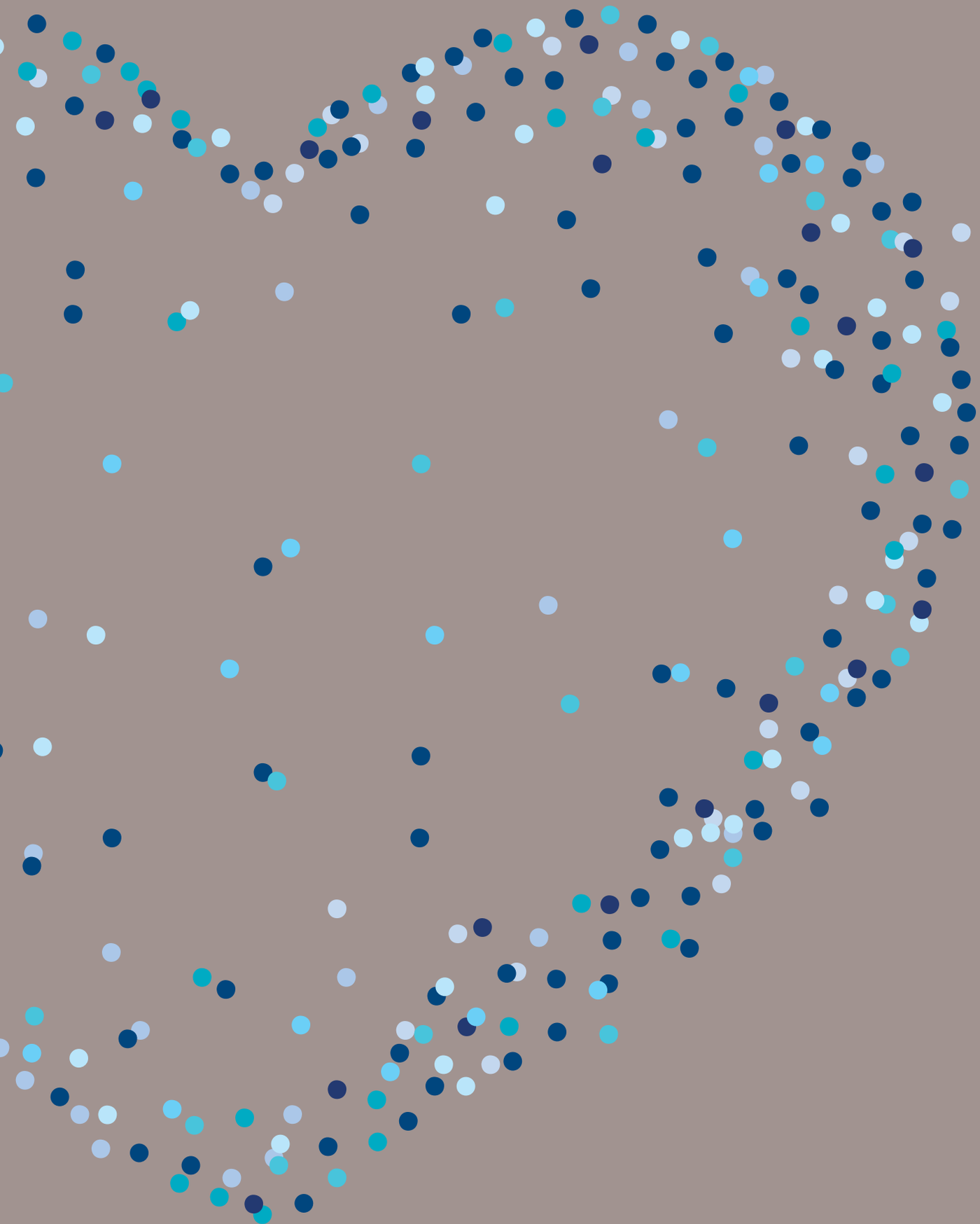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합원들은 간호직, 조무서무직, 보건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약무직 분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각 분과에 소속된 상집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잇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 록



자료로 보는 한양대학교병원



01 숫자로 보는 한양대학교병원

전체 직원 수 / 2022년 5월 3일 기준

2,226명

의사직  473 명

약무직  32 명

간호직  981 명

보건직  201 명

사무직  128 명

기술직  76 명

기능직  117 명

서무직  218 명

병상 수 / 2022년

855 병상

일반	724 병상
특수	26 병상
중환자실	105 병상

일일 외래환자 수 최고 기록 / 2018년 10월 1일

3,569 명

암센터 다학제 협진 / 2022년

1,000 례 돌파

위암 수술 / 2019년

3,000 례 돌파

연간 수술 건수 최고 기록 / 2019년 기준

13,595 건

외과	1,802 건
소아외과	35 건
신경외과	1,345 건
정형외과	3,037 건
비뇨의학과	1,027 건
흉부외과	381 건
산부인과	1,085 건
성형외과	1,557 건
이비인후과	1,375 건
안과	1,629 건
기타	322 건

01

입원환자 수

1972년
53,839 명

2021년
202,387 명

외래환자 수

1972년
99,496 명

2021년
641,741 명

해외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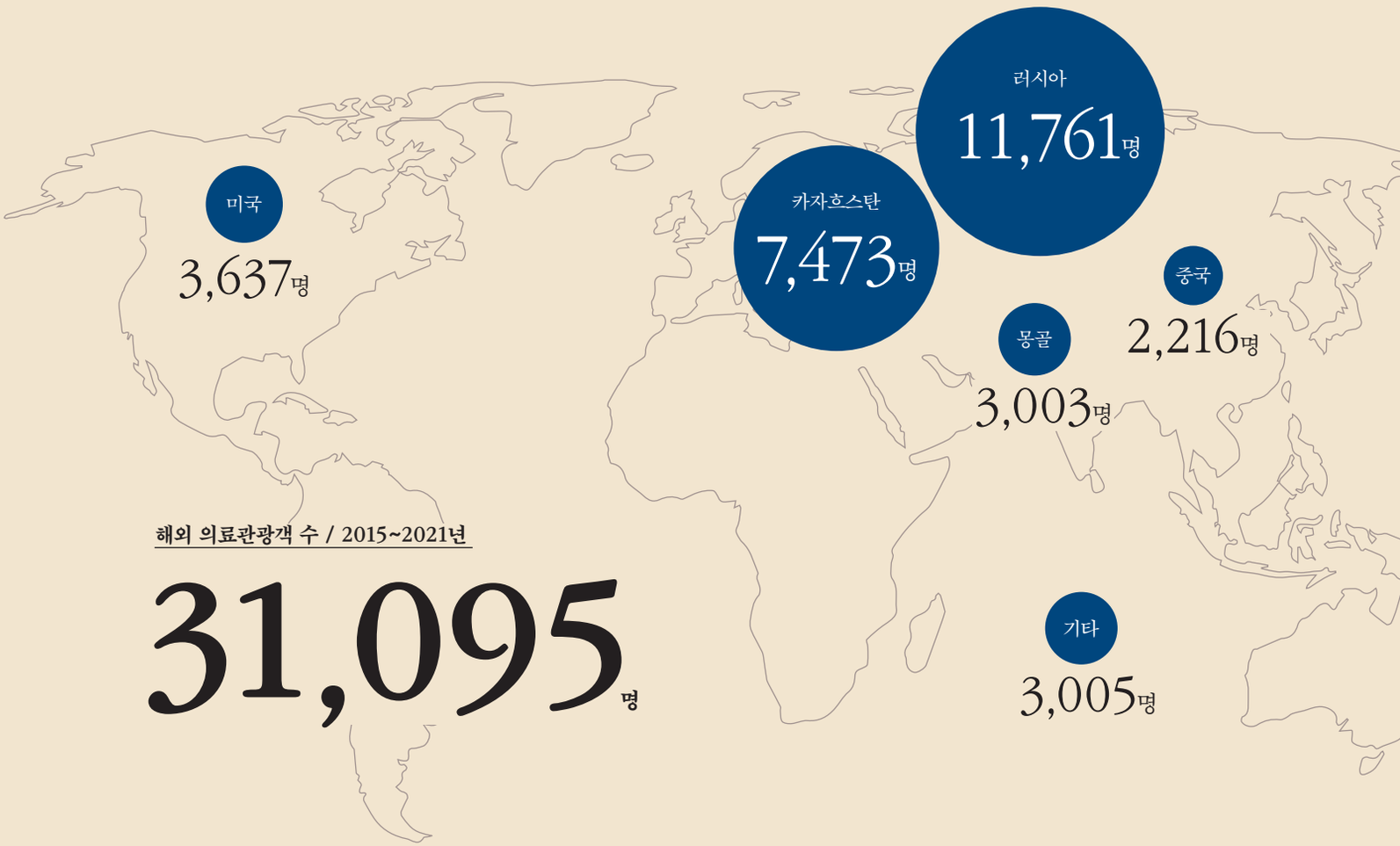
2011년
8,587 명

2021년
14,113 명

해외 의료 봉사 인원 / 2012~2020년

116 명





해외 의료관광객 수 / 2015~2021년

31,095 명



핵의학과 검사 건수 / 2021년

50,955 건

2011년	51,330 건
2001년	9,441 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건수 / 2021년

9,108,042 건

2011년	6,366,290 건
2001년	5,109,673 건

병리과 검사 건수 / 2021년

61,084 건

2011년	56,787 건
2001년	37,719 건

02 한눈에 보는 한양대학교병원 1972-2022

1972

5월 동양 최대 대학병원 개원
국내 최초 육아 상담실 개설
국내 최초 의학용 레이저 도입
국내 최초 비알레르기 클리닉 개설
국내 최초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개설
8월 뇌파실 개설

1973

5월 통증클리닉 개설, 국내 최초 Electric acupuncture 도입
9월 감염내과 설립

1974

4월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개설

1975

10월 인공신장실 설치하여 혈액투석 시작

1976

4월 마취통증의학과, 개심술 마취 시작
5월 재활의학과 개설
근전도실, 작업치료실 및 의지보장구 제작실 개설

1977

1월 의료보호병원 지정(제106호)
8월 헌혈혈액원 지정(제33호)
9월 서울특별시 건강 진단증 발급 의료기관 지정(제4-2호)

1978

4월 신장이식 시작
5월 방사선종양학과, 코발트-60 원격 치료기 도입
12월 이식 및 혈관외과 시작

1979

1월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
5월 신관 증축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개설
7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요양취급기관(제11100184호)과
전국 의료보험연합회 요양 취급기관 지정
9월 국내 최초, 소아외과 독립적 진료 개시
10월 방사선종양학과, Cs-137밀봉소선원 도입 강내 치료 시작

1980

3월 일반외과,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 및 내분비외과,
위장외과로 세분화 진료 시작
7월 5,123평의 T관 증축공사를 준공(지상 10층)
9월 재활의학과에 언어치료실 설치

1981

2월 병상수 800병상 인가
3월 국내 최초, 내과 분과 개설(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5월 국내 최초, 초음파 진단장치(일본 Toshiba) 도입
10월 국내 최초, 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내시경적 경화요법 도입

1982

2월 야간응급 환자 진료 구급병원(성동구 17호) 지정
3월 동관 신축

5월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9월 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 장기은행 설립 신경외과, 수술현미경을 이용한 경추추간공 경유 골증식체 제거술 시행

1983

4월 수련교육 및 수련병원 인가
신경과 개설

12월 중앙 교수연구실 설립

1984

3월 별관 준공

4월 병상수 900병상 인가
신경과 개설(신경내과에서 독립)

9월 조직병리과 신설(임상병리과에서 독립)
방사선 촬영실 cine 촬영기(OPTIMMUS M200) 도입
흉부외과·소아심장 등과 함께 심도자술 시행

10월 중환자실~총 25병상으로 확장
(개심술 환자와 폐수술 환자를 위한 10병상의 중환자실 증축)

1985

1월 중앙 교수연구실 설립

2월 X-ray 필름 창고 준공(본관 6층)

3월 혈액종양내과 개설

4월 백남심장센터 개설

9월 의약품 부작용 정보수집 모니터병원 지정(제24호)

1986

6월 해부병리과 및 결핵과 개설

12월 치료방사선과학교실 분리 독립

1987

2월 국내 최초,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암 유전자 발현의 조직 표본 내 유전자 재결합 반응 성공

5월 비뇨기과, 내시경적 절석술 도입

6월 이비인후과, 음향비강통기도검사기 도입

8월 노동조합 설립신고

1988

1월 가정의학과 개설

3월 원내 친목 서클 '산악회' 발족

1990

2월 응급실, 수술실 증축공사 준공

5월 산부인과, 습관성 유산 클리닉 개설

10월 수술실 4실 증설하여 총 14실로 운영

11월 국내 최초, 쌍둥이(Siamese twins) 분리수술 성공

1991

1월 국내 최초, 순수 신장기증
국내 최초, 신장 교환이식 프로그램 개발

3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진료비 지원사업 시작

6월 뇌파실, 근전도 검사실을 신경생리검사실로 통합

7월 응급의료병원 지정(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

9월 병상수 1,100병상 인가

10월 전자내시경 도입

02

1992

5월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산업보건센터 개설
6월 국내 최초, 대한위암연구동우회 전국 규모 스터디 그룹 결성
7월 안과, 엑시머레이저(굴절교정) 도입
9월 재활의학과, Cybex실 개설
12월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3차진료기관)

1993

1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체재로 개편
신경생리검사실 개설
3월 산업보건센터 개설
심사과 검수계 독자적 운영
직원 서클 모임 '기우회' 설립
4월 직원 서클 모임 '낚시 동호회' 발족
소화기내과 함준수 교수, 유한의학상 수상
7월 장기이식센터 개설
9월 천식 및 알레르기 클리닉 개설
10월 산부인과, 인공수정연구실 설치

1994

1월 국내 최초, 족부변형클리닉 운영
비뇨기과, 요역동학 검사기 도입
4월 한양의료원보 창간
암센터 개설
7월 장기이식센터 개설
9월 아프리카 르완다 의료봉사단 파견

1995

1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5월 심장전문 Cine 촬영기(HICOR INTERATED SYSTEM 2, SIEMENS) 도입
이중헤드 SPECT 감마 카메라 설치
6월 검수과 전환, 한양대하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통합관리
초음파 백내장유화술 도입
9월 비뇨기과, Genenstone190기종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도입
뇌파실, 23channel 뇌파기 도입
12월 주차빌딩 건물 준공

1996

1월 비뇨기과, 복강경 수술 도입
9월 한양의료원보 편찬위원회 구성(위원장 비뇨기과 이춘용 교수)
11월 한양대학교병원 공식 명칭 사용

1997

3월 핵의학과 개설
응급의학과 개설
4월 산업의학과 개설
5월 가정간호사실 개설
11월 진료의뢰센터 개설

1998

1월 순환기내과, 심장내과로 명칭 변경
3월 응급의학과 개설
의학연구실 설립
기획홍보과, 진료안내 책자 발간
5월 국내 최초, 진단면역과 개설
8월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hmc.hanyang.ac.kr) 운영

9월 한국복지재단 '사랑의 리퀘스트'와 계약 체결

10월 산부인과, 체외수정실 운영 시작

1999

7월 기획홍보과 개정

9월 국내 최초, 수중 분만

10월 예산제도와 규정집 편찬

2000

1월 조혈모이식센터 개소

'의료원 비전 2000 설명회' 개최

'의료원 화합의 밤' 행사 개최

신장이식 수술 500례 돌파

2월 의료원 첫, 기획과 본예산 편성

3월 정신건강의학과, 낮병원 운영 시작

'의료원 경영방침 설명회' 개최

소화기센터 설립(내과·외과·소아과·방사선과 협진)

3S운동(Smile, Stand-up, Say+1) 실시

'환자 권리장전' 선포

고객 만족도 조사 시작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

사무국 신설

총무과에서 노무과로 별도 분리

관리부가 사무부로 편제

4월 이비인후과, 전정기능검사실 개설

5월 '2000 한양 류마티스 전시관' 개관

신경정신과 낮병동 운영 시작

원보 〈한양의료원보〉를 〈한양의료원소식〉으로 제호 변경

6월 골수이식실 업무 시작

신경과, 경두개 초음파 검사실 개설

7월 서관 장례식장 개관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실 동관 4층에서 5층으로 이전

외래진료실 4개, 처치실 2개로 확장

일상생활동작실 및 소아치료실과 동서의학진료실 개설

8월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12월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가동

심초음파기(SeQuoiac 256, Acu-son) 도입

2001

1월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개소

병상수 970병상 조정

3월 전화 예약팀 신설

의료원 첫, 행정직에 대한 업무 심사

4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실시

원목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시작

5월 이비인후과, 유발이음향방사기기 도입

6월 경두개강초음파 검사실 개설 및 장비 도입

진료 회신제도 실시

안과, 전안부와 후부수술이 모두 가능한 밀레니엄 SET 도입

7월 시신경유두분석기 HRT 도입

8월 의료원 QA실장 및 각 병원, 홍보실장 위촉

9월 호흡기센터 개소

의무기록과, 의무기록 광파일 전환

동종골수이식 시행

10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1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영문·한글 안내 책자 발간

02

2002

1월 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3월 의료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한글·영문 안내책자 제작 배포
유방재건성형클리닉 개설
안과, Argon laser 도입

4월 한양대학교병원 30년사 발간

5월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8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난치병 학생 수술 및
치료에 따른 의료비 감면계약 체결

9월 정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 EMDR 도입 및 개관

11월 일반외과를 외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변경

12월 비전 21C 프로젝트 발표

2003

2월 대대적 리모델링 완료

3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가동
전 교직원 대상, 의료원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기획위원회 워크샵 개최

4월 '사랑나눔 환자돕기' 농구대회 개최

5월 의료원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서비스아카데미 사내 전문 강사교육 실시

7월 인공신장센터, CRRT 시작

9월 사이버한양센터 개설
한양서비스아카데미(HYSA) 기획실 신설

10월 서비스아카데미 개소

12월 안과, 펠로우(망막) 시스템 시작 및 Imagement system 도입

2004

2월 행정업무 지침서 발간
학대아동보호위원회 설립

3월 안과, 외래 증축 리모델링 및 안저촬영실 개설

4월 가정의학과, 평생건강관리클리닉 도입

5월 치과, 진료실 확장 및 리모델링(유니트체어 20대)

7월 Set Menu 개발 워크샵 개최

9월 병상수 933병상 조정
PET-CT 공동운영방식 도입

11월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치과 보존 클리닉, 치주 클리닉 개설

2005

1월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재해 지역 파견 의료봉사

2월 안과, A/B Scan Ultrasound 도입

4월 환자의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한 SMS
(Short Message Service) 도입

6월 불임클리닉 개소

8월 한양대학교의료원 국무총리 표창

9월 'Rise Up Korea 910대회' 의료 지원
산부인과, 가족분만실 설치
기자실과 홍보실 통합, 의료원 홍보 강화

11월 한양대학교병원 어린이학교 개교
신경과 루게릭환자 조직 bank 운영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증식 및 임상응용 기술 개발과
암 질환의 효 과적 치료를 위한 진단 마커 개발

2006

2월 아시아 최초, 원격 로봇수술
성공(차세대지능형수술시스템개발센터 및 일본 규슈대와 공동 진행)
6월 고객지원센터 설립
7월 강원도 평창군 수해 지역 의료봉사단 파견
9월 제2차 아시아국제 컴퓨터유도수술학회 시술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제13대 이사장 신경외과 오석전 교수 선출
11월 제75회 '파랑새음악회' 공연
12월 '송년 칭찬 릴레이 잔치' 행사 개최

2007

1월 업무자동화(그룹웨어) 가동
방사선종양학과, Linear Accelerator 가동
2월 병상수 889병상 조정
루게릭병클리닉 개소
사회사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
2007 Hanyang Bio Med Fair 개최
3월 성형외과, 한양심포지엄 개최 시작
진단방사선과에서 영상의학과로 변경(법률제8092호개정)
영상의학과, 신규 64-slice CT 도입 및 가동
복강경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개발
음성언어검사실 개설
5월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나눔의 장터' 행사 개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의료기관 선정
6월 건강보험상담센터 개소
'임뮤노씽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기금 2차 전달식 개최
전자진료시스템 구축 완료
한양대학교의료원 부서장 워크숍 개최
'100인 100협력병원 갖기 운동' 발대식 개최
7월 성동구 치매센터 개소
8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인민병원과 학술 교류 협정 체결
10월 간호부 1004 day 개최
환경보전 우수 모범 환경병원 선정
11월 인지기능검사실 개설
비뇨기과, 제1회 전립선 친우회 개최
12월 성동구 상공회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 개최
파킨슨병클리닉, 뇌졸중클리닉, 치매클리닉 개소

2008

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
충남 태안 반도 기름 유출 노·사 공동 자원봉사
2월 성동구 보건소와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 협약 체결
3월 성과급제(KPI) 도입
노인성뇌질환 클리닉 개설
암센터 새롭게 개소(본관 3층)
4월 응급구조사 수련병원 지정
신장이식수술 800례 달성
재활 전문 치료 러스크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조합원과 함께하는 태안 반도 자원 봉사
5월 '한양대병원과 함께하는 나눔 장터' 개최
성동경찰서와 진료지정병원 협약식
6월 여성종합진료센터 개소
제5회 한양대병원 전공의 워크숍 개최
'500원의 희망선물 병원학교' 입주식 시행
7월 소아청소년과 병동 리모델링 완료
소아청소년과 육아지도실, 영유아 건강 검진 시작
광진소방서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 체결
8월 갑상선암 방사선 동위원소 옥소치료 전용병실 가동
방사면역검사 재가동
인공신장센터, 온라인 혈액투석 여과법 실시
9월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극복의 날' 우수기관 선정
10월 간호부 '1004 day' 개최
제5회 한양의대 동문 걷기대회 개최
HY MIT 로봇수술센터 개소

02

사랑 나눔 의료인 음악회 개최
이비인후과, 수면다원검사 시작

11월 성동구 서울숲 'U-health Park Zone' 서울시와 공동 운용
성동구 의사회 송년의 밤 개최
국내 최초, 이비인후과에서 로봇 갑상선 수술 시작

12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 한양대학교병원 발전
후원 바자회 개최
사랑의 실천을 위한 불우이웃성금 마련 행사 개최
의료법인 OMC 의료재단 중앙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립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개교 3주년 기념 행사

2009

1월 제21회 '2009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2월 서울메트로(한양대역, 뚝섬역)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 체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료 지정병원 재협약
이안행복치과의원 외 10개 의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임상교원 1 SESSION 더 진료하기 방안 및 물류 개선 방안 마련

3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진료 지정병원 협약 체결
미숙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시작

5월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

6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전 항목 A등급 획득

8월 다빈치 로봇수술 100례 달성
국내 최초,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진료지원부서
정식 편제, 독립 운영

10월 소화기센터 리모델링 완료 및 개소식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참석

12월 신경정신과 병동 리모델링 오픈
국가암 관리사업 평가대회, 외과 권성준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성동구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및 인지건강센터 협약 체결

2010

1월 '환자 안전 지킴이' 발대식 개최
성동구 보건소와 '이른둥이 안심프로젝트' 협약 체결

3월 국내 최초, 안과 ophthalmoscope digtal scanning laser
F-10 도입
고객을 위한 365일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파킨슨병 환자 '뇌심부자극술' 비용 지원
전직원 워크숍 개최

4월 병상수 조정(241병실, 837병상→241병실, 839병상)
문제 중심 학습 방법 및 표준화 환자교육 시범적으로 도입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문제 중심 학습 방법 및 표준화
환자교육 시범적으로 도입, '보건의 날' 대통령 표창
다빈치 로봇수술 200례 돌파

5월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 개소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특성화센터로 선정
제38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 'JUMP! HY3020' 선포식

6월 한양대학교의료원과 광릉포레스트 컨트리클럽,
진료 협력 MOU 체결
금연클리닉 개설

7월 응급의료서비스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신경과 병동 리모델링 완료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참여

8월 국내 최초, 의무부총장제 도입
경영혁신위원회 신설

9월 국내 최초, 식약처 루게릭병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임상연구지원과, 독립된 부서 설립
호흡기내과, 영월군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지역주민 현장진료 서비스
환경미화 업무(의료폐기물 관리, 미화 용역 포함),
비상계획과에서 물류지원과로 이관

10월 한양의대 동문 학술대회 및 '2010 한양의대인의 밤' 개최
18층 병동 리모델링 후 음압병실 운영

이비인후과 정성뇌간유발반응기기 도입

11월 사이클로트론센터 기공식 개최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협력병원 선정

비뇨기과 이춘용 교수, 로봇 수술 100례 달성

12월 성동구청장 표창장 수상

2010 사보대상 수상

의료법인 동하의료재단 한마음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2011

1월 한양대학교의료원 미션 및 비전 선정

지역약물감시센터 개소식 개최

성동구 개원의 대상 일요 영양상담

2월 기획과, 의료원 규정 재정비

3월 신생아집중치료실 리모델링 완료

5월 갑상선·두경부종양센터 개설

6월 노사가 함께하는 헌혈 행사 개최

KT Mobile Hospital 시연회 개최

7월 병원 신임평가, 2011년도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의약 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서명식

전사자 실기시험 실시

'HY 건강멘토링'제도 시작

백남심장센터 심혈관중재연구회로부터 심혈관시술 중재기관으로 인증

8월 적정진료위원회 설치

Hanyang Heart Safety Zone 선포식

9월 신생아 집중치료실 일원화

10월 사이클로트론 센터 완공

11월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기관 선정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개최

성동구 의사회 송년회 개최

영월군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폐질환 환자 무료 검진 실시

퇴원 환자 고객 만족도 우수 부서 시상식 개최

정형외과 병동 리모델링 완료

12월 혈액종양내과, CCSC 특성 분석 및 치료 예후 예측 활용을 위한 임상적용 유효성 검증 기술 개발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2011. 10 ~ 12월) 결과 1등급 획득

여주군과 진료 협약 체결

2012

1월 토요일 진료 전면 실시

인공와우 기관 선정

2월 다빈치 로봇수술 400례 돌파

한양대학교병원 10대 뉴스 선정 발표

3월 신속대응팀(RRT) 구축

4월 한양대학교병원 신한플라자 신축

건강검진센터·직업환경의학과 개소

5월 개원 40주년 기념식 행사

성동구청과 함께하는 암극복 프로젝트

건강검진센터·직업환경의학과 개소

싸이클로트론센터 내 소동물용 실험장비 Triumph MicroPET/CT/SPECT 장비 설치

한양대학교의료원 3대 암 수술 사망률 평가 1등급

6월 암맞춤의료센터 개소

7월 심혈관촬영실 20,000례 돌파

12월 급성심근경색 및 급성기 뇌졸중 치료 2년 연속 1등급 선정

부인종양센터 개소

2013

2월 심뇌혈관 집중치료실 개소

3월 재활의학과 리모델링 완료

6월 피부과 리모델링 완료

10월 병상수 조정(264병실, 805병상→252병실, 825병상)

02

2014

5월 세월호 침몰사고 의료지원

6월 서관 증축

노발리스티엑스센터 개소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리모델링 완료

7월 인사고과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제4기 함께한대 캄보디아 해외봉사

9월 암센터 다학제협력 진료 시작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12월 인공신장센터 리모델링 완료

2015

2월 한양여자대학교 인턴사원 MOU 체결

3월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개소

5월 심혈관촬영실·하이브리드 수술실 개소

6월 호흡기알레르기검사실 개소

10월 맞춤형비만치료센터 개소

2016

1월 세계 최초, ALS 세포치료제(자가골수유래 성체줄기세포)

개발 및 상용화

2월 병상수 조정(252병실, 825병상→251병실, 828병상)

4월 심혈관촬영실 하이브리드 첫 수술

영상의학과 최신 MRI 장비 도입

(dStream Achieva Conversion)

전 교직원 한마음걷기대회 개최

5월 도박 중독 전문 의료서비스 시작

9월 국내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엠케어 도입

12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준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소

병상수 조정(251병실, 828병상→243병실, 846병상)

2017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4월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5월 개원 45주년 한마음걷기대회 개최

9월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 전면 도입

인체유래물은행 신설

1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확장 개소

감정노동 힐링365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 선정

12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학연구원 발족

2018

1월 함께한대 제2회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4월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돌파

메디블록과 개인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5월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 최초, 한국인 특이 유전학적 특징 기반

신경세포 분화 방법 개발

9월 민관군 합동 재난대비 구조 종합훈련 개최

10월 단양군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12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관 12층 확대 시행

의학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2019

2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3월 병원 리모델링 완료 및 의료서비스 개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해 의료진 대구, 김제 파견

4월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3회 연속 1등급 선정

7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건강전문채널 Hihy 건강저장소 운영

11월 3D 맵핑 시스템·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 도입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대구경북첨담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의료산업과

의료학술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2020

1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

2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3월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해 의료진 대구, 김제 파견

5월 통합 의국 개소

9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국내 최초, 진료 상황 가상현실 시스템 블루룸 도입

12월 세계 최초, 루푸스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46개 구명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2021

2월 세계 최초, 인간 간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방법 개발

6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개소

12월 골수염클리닉 개소

2022

1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기술원(HY-IBB) 개소

LG AI 연구원과 초거대 AI 연구 양해각서 체결

최첨단 3D 의료장비 갖춘 유방검진센터 운영

암센터 다학제 협진 진료 1000례 돌파

03 한눈에 보는 류마티스병원 1989-2022

1989

2월 국내 최초, 류마티스내과 분과 개설
6월 류마티스센터 설립

1993

11월 국내 최초, 류마티즘연구소 개설

1994

9월 국내 최초, 관절염 및 류마티즘에 관한 자연복원 의학 도입

1996

4월 류마티스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1997

3월 류마티스병원 설립

1998

5월 뉴욕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 자매결연
국내 최초, 류마티스병원 개원, 전일 진료 개시,
6개 진료과 개설(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재활의학과,
류마티스통증의학과, 류마티스정형외과,
류마티스진단면역과, 류마티스방사선과)

2003

10월 류마티스병원 직제 개편, 12개 진료과(루푸스과,
난치성관절염과, 경피증·근염과, 강직성척추염과, 혈관염과,
관절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골·관절외과, 조기관절염과,
류마티스영상의학과, 진단면역과, 면역혈액과)

2005

7월 류마티스병원 25개 병·의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10월 류마티스병원 1998 규정집 직제로 진료과 명칭 복원 및
개편

2006

1월 류마티스병원 임상연구센터 개소

2007

5월 류마티스병원 개원 9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8

5월 류마티스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11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CRCRA)'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연구 개시

2009

4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개소
6월 제3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0

5월 류마티스병원 새 병동 이전(본관 17층), 45병상

2011

6월 류마티스병원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2

2월 류마티스병원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기획 과제 선정
12월 류마티스병원 2012 메디컬코리아대상 수상

2016

1월 세계 최초 루푸스 원인 유전자 및 발병 기전 규명

2019

1월 류마티즘연구원 개편

2020

8월 세계 최초로 류마티스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규명
12월 세계 최초, 루푸스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46개 구명

04 한눈에 보는 국제병원 2002-2022

2002

12월 미8군 121의무사령부와 MOU 체결

2003

7월 국내 최초, 국제병원협력병원 개원
국제협력병원 종합검진 시작
9월 국제협력병원 미8군지정병원 지정

2004

11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과 진료 의뢰병원 협약 체결

2005

1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과 진료 의뢰병원 협약 체결

2006

5월 미8군 제18의무사령부 감사장 수여(안유헌 교수)

2007

5월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몽골 울란바토로 시와 의료 협약식 체결

2009

7월 국제병원으로 명칭 변경
8월 사할린 보건관리국 국가의료기관 사할린주병원과 협력 체결
11월 러시아, 베트남 의료계 팸투어

2010

1월 2009 한국관광공사 선정 의료관광 최우수 의료기관
국제병원 로비 리모델링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의료계 팸투어

2011

5월 몽골국립병원과의 협력병원 MOU체결
7월 우즈베키스탄 의료계 팸투어
9월 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과 교류 협정 체결

2014

12월 국제병원,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
검진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9

3월 종합검진센터 640채널 CT 설치
4월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과 협약 체결
6월 몽골 국가암센터와 MOU 체결

05 역사와 함께하는 심볼마크의 변천사



1972 ~1996. 9.



1996. 10. ~ 2010. 5. 2. 2010. 5. 3. ~ 현재

한양대학교의료원 심볼마크는 1972년 병원 설립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초창기 심볼마크는 1959년 한양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됐을 때 공대 재학생이 공모한 심볼을 발전시킨 것이다. '으뜸'과 '큼'을 상징하는 '한' 자의 윤곽 안에 한양대학교를 뜻하는 한자가 들어 있다. 1996년부터는 건학년도, 건학정신을 표기해 한양의 역사와 뿌리를 표현했으며, 교화인 개나리를 통해 '인류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형상화 했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심볼을 바탕으로 병원을 상징하는 요소를 추가, 한양대학교의료원만의 심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로는 한양대학교를 상징하는 '한양블루' 컬러를 적용한 심볼을 사용하고 있다.

심볼마크의 의미

원

전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양인의 의지를 원으로 형상화해, 기존 엠블럼의 형태를 단순화했다.

HANYANG UNIVERSITY

세계와 미래를 향해 눈부시게 뻗어 나가는 본교의 진취적 기상과 세계 속의 한양을 담아내고 있다.

1939

건학년도인 1939를 표기함으로서 한양의 역사를 상징, 숭고한 건학정신을 계승하며 전통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지

'으뜸'과 '큼'을 상징하는 '한'자의 윤곽에 한양을 새긴 최초 배지를 축소한 것으로 한양을 상징하던 뱃지의 대표성과 의미를 살리면서, 개교 이래 이어온 한양의 정기와 굳건한 기반을 나타내고 있다.

국영문 조합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영문 조합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중영문 조합

漢陽大學校病院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漢陽大學校病院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국문/중문 세로 조합

한양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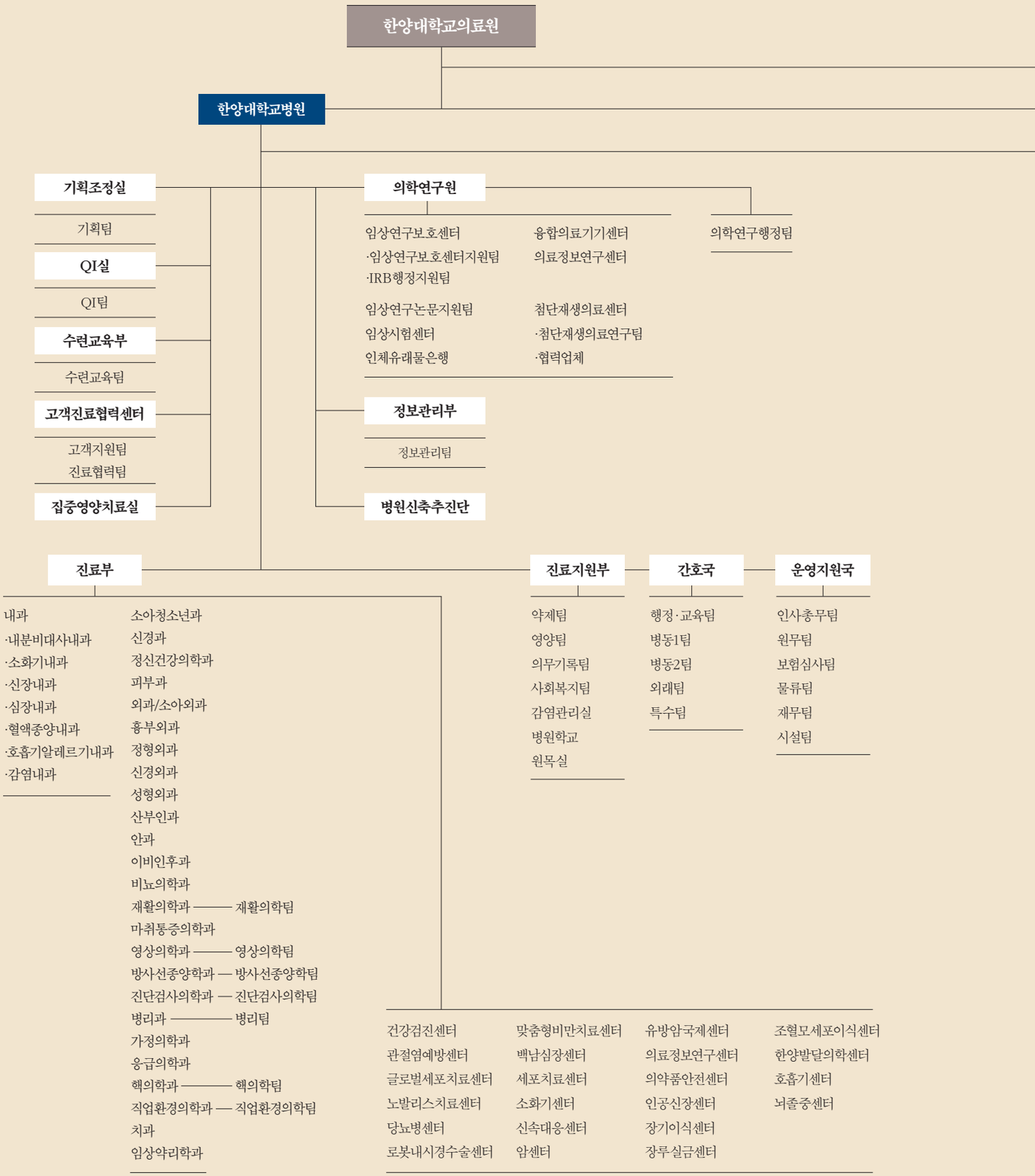
漢陽大學校病院

Main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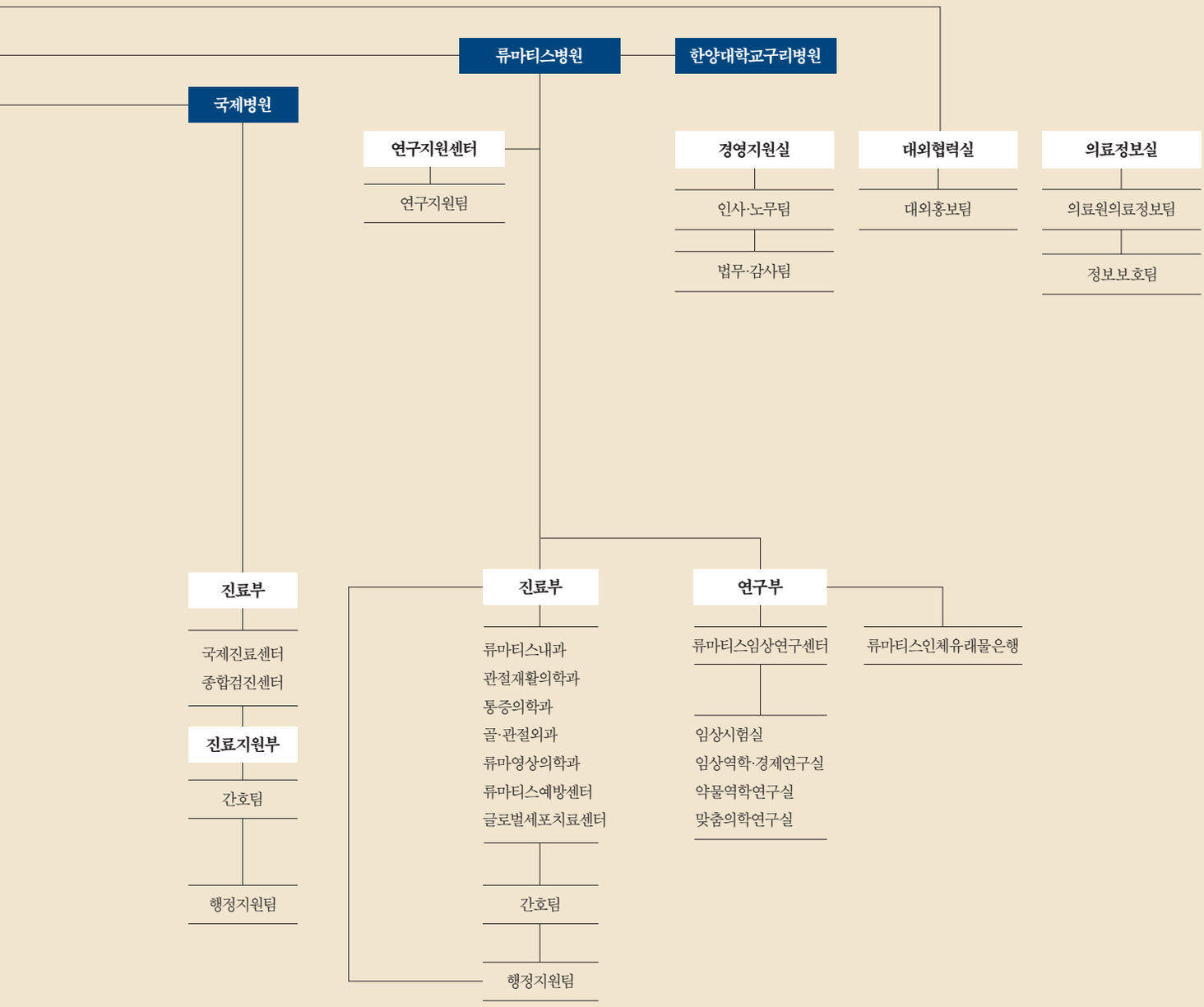
Pantone 2945C

Hanyand Blue
C 100
M 73
Y 27
K 0

06 병원 조직도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기획팀
QI실
QI팀
수련교육부
수련교육팀
고객진료협력센터
고객지원팀
진료협력팀
집중영양치료실
의학연구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임상연구보호센터지원팀
·IRB행정지원팀
임상연구논문지원팀
임상시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융합의료기기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
첨단재생의료센터
·첨단재생의료연구팀
·협력업체
의학연구행정팀
정보관리부
정보관리팀
병원신축추진단
진료부
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소아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팀
방사선종양학과 — 방사선종양학팀
진단검사의학과 — 진단검사의학팀
병리과 — 병리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 핵의학팀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팀
치과
임상약리학과
진료지원부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복지팀
감염관리실
병원학교
원목실
간호국
행정·교육팀
병동1팀
병동2팀
외래팀
특수팀
운영지원국
인사총무팀
원무팀
보험심사팀
물류팀
재무팀
시설팀
건강검진센터
관절염예방센터
글로벌세포치료센터
노발리스치료센터
당뇨병센터
로봇내시경수술센터
맞춤형비만치료센터
백남심장센터
세포치료센터
소화기센터
신속대응센터
암센터
유방암국제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
의약품안전센터
인공신장센터
장기이식센터
장루·실금센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한양발달의학센터
호흡기센터
뇌졸중센터

2022. 3. 24. 기준


류마티스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제병원
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
법무·감사팀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의료정보실
의료원의료정보팀
정보보호팀
진료부
국제진료센터
종합검진센터
진료지원부
간호팀
행정지원팀
진료부
류마티스내과
관절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골·관절외과
류마영상의학과
류마티스예방센터
글로벌세포치료센터
간호팀
행정지원팀
연구부
류마티스임상연구센터
임상시험실
임상역학·경제연구실
약물역학연구실
맞춤의학연구실
류마티스인체유래물은행

07 역대 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

역대 의료원장



초대

이병희 교수

1972. 5. 3. ~ 1976. 3. 31.



제2대

이봉모 교수

1976. 4. 1. ~ 1976. 7. 31.



제3대

김연준 총장

1976. 8. 1. ~ 1981. 10. 14.



제4대

박종무 교수

1981. 10. 15. ~ 1988. 8. 31.



제5대

김순용 교수

1988. 9. 1. ~ 1989. 7. 9.



제6대

고응린 교수

1989. 7. 10. ~ 1991. 8. 31.



제7대

고광욱 교수

1991. 9. 1. ~ 1995. 12. 31.



제8대

김동한 교수

1996. 3. 1. ~ 1999. 2. 28.



제9대

안경성 교수

1999. 3. 1. ~ 2002. 2. 28.



제10대

문형 교수

2002. 3. 1. ~ 2004. 2. 29.



제11대

김명호 교수

2004. 3. 1. ~ 2006. 2. 28.



제12대

최일용 교수

2006. 3. 1. ~ 2010. 7. 31.



제13·14대

박성수 교수

2010. 8. 1. ~ 2013. 7. 31.



제15대

박충기 교수

2013. 8. 1. ~ 2015. 7. 31.



제16·17대

김경헌 교수

2015. 8. 1. ~ 2019. 2. 28.



제18대

최호순 교수

2019. 3. 1. ~ 현재

역대 의무부총장



초대

최일용 교수

2009. 12. 1. ~ 2010. 7. 31.



제2·3대

박성수 교수

2010. 8. 1. ~ 2013. 7. 31.



제4대

박충기 교수

2013. 8. 1. ~ 2015. 7. 31.



제5·6대

김경헌 교수

2015. 8. 1. ~ 2019. 2. 28.



제7대

최호순 교수

2019. 3. 1. ~ 현재

08 역대 병원장

역대 한양대학교병원장



초대

박석련 교수

1972. 5. 3. ~ 1973. 5. 31.



제2대

김종설 교수

1973. 6. 1. ~ 1976. 10. 31.



제3대

손의석 교수

1976. 11. 1. ~ 1980. 5. 31.



제4대

김광회 교수

1980. 6. 1. ~ 1983. 2. 28.



제5대

김기홍 교수

1983. 3. 1. ~ 1986. 2. 28.



제6대

정환영 교수

1986. 3. 1. ~ 1987. 2. 28.



제7대

고응린 교수

1987. 3. 1. ~ 1989. 7. 9.



제8대

김동한 교수

1989. 7. 10. ~ 1991. 8. 31.



제9대

안경성 교수

1991. 9. 1. ~ 1994. 8. 31.



제10대

이정균 교수

1994. 9. 1. ~ 1997. 9. 9.



제11대

곽진영 교수

1997. 9. 10. ~ 2001. 2. 28.



제12대

최일용 교수

2001. 3. 1. ~ 2003. 2. 28.



제13대

우영남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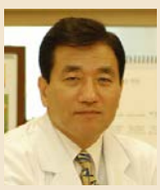
2003. 3. 1. ~ 2005. 2. 28.



제14대

조재림 교수

2005. 3. 1 ~ 2007. 2. 28.



제15대

안유헌 교수

2007. 3. 1. ~ 2009. 2. 28.



제16대

남정현 교수

2009. 3. 1. ~ 2011. 2. 28.



제17대

이춘용 교수

2011. 3. 1. ~ 2013. 2. 28.



제18대

권성준 교수

2013. 3. 1. ~ 2015. 7. 31.



제19대

이광현 교수

2015. 8. 1. ~ 2019. 2. 28.



제20대

윤호주 교수

2019. 3. 1. ~ 현재

역대 류마티스병원장



초대

김성윤 교수

1997. 3. 1. ~ 2001. 5. 31.



제2대

김신규 교수

2001. 6. 1. ~ 2005. 7. 31.



제3대

배상철 교수

2005. 8. 1. ~ 2019. 2. 28.



제4대

유대현 교수

2019. 3. 1. ~ 2021.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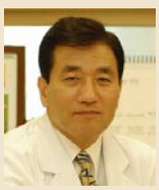


제5대

김태환 교수

2021. 3. 1. ~ 현재

역대 국제병원장



초대, 제2대

안유헌 교수

2003. 3. 1. ~ 2007. 2. 28.



제3대

이민호 교수

2007. 3. 1. ~ 2009. 2. 28.



제4·5대

김정현 교수

2009. 3. 1. ~ 2013. 2. 28.



제6대

고용 교수

2013. 3. 1. ~ 2015. 7. 31.



제7대

윤호주 교수

2015. 8. 1. ~ 2019. 3. 31.



제8대

이오영 교수

2019. 4. 1. ~ 2021. 2. 28.



제9대

이항락 교수

2021. 3. 1. ~ 현재

09 역대 주요 보직자

역대 경영지원실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갑훈	1981. 9. 1. ~ 1988. 11. 9.	사무국장
이영봉	1988. 11. 10. ~ 1993. 8. 31.	사무국장
백재흠	1993. 9. 1. ~ 2000. 2. 29.	행정원장
황환용	1993. 9. 01. ~ 1999. 2. 28.	사무국장
원훈	2000. 3. 01. ~ 2002. 10. 31.	사무국장
윤영희	2003. 3. 1. ~ 2005. 8. 31.	사무국장
권봉열	2005. 9. 1. ~ 2006. 2. 28.	사무국장
김도철	2006. 3. 1. ~ 2008. 6. 30.	사무부장
황성우	2008. 10. 1. ~ 2018. 2. 28.	경영지원실장
조영완	2018. 3. 12. ~ 2021. 8. 31.	경영지원실장
전헌효	2021. 9. 1. ~ 현재	경영지원실장

역대 부원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이정균	1989. 7. 10. ~ 1994. 8. 31.	제1 부원장
정풍만	1988. 9. 1. ~ 1994. 8. 31.	제2 부원장
김재홍	1991. 9. 1.~ 1994. 8. 31.	제3 부원장
정풍만	1994. 9. 1. ~ 1997. 2. 28.	제1 부원장
김재홍	1994. 9. 1. ~ 2001. 2. 28.	제2 부원장
곽진영	1997. 3. 1. ~ 1997. 9. 9.	제1 부원장
박경남	1997. 9. 10. ~ 2001. 2. 28.	제1 부원장
함준수	2001. 3. 1. ~ 2003. 2. 28.	부원장
남정현	2003. 3. 1. ~ 2005. 2. 28.	부원장
박철원	2005. 3. 1. ~ 2007. 2. 28.	부원장
오석전	2007. 3. 1. ~ 2009. 2. 28.	부원장
이광현	2009. 3. 1. ~ 2011. 2. 28.	부원장
김동원	2011. 3. 1. ~ 2013. 2. 28.	부원장
김혁	2013. 3. 1. ~ 2015. 7. 31.	부원장
김근호	2015. 8. 1. ~ 2017. 7. 31.	부원장
김혁	2017. 8. 1. ~ 2019. 3. 31.	부원장
송순영	2019. 4. 1. ~ 현재	부원장

역대 기획조정실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기홍	1972. 2. 1. ~ 1980. 5. 31.	기획관리실장
원치규	1980. 6. 1. ~ 1982. 7. 15.	기획관리실장
정풍만	1983. 9. 06. ~ 1988. 8. 31.	기획관리실장
서홍석	1999. 10. 22~ 2001. 7. 31.	기획관리실장
김정현	2001. 8. 1~ 2003. 2. 28.	기획관리실장
이춘용	2003. 3. 1. ~ 2005. 2. 28.	기획관리실장
남정현	2005. 3. 1. ~ 2007. 2. 28.	기획관리실장
권성준	2007. 3. 1~ 2009. 2. 28.	기획관리실장
최호순	2009. 3. 1. ~ 2013. 2. 28.	기획관리실장
윤호주	2013. 3. 1. ~ 2015. 7. 31.	기획관리실장
이오영	2015. 8. 1. ~ 2019. 3. 31.	기획조정실장
김혁	2109. 4. 1 ~ 2021. 2. 28.	기획조정실장
이형중	2021. 3. 1. ~ 현재	기획조정실장

역대 연구부원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최동호	2019. 7. 1. ~ 현재	연구부원장

역대 정보관리부원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이석	2020. 6. 23. ~ 현재	정보관리부원장

역대 병원신축추진단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임태호	2021. 9. 1. ~ 현재	병원신축추진단장

역대 대외협력실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윤호주	2001. 9. 1. ~ 2004. 3. 24.	기획홍보실 홍보부장
김영수	2004. 3. 25. ~ 2008. 4. 30.	기획홍보실 홍보부장
김동원	2008. 5. 1. ~ 2009. 10. 31.	홍보실장
윤호주	2009. 11. 1. ~ 2011. 10. 31.	대외협력실장
최충혁	2011. 11. 1. ~ 2013. 2. 28.	대외협력실장
전재범	2013. 3. 1. ~ 2015. 2. 28.	대외협력실장
이항락	2015. 3. 1. ~ 2021. 2. 28.	대외협력실장
김희진	2021. 3. 1. ~ 현재	대외협력실장

역대 운영지원국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임정규	2000. 3. 20. ~ 2002. 8. 31.	사무부장
조명기	2002. 9. 1 ~ 2003. 9. 14.	사무부장
권봉열	2003. 9. 15. ~ 2005. 8. 31.	사무부장
김종만	2005. 9. 1. ~ 2008. 8. 31.	사무부장
천재익	2008. 9. 1. ~ 2011. 8. 31.	사무부장
노동환	2011. 10. 1. ~ 2012. 8. 31.	사무부장
서재관	2012. 9. 1. ~ 2015. 12. 31.	운영지원국장
조영완	2016. 1. 1. ~ 2018. 3. 11.	운영지원국장
전헌효	2018. 3. 12. ~ 2021. 8. 31.	운영지원국장
김대성	2021. 9. 1. ~ 현재	운영지원국장

역대 간호국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양막지	1972. 3. 15 ~ 1974. 5. 31	간호과장
라명희	1974. 6. 1 ~ 1989. 7. 10	간호부장
윤석희	1989. 7. 11 ~ 1995. 2. 28	간호부장
박영실	1995. 3. 1 ~ 1999. 2. 28	간호부장
유은정	1999. 3. 1 ~ 2001. 2. 28	간호부장
신덕신	2001. 3. 1 ~ 2004. 8. 15	간호부장
김익선	2004. 8. 16 ~ 2006. 8. 31	간호부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전성숙	2006. 9. 1 ~ 2008. 8. 31	간호부장
박혜자	2008. 9. 1 ~ 2013. 2. 28	간호부장
애정희	2013. 3. 1 ~ 2015. 8. 31	간호국장
윤영선	2015. 9. 1 ~ 2018. 2. 28	간호국장
성정순	2018. 3. 1 ~ 2021. 8. 31	간호국장
국은영	2021. 9. 1 ~ 현재	간호국장

10 현 주요 보직자

2022. 5. 3. 기준

소속부서	성명	직책
QI팀	이도희	QI팀장
간호국	김명숙	특수팀장
간호국	김준희	병동1팀장
간호국	김진녀	병동2팀장
간호국	박정하	행정교육팀장
간호국	손유경	외래팀장
감염관리팀	권순주	감염관리팀장
고객지원팀	주광노	고객지원팀장
국제행정지원팀	박재우	국제행정지원팀장
기획팀	권오균	기획팀장
노동조합	공지현	노동조합지부장
대외홍보팀	손화선	대외홍보팀장
류마행정지원팀	강오열	류마행정지원팀장
물류팀	이창무	물류팀장
방사선종양학과	윤중천	방사선종양학과팀장
법무 · 감사팀	함두식	법무 · 감사팀장
병리과	황윤신	병리과팀장
보험심사팀	이연아	보험심사팀장
사회복지팀	성명순	사회복지팀장

소속부서	성명	직책
수련교육팀	정영덕	수련교육팀장
시설팀	주임선	시설팀장
신축추진팀	손진석	신축추진팀장
약제팀	박은재	약제팀장
영상의학과	박종국	영상의학과팀장
영양팀	김민선	영양팀장
원목실	진문일	원목실장
원무팀	양정자	원무팀장
의료원의료정보팀	김현욱	의료원의료정보팀장
의무기록팀	백기영	의무기록팀장
인사 · 노무팀	조성하	인사 · 노무팀장
인사총무팀	김동훈	인사총무팀장
재무팀	박상원	재무팀장
재활의학과	윤성익	재활의학과팀장
직업환경의학과	정태성	직업환경의학과팀장
진단검사의학과	강대혁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진료협력팀	김화선	진료협력팀장
치과	임형택	치과팀장

11 현직 교수

2022. 5. 3. 기준

기재 순서는 진료과별/성명별 가나다순으로 함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서울의대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교수	서울의대	가정의학과과장, 종합검진센터소장, 맞춤형비만치료센터장	만성피로,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내과					
감염내과	김봉영	부교수	한양의대	음압병동실장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배현주	교수	서울의대	감염내과장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내분비대사내과	김동선	교수	한양의대	당뇨병센터소장	당뇨병, 뇌하수체질환, 갑상선질환, 각종 호르몬이상
	박정환	조교수	한양의대	내분비대사내과장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대사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병원장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배상철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성윤경	교수	한양의대	임상연구보호센터장, 류마티스예방센터장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유대현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관절염, 성인형스틸병, 염증성근염, 골관절염
	전재범	교수	한양의대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조수경	부교수	인제의대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최찬범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장, 의무기록실장, 글로벌세포치료센터장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프스, 골관절염
소화기내과	윤병철	교수	서울의대		식도, 위, 대장, 내시경치료 및 초음파, 위장관기능검사
	윤아일린	부교수	고려의대		간 질환, 간암, 급.만성 및 자가면역성 간염
	윤재훈	교수	한양의대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용종,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 초음파내시경, 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강넝	교수	한양의대		식도, 위, 대장, 치료내시경(용종절제술, 식도암/위암/대장암의 내시경절제술, 내시경지혈술, 스텐트삽입술, 위루형성술, 이물제거)
	이오영	교수	한양의대		식도, 위, 대장,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및 치료, 내시경초음파, 위장관기능검사
	이항락	교수	한양의대	국제병원장	소화기, 위장관, 대장내시경,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대장용종절제술, 내시경지혈술, 내시경초음파
	전대원	교수	한양의대	소화기내과장	간 질환, 간암, 자가면역성 간염

11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소화기내과	최성지	조교수	고려의대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최호순	교수	한양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간염, 간경변증, 간암,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용종,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성질환
신장내과	김근호	교수	서울의대	인공신장센터소장	전해질 장애, 신부전, 복막투석, 고혈압, 부종
	박준성	교수	한양의대		일반 신장질환, 사구체신염,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이창화	교수	한양의대	신장내과장	만성신부전,사구체신염,혈액투석
심장내과	국형돈	조교수	고려의대		심혈관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 말초 혈관 질환, 대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경도관 대동맥 판막 치환술
	김우현	조교수	고려의대		관상 동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 혈관 질환(동맥, 정맥), 대동맥 질환, 심혈관 및 말초 혈관 중재시술
	박진규	부교수	한양의대		부정맥(상심실성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급사, 실신,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 풍선 도자 절세술, 심박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신진호	교수	한양의대	백남심장센터소장, 국제진료센터소장	심혈관중재술, 심초음파, 심혈관질환 예방
	임영효	교수	한양의대	심장내과장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허란	조교수	인제의대		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폐고혈압, 심초음파
혈액종양내과	박병배	부교수	인제의대	혈액종양내과장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계종양, 육종, 흑색종, 희귀암
	엄지은	부교수	충남의대	조혈모세포이식센터소장	조혈모세포이식,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및 기타 혈액질환
	오석중	교수	한양의대		빈혈,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적혈구 증가증, 소화기 암질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	서울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임상시험센터장, 의약품안전센터장	천식, 기침,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면역치료, 약물부작용
	박동원	부교수	한양의대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손장원	교수	한양의대	내과과장, 내과계중환자실장	호흡기 중환자의 관리 및 치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암
	윤호주	교수	한양의대	서울병원장, 호흡기센터소장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만성기침, 알레르기, 결핵, 폐암, 간질성 폐질환
	이현	부교수	전북의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결핵, 비결핵항산균폐질환(NTM)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마취통증의학과	김규남	부교수	한양의대	마취통증의학과과장, 외과계중환자실장, 수술실장	이식마취
	김동원	교수	한양의대		뇌신경마취 및 외래마취
	김수연	조교수	한양의대		심폐혈관마취
	김유진	부교수	을지의대		뇌신경마취, 노인마취
	임현영	조교수	고신의대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전종헌	교수	한양의대		정형외과 마취, 중환자의학, 통증생리
	정미애	교수	한양의대		외과 마취, 중환자 관리
방사선종양학과	박혜진	부교수	서울의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전하정	교수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과과장, 노발리스치료센터장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병리과	김현성	조교수	한양의대		신장병리, 림프절병리
	명재경	부교수	충북의대		폐병리, 두경부병리, 신경병리
	백승삼	교수	한양의대	병리과장	소화기병리, 피부병리, 세포병리
비뇨의학과	김용태	교수	서울의대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 질환, 비뇨기 암
	박성열	부교수	한양의대	비뇨의학과장, 고객진료협력센터장	비뇨기 종양학(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 수술, 전립선비대증, 소아비뇨기과
	윤영은	부교수	한양의대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 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 비대증
	조정기	부교수	한양의대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장	비뇨기 종양학, 로봇 및 복강경 수술, 전립선 질환, 요로결석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	서울의대	산부인과장	부인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탈출증, 로봇수술, 복강경수술, 암 생존자 클리닉
	이원무	교수	한양의대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임신성융모질환, 자궁근종, 자궁샘근증, 자궁내막증, 난소의 양성질환,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자궁경 수술
	최중섭	교수	한양의대		부인과 악성 종양(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기타 악성 종양), 부인종양(자궁근종, 난소종양,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수술
	호정규	교수	한양의대		고위험 임신, 조산, 습관성유산, 일반 산부인과
	황정혜	교수	한양의대		여성생식 내분비질환, 갱년기, 불임상담, 일반 산부인과 질환
성형외과	김연환	교수	한양의대	성형외과장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욕창
	박성오	조교수	서울의대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림프부종, 허혈성수지(레이노현상), 흉터 및 켈로이드, 미용

11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	한양의대	소아과장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장-담도 질환, 도 · 위 · 십이지장 질환, 소아비만 , 성장부진, 특수 영양치료, 중금속 중독, 치료내시경시술
	박현경	교수	한양의대	신생아중환자실장	신생아 및 미숙아 관리
	양승	교수	한양의대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 당뇨,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유전대사질환
	이영호	교수	한양의대	병원학교장	소아혈액종양,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세포치료
	이현주	부교수	조선의대		영유아 발달검사, 미숙아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 황달
신경과	김승현	교수	한양의대	세포치료센터소장	퇴행성질환(루게릭병 및 치매), 말초신경 및 근육 질환
	김영서	교수	한양의대		뇌졸중, 경동맥협착,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김현영	교수	한양의대	신경과장, 첨단재생의료센터장	뇌혈관 질환(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김희진	교수	이화여자의대	대외협력실장	치매,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 두뇌건강
	김희태	교수	한양의대		파킨슨병, 이상운동 질환, 보톡스 치료, 떨림
	박진석	조교수	한양의대		뇌전증, 신경계 퇴행성질환,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어지럼증, 수술 중 신경계 감시
	오기욱	부교수	한양의대		근신경계질환,루 게릭병, 말초신경질환,자율신경계 질환,두통, 어지러움증 ※장기연수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	연세대학교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나민균	조교수	한양의대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백광흠	교수	한양의대		요통, 디스크(목, 허리), 척추 질환, 내시경 디스크 수술, 척추 종양, 척추외상, 척추기형
	이형중	교수	한양의대	기획조정실장	뇌혈관질환(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뇌혈관기형, 뇌출혈 등), 혈관내수술, 수두증, 중증 두부외상
	전형준	교수	한양의대	신경외과장	퇴행성 척추질환(경추 및 흉요추), 척추외상, 척추종양 및 척수 신경 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부교수	한양의대		뇌혈관 질환, 혈관내 수술,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안과	안성준	조교수	서울의대	안과장	망막, 유리체, 황반변성,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이원준	조교수	한양의대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 질환
	임한웅	부교수	한양의대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영상의학과	강보경	부교수	한양의대		간담췌영상, 위장관영상, 비뇨생식기영상, 간 및 신장 조직검사
	김미미	조교수	한양의대		간담췌영상, 위장관영상, 간 및 신장 조직검사, 고주파치료
	김여주	교수	경상의대		근골격, 척추영상의학
	박정선	교수	연세의대	영상의학과장	유방 및 갑상선 영상 의학/조직 검사/고주파 치료
	송순영	교수	한양의대	서울부원장	인터벤션, 간담도영상, 혈관영상
	이승훈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영상의학과장	근골격, 척추영상의학
	이영준	교수	연세의대		신경두경부영상의학, 신경중재치료의학
	최요원	교수	서울의대		흉부 영상의학
외과	권오정	교수	한양의대		혈관, 이식외과
	안병규	부교수	한양의대		대장(직장)암, 대장항문의 양성질환, 염증성 장질환, 복강경/로봇수술, 게실염, 복강내 악성신생물
	이강홍	교수	울산의대		대장(직장)암, 염증성장질환, 대장항문양성질환, 복강경수술
	이경근	교수	한양의대	집중영양치료실장	간 · 담도 · 췌장외과, 복강경수술
	이주희	부교수	조선의대		위암 및 상부위장관질환, 비만대사 수술, 탈장,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정민성	교수	부산의대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정윤경	조교수	한양의대		복강경 및 로봇수술
	최동호	교수	한양의대	연구부원장, 외과장, 의학연구원장, 장기이식센터소장	간, 담도, 췌장,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하태경	교수	한양의대		상부위장관, 위암, 고도비만, 탈장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	연세의대		소생학, 중환자의학, 중독학, 응급창상관리
	고벽성	부교수	조선의대		중환자의학, 소생의학, 재난의학, 중독학, 고압의학, 응급 영상
	오재훈	부교수	한양의대	응급의학과장, 국가응급진료정보망전담팀장, 신속대응센터장, 응급중환자실장	기본인명구조술, 전문심장구조술, 심정지후 통합치료, 노인의학, 통증, 심초음파, 복부초음파
	임태호	교수	한양의대	병원신축추진단장	소생의학, 재난의학, 중환자의학, 응급의료체계, 외상학
	조용일	조교수	한양의대		재난의학, 중환자의학, 중독학, 소생의학
이비인후과	변하영	조교수	성균관의대		어지럼증, 난청, 소아귀질환, 중이염, 이명, 안면신경질환
	송창면	부교수	서울의대		갑상선암,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두경부암, 편도질환, 목의 림프절질환, 목이나 목구멍의 멍울(혹), 음성 변화

11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이비인후과	조석현	교수	한양의대	이비인후과장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내시경수술, 코성형
	태경	교수	한양의대	암센터장,로봇내시경수술센터장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재활의학과	김미정	교수	이화여자의대	재활의학과장	통증재활, 노인재활, 스포츠의학, 소아재활
	박시복	교수	한양의대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발클리닉
	이규훈	교수	경희의대	류마티스관절재활의학과장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재활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	한양의대		스트레스 관련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교수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장, QI실장	중독질환(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정형외과	강창남	교수	한양의대		척추외과
	김이석	교수	한양의대	정보관리부원장, 정형외과장, 의료정보실장	고관절 클리닉(인공 고관절 치환술, 골절, 관절경), 고관절 스포츠 손상
	성일훈	교수	한양의대		족부 클리닉, 족부 재건술(만15세이상)
	이봉근	교수	한양의대	수련교육부장, 류마티스골관절외과장	견주관절, 회전근개 질환, 류마티스 질환, 관절경
	이진규	부교수	한양의대		슬관절 스포츠 손상, 연골 재생술(줄기세포/카티스템),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판 복원술, O-다리 교정 절골술(초기 관절염 치료)
	이창훈	부교수	한양의대		수부 및 주관절 질환, 미세 수술
	최성훈	조교수	울산의대		퇴행성 척추증,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증 및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노인성 후만증
	최충혁	교수	한양의대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 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황규태	부교수	한양의대		골절, 외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골반 골절, 다발성 골절, 골수염 클리닉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교수	한양의대	직업환경의학과장, 건강검진센터장	산업재해, 직업성질환, 환경성질환
	이수진	교수	한양의대		산업재해, 직업성질환, 환경성질환, 농업인 직업병 및 호흡기 질환, 일반 성인병 및 암 건강검진
진단검사의학과	김덕언	교수	한양의대		수혈의학, 면역혈액학, Bioethics
	김영은	조교수	동국의대		진단분자유전학, 신경유전, 소아유전, 암유전, 분자미생물
	이양순	부교수	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과장, 감염관리실장	임상미생물학, 항균제 내성
	전래희	교수	한양의대		진단면역학, 자가면역질환, 조기관절염
	하지혜	조교수	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 진단혈액학, 혈액종양, 혈액응고

소속부서	성명	직위	출신학교	직책	진료분야
치과	박창주	교수	서울치대	치과장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양악수술, 치과진정법, 턱관절장애
	한지영	부교수	경희치대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인공치아이식
	황경균	교수	서울치대		턱얼굴성형(기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타액선)질환,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피부과	고주연	교수	한양의대	피부과장	여드름 및 피부미용, 레이저(주근깨, 점, 기미 등 색소성 질환 및 안면홍조, 모세혈관 확장증),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자가면역 피부질환, 피부암, 아토피 피부염, 손습진
	김정은	부교수	고려의대	의료정보연구센터장	피부암, 건선, 색소질환, 피부미용, 레이저, 여드름, 백반증, 화농성 한선염
핵의학과	이수진	부교수	부산대의전원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방사성의약품 표적치료 및 종양핵의학 영상
	최윤영	교수	한양의대	핵의학과장	근골격계 핵의학 영상, SPECT/CT, 종양 PET/CT
흉부외과	김혁	교수	한양의대	흉부외과장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선천성 심장 질환,흉강경 수술, 일반 폐질환,
	장효준	부교수	한양의대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 기흉, 다한증,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12 병원 배치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층	음압병동		
4층	음압병동	연결통로	본관 7층
3층	응급중환자실	연결통로	본관 6층
2층	회의실, 의국	연결통로	본관 5층
1층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결통로	본관 3층

서관		
7층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약제팀, 주사혼합조제실	
6층	외과, 소아외과, 소화기센터, 내시경센터, 주사실	연결통로
5층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심장초음파실, 외래(접수)수납창구, 정보관리부	
4층	심장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암센터, 다학제통합진료실, 맞춤형비만치료센터, 호흡기알레르기검사센터, 인지기능검사실, 뇌혈류검사실, 외래(접수) 수납창구	연결통로
3층	국제병원(국제진료센터), 종합검진센터, 국제병원CT실	
2층	장례식장, 시설팀	
1층	장례식장, 장례식장 사무실	
B1층	장례식장	

본관		
21층	VIP병동, 조혈모세포이식센터	
20층	병동(간호간병통합서비스)	
19층	병동	
18층	병동	
17층	병동	T관
16층	병동, 뇌졸중전문치료실	
15층	병동	
12층	병동(간호간병통합서비스)	
11층	병동	
10층	병동	
9층	병동	
8층	병동	연결통로
7층	병동, 신생아실, 심혈관중환자실	연결통로
6층	병동, 신생아중환자실, 분만실	연결통로
5층	중앙수술실, 회복실, 심혈관촬영실 · 하이브리드수술실 내과계중환자실, 외과계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3층	정형외과, 신경외과, 검사통합예약실, 외래채혈실, 심장검사실, 원무팀, 강당, 외래(접수) 수납창구, 영상의학CD · 의무기록발급창구	연결통로
2층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치과, 핵의학과 · PET센터, 영상의학과	
1층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생리검사실, 처음오신분 전용창구, 외래(접수) 수납창구, 커피점, 약국(외래 · 응급실 · 병실 · 주사), 복약지도실	
B1층	고객지원센터(상담실), 진료협력팀, 전화예약실, 감염관리실, 임상약국, 보건관리 상담실, 영양팀, 직원식당, 통신실	
B2층	의무기록팀, 제약실, 통합관제실, HYSA교육장	
B3층	시설팀(전기실, 기계실)	

신관			
7층	병리과	연결통로	본관 7층
6층	세미나실, 내과회의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5층	간호사기숙사		
3층	MRI실, CT실 혈관조영실 방사선촬영실	연결통로	본관 3층
2층	방사선종양학과 노발리스TX센터 방사선촬영실	연결통로	본관 2층

	동관	
	P1층	직업환경의학과
	10층	의국
	9층	의료정보팀, 대외홍보팀, 병원신축추진단
	8층	원장단실, 행정동, 제1 · 2회의실, 간호국사무실
	7층	병동, 방사선옥소치료실
	6층	수련교육부장실, 수련교육팀, 인턴숙소, 원목실, 예배실
연결통로	5층	재활의학과, 회의실
연결통로	4층	정신건강의학과, 인공신장센터, 장기이식센터, 사회복지팀, 육아지도실, 병원학교
연결통로	3층	진단검사의학과
	2층	류마티스연구실, 류마티스행정지원팀, QI팀
연결통로	1층	류마티스병원, 은행, 편의점, 외래(접수)수납창구
	B1층	물류팀(의공파트), 협력업체창고
	B2층	중앙공급실
	B3층	시설팀(철공실 · 가스계), 물류팀(직물제작실)
	B4층	시설팀(기계실 · 목공실), 폐수처리장

	신한프라자	
연결통로	5층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CRCRA)
연결통로	4층	발달의학센터
연결통로	3층	건강검진센터
연결통로	2층	류마티스연구센터, BIO BANK
연결통로	1층	푸드코트, 제과점
연결통로	B1층	물류팀, 노동조합, 의료기판매점
연결통로	B2층	보험심사팀, 가정간호사실
	B3층	인사총무팀(비상계획파트), 간호국 회의실

13 시설현황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일
병원	본관	지상 18층 ~ 지하 3층	3,466.34	39,888.80	1972. 8. 22.
	신관	지상 5층 ~ 지하 1층	987.52	4,671.49	1980. 8. 18.
	동관	지상 13층	1,461.42	14,781.70	1982. 4. 19.
	서관	지하 2층 ~ 지상 7층	1,780.29	10,948.87	2000. 7. 3.
	신한프라자	지하 2층 ~ 지상 5층	794.18	2,802.55	2012. 4. 24.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상 6층	518.5	2,291.96	2016. 12. 14.
소계			9,008.25	75,385.37	
창고(장례식장)		지상 1층	9.92	9.92	1972. 8. 22.
안치실		지상 3층	267.44	572.57	1977. 10. 17.
폐수처리장		지상 1층	124.74	124.74	1995. 3. 22.
직원주차장		지상 6층	2,007.70	12,046.20	1995. 4. 28.
연결통로		지상 1층	197.65	197.65	2000. 7. 31.
서관주차장		지하 3층 ~ 지상 2층	354.09	5,473.54	2001. 4. 19.
소계			2,961.54	18,424.62	
합계			11,969.79	93,809.99	

14 수상 및 선정 내역 2012~2022

2012
보건복지부 급성심장정지 조사유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심근경색 및
급성기 뇌졸중 1등급
메디컬아시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대상

2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1등급

201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최우수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1등급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1등급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1등급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1등급
보건복지부 극희귀질환 진단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최우수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1등급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최우수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1등급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감정노동 힐링365 캠페인'
참여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의료원 매거진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2018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산업 발전 기여 '감사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식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 유방, 폐, 위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환자실 1등급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1등급

2019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유방암 1등급
민방위 재난관리국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환자실 1등급

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유방암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건강 입원영역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2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직업병 안심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등급
메디컬아시아 암센터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대한뇌졸중학회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선정

15 The First, 최초의 기록들

세계/아시아 최초

1972

아시아 최대 규모 병원 개원

1995

세계 최초, 신장 교환이식 성공

2006

세계 최초, 버거씨병 환자에게 탯줄줄기세포 임상 적용 결과 논문 발표
아시아 최초, 원격 로봇수술 성공

2009

세계 최초, 정상대식세포주(IT-1) 확립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새로운 자가항체 anti-MTOC 및 anti-GiM을 발견

2016

세계 최초, ALS 세포치료제(자가골수유래 성체줄기세포) 개발 및 상용화
세계 최초, 루푸스 원인 유전자 및 발병 기전 규명

2020

세계 최초로 류마티스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규명
세계 최초, 루푸스 발병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 46개 구명

2021

세계 최초, 인간 간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방법 개발

국내 최초

1972
국내 최초, 의과대학의 치과학교실 개설
국내 최초, 육아상담실 개설
국내 최초, 의학용 레이저 도입
국내 최초, 비염알레르기 클리닉 개설

1973
국내 최초, Electric acupuncture 도입

1976
국내 최초, 임상심리수련과정 (3년) 시작
국내 최초, 임상심리수련과정 수료자 1호, 김재환 교수

1979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
국내 최초, 소아외과 진료 시작

1981
국내 최초, 하바드탱크 설치,
사지마비 및 전신 화상 환자 치료
국내 최초, 초음파 진단장치(일본 Toshiba) 도입
국내 최초, 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내시경적 경화요법 도입

1983
국내 최초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시행

1984
국내 최초, 간동맥색전술(TAE) 도입

1986
국내 최초, 간경변 동반 간암의 대량 간절제 시행

1987
국내 최초,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암 유전자 발현의
조직 표본 내 유전자 재결합 반응 성공

1989
국내 최초, 류마티스내과 개설

1990
국내 최초, 쌍둥이(Siamese twins) 분리수술 성공

1991
국내 최초, 순수 신장기증
국내 최초, 신장 교환이식 프로그램 개발

1998
국내 최초, 제대혈 이식 성공
국내 최초, 류마티스병원 개원(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통증치료과,진단면역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등 6개과 개설)
국내 최초, 진단면역과 개설

1999
국내 최초, 수중 분만

2002
국내 최초, 신장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결과 비교 논문 발표

2004
국내 최초, 관절염 및 류마티즘에 관한 자연복원 의학 도입

2008
국내 최초, 망막유리체의 새로운 수술기법 성공

2010
국내 최초, ophthalmoscope digtal scanning
laser F-10 도입
국내 최초, 한국인 특이 유전학적 특징 기반
신경세포 분화 방법 개발
국내 최초, 식약처 루게릭병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2016
국내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엠케어 도입
국내 최초, 복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2018
국내 최초, 한국인 특이 유전학적 특징 기반
신경세포 분화 방법 개발
국내 병원계 최초, 간호사 및 병원 내 정규직 채용 시
AI 면접 도입

2020
국내 최초, 진료 상황 가상현실 시스템 블루룸 도입

편찬
후기











성윤경
편찬위원회위원장

한양대학교병원, 그 끝나지 않을 길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확히 1년전, 50년사 편찬위원장직을 제안 받은 이후 지금까지 머리를 떠나지 않은 질문이다.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아름답고 철저하게 기술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응축하여 제시해야 할 것도 같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질문은 역사 편찬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가진 질문일 것이다. 모든 위원들은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나온 결과물이 지금의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다.

선배들이 기록해준 30년사, 40년사를 참고로 하고, 이후 10년간의 역사를 더하여 지금의 50년사가 완성되었다. 우리 병원의 현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위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기에 '누구나 읽고 싶은 에세이집'을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다. 이런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완성본을 접하고 보니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기억들이 마음에 걸린다. 짧은 책 한 권에 우리의 모든 기억과 땀방울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글들이 모두의 가슴 속에 그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5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에게 설렘을 주는 숫자임에 틀림이 없다. 결코 짧지 않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누군가의 기억 속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시기지만 100년과 같이 큰 획을 그어야 하는 의무감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양대학교병원 50년이라는 시기에,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50년 한양대학교병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에 맞는 많은 성취와 성공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훌륭한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무엇보다 실질적 업무를 총괄해 주신 임영효 교수님과 안병규 교수님, 박미숙 부장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해준 이승준 계장님, 전형수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실무위원분들과 역사편찬 소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또한, 훌륭한 편집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주신 윤호주 원장님과 이형중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일과 중에서 시간을 내어 원고 작성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편찬 후기



강보경
영상의학과 부교수

우리 한양대학교병원의 역사로 길이 남을 50년사를 편찬하는 데 제 이름도 한 줄 올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 편찬위원님들과 그 외 보이지 않는곳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값진 수고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권오균
기획팀 부장

많은 분들이 애써서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50년사에 오롯이 잘 녹아들어가서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현욱
의료정보팀 부장

이번에 50년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의 역사도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 전 저희 부서가 심혈을 기울여 도입했던 차세대통합시스템도 내용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뜻깊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우리에게 역사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그리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작업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성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임영효 교수님, 안병규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편찬위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그동안 만들어 오신, 그리고 현재 만들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다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박미숙
간호국 부장

한양대학교병원의 50년 중에서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년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굴곡들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시기를 딛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더욱 도약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절실함이 이번 50년사에도 잘 녹아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선
대외홍보팀 과장

22년 전 처음 홍보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 병원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000년도부터, 그 이후의 병원의 역사는 저희 대외홍보팀에서 열심히 기록을 남겼고 그 많은 부분들이 이번 50년사에 담겼다는 점에서 자화자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지만 기록자로서 한양대학교병원의 역사에 기여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병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규
외과 부교수

생각해보니, 50년사 편찬을 위해 성윤경 교수님과 임영효 교수님을 처음 뵀던 날이 작년 9월 17일이더라고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에 사사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가는 지금의 결과물을 보니,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장님과 편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정자
원무팀 부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편찬위원님들, 5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책이 지난 반세기에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완공될 새 병원과 함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고 우리 병원의 새 시대를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현
간호국 부장

길이길이 남을 50년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위원장님, 편찬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지만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이 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준
기획팀 계장

우리 병원에 근무한지 제가 11년 정도 됐는데 50년사 작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모르는 그 이전의 역사도 알아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50년사 안에 제 딸 사진도 들어가 됐고, 부문사에 제 사진도 실렸으니 나중에 딸이 크면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추억이 또 하나 생겼네요. 지나온 10개월보다 남은 1~2개월이 더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마무리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원준
안과 조교수

우리 병원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정말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저는 사진 파트를 담당해서 예전부터 아카이빙되어 있던 사진들을 다 봤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곳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50년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70년사에도 꼭 참여해보겠습니다!



이창무
물류팀 부장

우리 병원의 반세기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담아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편찬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구성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만든 50년사가 앞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창훈
정형외과 부교수

처음에는 이 방대한 자료가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질까,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성윤경 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50년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최상의 50년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면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반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50년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읽어보고 기획하면서 향후 50년,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회복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형수
대외홍보팀 과장

한양대학교병원 50년의 역사 중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습니다. 대외홍보팀으로 병원의 역사와 자랑거리를 열심히 기록한 결과물들이 50년사 편찬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병원이 무궁한 발전을 이뤄 빛나는 100년사를 제작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정영덕
수련교육팀 부장

뒤늦게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50년사 편찬에 동참했다는 걸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편찬후기에 이렇게 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영광이고요. 함께 노력해서 50년사라는 긴 역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우리 편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료원
ICAL CENTER


한양대학교병원
INTERNATIONAL HOSPITAL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를 만든 사람들

편찬위원장

성윤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편찬위원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안병규 외과 부교수
이창훈 정형외과 부교수
강보경 영상의학과 부교수
이원준 안과 조교수
박미숙 간호국 부장
양현 간호국 부장
권오균 기획팀 부장
김현욱 의료정보팀 부장
김동훈 인사총무팀 부장
정영덕 수련교육팀 부장
이창무 물류팀 부장
양정자 원무팀 부장
주임선 시설팀 부장
손화선 대외홍보팀 과장
전형수 대외홍보팀 과장
이승준 기획팀 계장(간사)

편찬 실무위원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안병규 외과 부교수
이창훈 정형외과 부교수
이원준 안과 조교수
박미숙 간호국 부장
전형수 대외홍보팀 과장
이승준 기획팀 계장

도움주신 분들

김미라 원무팀 과장
백승명 수련교육팀 과장
한선규 시설팀 과장
윤인아 간호국 계장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윤호주
편찬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처 한양대학교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디자인·제작 큐라인 02-2279-2209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